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5호

(루계 451)



◆◆◆◆◆◆◆◆◆◆ 차 례 ◆◆◆◆◆◆◆◆◆◆

조국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외 1 편)	4
꽃씨를 뿌리네	4
해마다 오늘이 오면	5
만경대고향집 문앞에서	5
해빛은 찬란히 비쳐	6
탁월한 지도자	10
영원한 기념일	10
심장으로 부르는 그 이름	11
5 월	12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외 1 편)	12
해 빛	13
총련과 함께 걸어온 재일조선문학의 자랑찬 성과	14
교원의 마음 (외 1 편)	19
교원과 제자	19
나는 시처럼 살리라	20

출강중 울리며	20
자기가 선 자리	21
휴가 온 젊은 병사	28
우리의 총련이여	29
미래를 안고사는 나는 교원.....	29
어머니교원	30
휴일의 대동강가에서	38
길 목.....	39
한 분회장의 모습	47
봄날의 아름다운 화폭속에서.....	49
뜨거운 열, 밝은 빛	51
검덕의 모습을... ..	52
출쟁의 기쁨	52
지 름 길	53
검덕의 시간	57
그 심장의 불길로	58
령길을 따라	59
기 뻘.....	64
그 웃음을	66
형제의 나라 조선에서	67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에 대하여	72
대동강을 기행하면서	78
피의 부름	79

조국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외 1 편

전병구

그리움에 사무쳐
조국의 하늘을 우러를 때면
꿈결에도 더듬어 찾는
못잊을 그 품으로 달려가라

해 뜨는 아침이면
해빛처럼 환하신 영상
별 뜨는 저녁이면
별빛처럼 밝으신 그 영상 우러러

구름 넘어 바다 건너
이역의 하늘 밑에 우리 있어도
따사론 손길로 보살펴주시는
아버이 수령님 품이여, 당의 품이여 !

불러 다함없는 그 품이 있기에
망국노의 설움으로 가득찼던
우리의 가슴가슴엔
민족의 넋이 살아 고동치고

규슈와 홋카이도-
우리 동포 사는곳 어디에나
조국의 기발이 나뭇기는것이 아닌가

잊을수 없어라
난생처음 조선옷을 입고
손에손에 우리 기발을 들고
감격에 웃고 울며 대회를 메우던
총련결성의 그날이여 !

그날로부터 사랑의 해돋기를 새기며

그 몇몇해-
민족을 찾고 민족을 지켜가는
애국의 그 한길우에
국어강습소의 종소리,
또랑또랑 아이들의 글소리 높이 울려주신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귀국 배길의 닳을 올리신 사랑으로
나라의 크나큰 기쁨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 명절상을 차려주시지 않으셨던가 !
온갖 시름도 잊고 가라고
빛을 뿌리는 금강의 봉우리,
향산천기슭에도 세워주시지 않으셨던가

그 사랑으로 지켜주고
그 은정으로 보살피시여
비바람 거치른 이역의 하늘 끝에 살아도
조국의 한뜨락을 걷는 마음이 아닌가 !

아, 조국 !
무한대의 우주공간처럼
하늘같은 그 품이 안아주어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 빛을 뿌리는
주체의 내 조국

그리움에 사무쳐 우러를 때마다
더더욱 못잊어 달려가는
아버이수령님 품이여 !
참된 삶의 해빛을 주는
어머니당의 품이여 !

꽃씨를 뿌리네

하늘도 비를 걷히니
해빛이 쟁그르...
총련회관 마당에
우리 분회 앞뜰에
꽃씨를 뿌리네

정성담아 뿌리네
조국방문 그날에
받아온 꽃씨
어디 보자
손에손에 옮겨가며

스무살 꽃나이에
바다건너 내던지었던
스무살 꽃나이를
분회장어머니 다시 찾은듯

웃음절반 노래절반
팔소매도 걷어올리고
앞장에서 뿌려가네
붉은 마음을 심어가네

이역만리 떠나 살아도
조국의 꽃으로 가꾸어주시는
그 사랑 못잊어

더더욱 못잊어

그래서 언제나
봄빛을 안고 사는
그 마음을 심는다고
꽃씨를 뿌린다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해와 별을 따라
조국의 꽃으로 붉게 필
그 마음을 심는다고

해마다 오늘이 오면

김석주

망울을 키우며
어제는 아니 났네
기다림에 부풀도록
어제는 아니 났네

망울을 터치고
오늘은 피었네
조국진군 그날이 오늘이라고
수령님 못잊으시는 오늘 피었네

진달래 떨기떨기 피어서
너대원들 얼굴마저 붉었더라고...
수령님 못잊으시는 그 꽃이라서

어제는 아니 피고 오늘 피었네

반기여 웃는 꽃을
볼에 비비며 눈물짓던
그날엔 오신 날 기다려 피네
오늘은 그날을 못잊어 피네

어제도 래일도 아니 피고
못잊으시는 오늘이면
못잊으시는 꽃이 피네
삼지연 못가에
해마다 5월이면 꽃이 피네

만경대고향집 문앞에서

김종원

처음 열린 그날은
그 언제던가
우리 수령님
눈내리던 새벽길
서둘러 떠나시던 그날은

창호지 하얀 문고리 잡아보면
가슴속엔 어려오누나
인민의 가슴에 안겨주실
그 봄이 바쁘시여

우리 수령님
이 문을 서둘러 나가시던 그 뜨거운 체온

그날이 아니었다면
진정 우리 수령님
이 문을 빨리 여시지 않았다면
내 가슴속 기쁨의 꽃이
이리도 빨리 열릴것인가
내앞의 행복의 역만문들이
이리도 나를 향해 서둘러 열렸을것인가

해빛은 찬란히 비쳐

리일복

노래가 울린다.

이역만리 일본땅우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보람높은 삶의 노래가 지구우에 힘차게 울려 퍼진다.

당당하고 존엄있는 조국을 가진 사람만이 심장을 헤쳐 부를수 있는 궁지와 자랑에 넘친 노래, 부푸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지닌 사람들만이 목청껏 부를수 있는 신념과 투지의 노래가 자본의 광풍 휘몰아치는 그 땅 한복판에서 터져나온다.

그 무엇이 그들의 가슴에 깃들어있기에 그 노래 그리도 힘차고 그 어떤 힘이 그들의 심장에 높뛰기에 그렇듯 그 노래 자랑스럽게 울리는것인가.

위대한 태양의 빛아래 30년 !

가꾸어지고 무성하여 활짝 피어난 꽃송이들이 이역의 거친 비바람속에서도 자기의 빛을 자랑하며 향기를 뿜는것이니 무심히 듣지 말라, 그 노래 소리들-

삶의 보람과 투쟁의욕으로 부풀어오른 가슴들만이 참된 노래를 부를수 있는것이니 그 노래속에 깃든 진정을, 그 노래를 준 은혜론 해빛을 우리려 감사드리느 뜨거운 마음의 호소를 함께 들으라.

존엄있는 해외교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30년 !

실로 이 짧지 않은 세월은 걸음걸음 가시덤불 헤치며 투쟁과 승리만을 새겨온 영광의 나날이었다.

이 땅의 이름없는 한그루 나무는 한돌기 성장의 년륜을 새기기 위해서도 비오고 바람불고 눈내리는 변화무쌍한 사시절의 날과 달을 맞고보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간의 생활, 더구나 반동들의 준동이 그칠새없는 이국땅에서 별리는 해외교포운동의 한해한해를 어찌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가늠할수 있으며 더우기 그 30년의 년륜을 간단히 말할수 있겠는가.

결성 30돐을 맞는 총련은 오늘 자기 활동에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에 이르러있으며 대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그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복잡한 정세속에서 반동들의 온갖 파괴모략책동과 악랄한 사상공세를 제때에 짓부시고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자기앞에 나선 숭고한 애국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모든 일꾼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총련, 지부와 본회가 강화되고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명성높은 우리의 총련 !

은혜로운 해빛아래 총련이 새겨온 빛나는 30년의 년륜우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어찌 가슴뜨거움없이 바라볼수 있으며 그 알찬 열매속에 깃든 가지가지 사연을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으랴.

해외교포, 오래동안 이 말은 살길을 찾아 이역만리에 류랑하면서 가혹한 착취와 인간이하의 멸시의 대상으로 되여온 비참한 수난자들의 대명사로 씌여왔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날강도들의 괴물은 침략과 더불어 해외이민의 수난의 력사가 시작되고 해외교포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가. 이때로부터 인류력사에는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헤매는 교포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또하나의 가장 비극적인 수난의 장이 새겨지게 되었으니 지구우에 존재하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중에서도 재일조선인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나라가 일제에게 먹히어 민족의 모든것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침략의 쇠사슬소리 강산에 차넘치던 민족수난의 그 나날, 우리 동포들은 땅과 일자리를 빼앗기고 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처럼 짓밟히고 쫓기며 정처없이 일본과 북간도로 흩어져갔다.

《정용》이니 《보국대》니 《인부모집》이니 하는 온갖 명목으로 일본땅에 끌려간 수많은 동포들은 탄광, 광산의 지하막장과 군수시설건설장에서 인간이하의 고역속에 허덕여야 했으며 매맞고 총칼에 맞아 쓰러져도 그 어디에 하소할데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것이다.

조국의 해방은 재일동포들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허나 그후에도 재일교포문제는 의연히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풍파사나운 바다우에서 키없이 헤매는 쪽배와도 같이 향방을 모르고 헤매던 재일교포운동, 몇번이나 교포단체가 조직되었었으나 내외의 반동들과 대렬내에 끼여든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조직은 해산되고 일부 극좌적인 행동으로 하여 난파선의 운명에 올랐던 재일조선인운동,

과연 어떤 길로 나가야 하며 어떻게 키를 잡아야 하는가, 신념의 기둥은 무엇이며 마음속의 등대는 어디에 있는가.

존엄한 운명의 기로에서 해매일적에 은혜로운 구원의 해빛이 밝게 비쳐갔으니 그것은 광휘로운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어려운 전쟁의 날에 전선승리의 작선을 짜시던 그 바쁘신 짬에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패와 동포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나갈 방침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 !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이 시작되던 그 바쁘신 날에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강력적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으니 비록 이국 땅에서 진행되지만 해외교포운동은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되게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이 방침은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밝히는 휘황한 등대로 되었다.

그렇다. 이 방침은 과멸의 위기에서 허덕이던 재일동포들의 가슴에 재생의 빛을 뿌려준 은혜로운 구원의 빛발이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불멸의 화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에 따라 1955년 5월 25일 !

이 력사의 날 일본의 아사꾸사공회당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대회의 막이 올랐고 여기서 총련의 탄생을 고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해외교포운동에서 새력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에 따라 결성된 총련을 환영하여 일본땅을 진감한 동포들의 환호성 !

그것은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허덕이던 재일동포들을 구원해주시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정이 막을수 없이 터져오르는 심장의 분출이었다.

풍파사나운 일본땅에서 피눈물나는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몸부림치던 재일동포들앞에는 재생의 밝은 길이 열리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력사무대를 당당히 확보해갈 힘과 투지가 솟아올랐다.

긴긴세월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속에 피눈물을 흘리던 재일동포들은 무권리한 수난자로부터 자랑스러운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다시한번 세상에 태어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을 무어주심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으며 재일조선인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된 영예와 끝없는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보람찬 새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30년 !
내외반동들의 온갖 모략과 공세를 짓부시고 총련이 걸이온 이 자랑찬 로정은 걸음걸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동포대중속에 뿌리를 깊이 박은 거목으로 자라난 보람찬 나날이었으며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에 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새 장을 수놓은 영광의 나날이었다.

오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로서 총련이 자기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두에서 당당히 걸어나가는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눈시울 뜨거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가까이에서 받아안은 사랑보다 멀리 떨어져있으면서 받는 사랑은 더 뜨겁고 은혜롭게 가슴에 안겨지는 법이다.

바다건너 멀리 이역땅에 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각별한것이여서 그 사랑속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누구나 매일 매시 각 자기에게 잇닿아있는 그 사랑의 해발을 느끼며 땀땀이 살며 싸워나가는것이다.

실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그들이 아름답게 받아안은 조국의 사랑이며 힘과 투지의 원천이며 삶 의 자양분이며 행복의 샘터이다.

어느해인가,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낮동안 현지지도의 먼길우에서 쌓인 피로도 잊으신듯 집무실에서 수많은 문건들을 보아주고계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한건의 서류를 펴놓으시고 오래도록 읽고 또 읽으시며 사색에 잠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심려어린 안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다가 창가에 다가가시여 어둠속에 잠긴 저 멀리 동녘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안면을 생각하여 시간이 너무 지났음을 아뢰이려고 들어왔던 한 일군이 영문몰라 책상옆에서 발걸음 멈추었을 때 그의 눈엔 뚜렷이 안겨왔다.

《병력서.》

아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보시고 또 보시던 그 문건은 다름아닌 총련의 한 책임일군의 병력서였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밤이 깊어가도록 그토록 보아주시던 문건은 어느 중요한 당문건도, 그 어떤 거창한 설계도도 아닌 이국땅에 있는 한 총련일군의 병력서였다.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다.》

뜨거운 걱정예 목이 메임을 느끼며 그 일군이 이렇게 아뢰이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 하시는데였다.

《이국땅에서 사업하고있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역만리 찬바람속에서 일하는 전사들을 생각하여 잠 못 이루시는 아버지,

먼 일본땅에서 사업문건이 아닌 병력서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이토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은혜로운 태양!

바로 이 사랑, 이 은정 속에 안겨살기에 총련일군들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용기와 신심에 넘쳐 애국사업에 동포들을 불러일으키며 총련을 존엄있고 위력한 해외공민단체로 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비단 총련의 한 일군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재일 70만동포모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사랑이었으며 믿음이였다.

이 사랑, 이 믿음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민족권리를 지키는 사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고 보살펴주시었으며 바로 이 자애로운 사랑으로 재일조선인자녀들을 안으시어 넓고넓은 배움의 길에 세워주시었으며 재일동포상공인들의 생활을 돌봐주시었다.

교육사업을 총련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시고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문제에 기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을 어찌 가슴뜨거움없이 돌이켜볼 수 있랴.

일찌기 자녀교육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어 해외교포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민족교육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신 아버지 수령님.

그이께서는 해외교포교육은 이국땅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히시고 교육체계와 과목구성, 학생대렬을 늘이는 사업과 학교운영, 교원대렬을 잘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육친의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갖든 이야기 하나만을 두고도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은정이 동포자녀들에게 잇닿아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국이 방금 전쟁의 재가루를 털어버리고 첫 5개년계획의 명마루를 향해 펼쳐나섰던 1957년 1월 어느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국가예산을 토의하는 내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허리를 펴고 일떠서기 시작한 조국땅위에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았다. 용광로도 세우고 발전소도 건설해야 했다. 도시와 마을도 건설해야 했으며 관제공사도 크게 벌려야 했고 학교도 세워야 했다.

어느 하나도 뒤로 미룰수 없이 절박하고 긴요한 문제들이었으나 자재와 자금, 원료는 모자랐다. 편전을 쪼개고 허리띠를 졸리매며 일해야 할 어려운 때였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국가예산의 마지막 조항까지 다 검토하고 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문득 한 책임일군에게 물으시었다.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느 부문에 넣었습니까?》

그러자 그 일군은 망설이며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기회를 봐서 보내려고 한다고 말쑤올리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창가에 시선을 보내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이윽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입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일본땅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새로 내오고 이 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회의참가자들은 깊은 감동에 잠겨 말없이 뜨거운 것을 삼키었다.

진정 이것은 일찌기 세계 재정금융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특이하고 경이적인 사실이었으며 그 어느 재정전문가도 상상할수 없었던 위대한 사랑속에 태어난 거대한 사변이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해마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바다 건너 이역땅으로 계속 가닿는것을 보며 그 혜택아래 일본땅 가는곳마다에 높이 일떠선 조선학교들에서 조선글 읽는 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는것을 보며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끝없는 존경과 흠모,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진심으로 그이를 우러러따르고있다.

재일상공인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또한 세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애국》의 탈을 쓴 이색분자들이 상공인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장차는 《타도대상》이니 기업에서 영영 손을 떼라고 동포상공인들을 배척해나설

때도 이것은 총련대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나쁜 놈들의 작간이라고 하시면서 동포상공인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총련애국사업에 발벗고 나서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이 그 손길.

재일상공인들이 원로난, 경영난, 판로난과 같은 진통을 겪고있는 사정을 료해하시고 그 기업난을 조국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해주시고 사회주의 조국의 인민경제 한 부문처럼 재일상공인들의 애국 사업을 백방으로 지원하도록 해주신 은혜로운 사랑의 그 해빛!

그 손길, 그 해빛아래 살며 일하기에 재일상공인들은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자들과 한 대오에 서서 국가적인 혜택과 따뜻한 보살핌속에 자기의 애국적 기업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진정 재일 70만동포 그 누구에게나 골고루 바쳐가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것이다.

조국을 방문한 한 총련일군의 주름잡힌 얼굴에서 꼭절 많은 지난 기간의 재일조선인운동을 헤아려보시며 이역땅의 찬비속에 마음고생까지 겹치다나니 더 늙어보인다고 크게 심려하시며 그를 따듯이 안아주시는 아버지품, 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총련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차머리를 돌리시고 불원천리 밤길을 달려오시여 그 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그 품!

그 품에 안겨살기에 이국의 흐린 하늘아래에서도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며 재일동포들은 공화국국민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품이 있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온 세상이 경탄하여 마지않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이 수십년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이며 혹가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는 일본땅 어디에 가나 조선인학교들에 조선글 소리 높고 재일동포들의 삶의 보람이 꽃피고있는것이다.

그 은혜론 품이 있어 총련예술단이 부르는 금강산의 노래가 일본땅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조선예술의 향취를 풍겨주고있는것이다.

그러기에 망국의 곡성 강산에 사무치던 경술년 처육의 그날로부터 우리 민족이 겪어온 참담한 수난의 목격자인 동해의 물결도 오늘은 기쁨과 행복에 겨워 춤추며 노래하고있다! 식민지망국노의 가장 처참한 운명에서 버림받던 해외교포들을 구원하시여 당당한 주체조국의 해외국민된 영예를 안겨주시고 자주적인간의 본보기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이 은혜로운 품은 조국땅에 사는 인민들은 물론 이역만리에 사는 해외동포들

까지도 따사롭게 안아주시는 위대한 아버지품이며 오늘의 행복뿐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말아안아 보살펴주는 영원한 사랑의 품이다.

그 품에 한번 안기면 누구나 자본주의 진흙탕속에서도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신념의 횃불을 가슴에 지니고 그 빛발을 받아안으면 칠칠야밤과도 같은 자본주의환경에서도 나갈 길을 똑똑히 보고 주체의 길로 드림없이 나아가는것이니 우주공간의 수억만 못별들에 영원불멸할 빛을 주는 광원인 태양과 같이 인민의 가슴마다 삶과 행복의 빛을 주시는 영원한 인류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의 품을 어찌 온 세상에 목청껏 노래하지 않으랴!

총련이 걸어온 영광의 30년!

실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은례로운 사랑속에 수놓아온 자랑높은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며 버림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높은 행복의 절정에 올라섰는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인간존중의 불멸의 서사시이며 주체의 빛발아래 가꾸어진 꽃은 지구의 어디에서나 참다운 빛과 향기를 뿜을수 있음을 증명한 빛나는 년대이다.

총련이 걸어온 30년의 로정은 또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령도 속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그 앞길은 승리와 영광으로 약속되어있다.

참으로 이 서른해년륜의 한돌기한돌기는 위대한 사랑으로 가꾸어진 알찬 열매들로 아로새겨져있다.

어찌 그 한해한해를 무심히 돌이켜볼수 있으며 몇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영광의 30년, 빛나는 30년!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승리와 영광속에 흘러온 30년의 언덕을 넘어 이제 총련은 자기의 사업과 활동에서 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것이며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에 크나큰 기여를 할것이다. 주체조선의 공민된 사람은 지구의 어느 위도와 경도우에 있건 흔들림없는 신념과 꺾이지 않는 힘을 안고 줄기차게 자기의 길을 걸어나감을 보여주며 70만은 보무당당히 력사의 궤도우에 자기의 발자욱을 새겨갈것이다.

노래가 울린다. 바다건너 이역땅에서 재일조선동포들이 부르는 인간자주의 노래, 삶과 투쟁의 보람을 담은 행복의 노래가...

영광의 30년,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가꾸어지고 꽃피여난 참된 삶의 노래, 그 어떤 폭풍우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주체의 한길로만 내달릴 그 신념의 노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힘차고 역세여지리니 그 어떤 원수도 그 노래를 막지 못하리, 막지 못하리라!

탁월한 지도자

사무엔 이리라

가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처럼
머나먼 이곳에서 뵈고싶은 간절한 소원안고
존귀하신 당신의 영상을 우러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은 만민의 존경을 받으시는분
당신의 품은 자애로운 사랑의 품
당신의 나라는 인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낙원의
요람

당신께서 내놓으신 문헌들은
아프리카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당신께서 밝히신 사상과 리론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추가 되고
인민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이 빛나게 계승완성되어

조선은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함은 자주외 상징
그앞에서 미제놈들은 벌벌 떨고
인민들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갑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새들이 따뜻한 보금지리를 찾아가듯
내 수정같이 맑은 마음과 아름다운 꿈을 안고
당신의 품속으로 달려갑니다

수만갈래 아롱진 빛발 안고 당신께
영광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당신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자는 탄자니아 스와힐리어국가
리사회 교열국 상급교열원임)

영원한 기념일

아흐메드 알 라브이

김정일 그이는
위대한 동지
그이를 모신 행복한 인민이어
그이를 온 세계에 목청껏 자랑하라
그이의 업적 소리높이 칭송하라
그 목소리 진리를 담았기에
모든 사람들 그에 공감하여라
그이는 위인의 모든 품모를 갖추시였고
그이의 업적 풍만한 파원파도 같아라

그이는 드림없는 확고한 의지로

암흑도 고통도 쓸어버리시며
인간의 존엄 빛내여주시고
인류의 최고리상 꽃피우시나니
그이는
만능의 예지를 지니신
시대의 영걸
하늘이 낸 위인

그이는 노래소리 넘치는 새세상을 안아오셨거니
땅에도 하늘에도 물어보라
동쪽에도 서쪽에도 물어보라

그러면 대답하리
이 땅의 모든것은 그 어떤 조화에 의해서도
아니고
임금이 만든것도 아니라는것을

치욕의 긴긴밤은 지나가고
가슴가슴은 희망과 기쁨으로 부풀어오르고
거리에는 광명과 행복 차넘치어
사람들 고마움에 목메여라

오늘 우리모두 보고있거니
산에서도 바위밑에서도 생명수는 솟아
꽃들은 피어나고
사람마다 열매 거두어들이고있어라

오, 복받은 인민이여
오늘 행복과 정의와 자유에 대한
인류의 희망 그이께 달려있거니
그이의 손길따라 인민들
주체의 노래에 맞추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누나

그이는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가장 결출하신분

그이는 위대한 사상과 이론의 대가
조선은 그 사상은 꽃피워
근로자도 학자도
녀자도 남자도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낙원으로 되었어라
하여 조선으로 온 세계의 뜻을 가진 사람들 찾
아가고있어라

오, 자랑스러워라 조선인민이여
그대는 지배와 굴종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마수를 짓부셔버리시는
해방의 은인이시며
조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시는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끝없는 충성 다하고있어라

공산주의태양을 모시고
전인류가 살게 될 보다 훌륭한 래일을 위하여
우리모두 조선 만세를 부르노라
위대한 **김정일**동지 만세를 부르노라

(필자는 튜니지 튜니스 만누바 청년
회관 관장임)

가사

심장으로 부르는 그 이름

신문호

샘같은 맑은 정기 가슴에 부어주며
꽃같은 고운 꿈 피워준 그 은정 내 못잊어
아, 자나깨나 부르는 이름
친애하는 우리 지도자 **김정일**동지

따사론 봄빛으로 이 몸을 보살피며
값높은 전사의 믿음준 그 손길 자애로워

아, 걸음걸음 부르는 이름
친애하는 우리 지도자 **김정일**동지

친근한 그 품 떠나 순간도 살수 없네
내 한생 따르며 모셔갈 그 맹세 변함없어
아, 심장으로 부르는 이름
친애하는 우리 지도자 **김정일**동지

5 월

김재원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5월이 왔어요
조국진군 큰 기쁨안고
파아란 잔디밭을 쓰다듬어안으시던
그 5월이

5호물동 진달래
향기를 안으시고
우등불가 불빛속에
그리워 절절히 사향가 부르시던
그 5월이

청봉의 구호속에
삼지연 맑은 물속에
어머님의 모습
봄 미소로 피어나는
그 5월이

아 세월은 멀리 가서도
이맘때면 꼭
어머님이 오시듯
봄빛안고 찾아오는
조선의 5월입니다 !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외 1 편

김정호

또 하루 눈부신 아침이로구나
내 현관문을 나서니
어찌먼 거리에 흐르는 해빛
저리도 밝을수 있을가

꽃밭이 설레는듯
네거리를 지나는 아이들의 모습
노을을 안고 물오리떼 내리는
강반의 맑은 물소리도
이 거리에 사는 행복 속삭여주는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어허 반가와라
은방울같은 종소리 울리며
마음 상냥한 판매원아주머니
풍성한 이동매대차를 몰고 또 왔구나

아직은 상점문을 열기도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첫손님이 되시여 매대에 오셨다고,
물젖은 이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함께 인민들의 식탁을 책임지자시던
그 말씀에 눈물이 솟더라는 저 너인

너인의 정깊은 그 목소리
이 거리 행복의 노래되어 들려오는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재글재글 해빛이 꽃타일에 웃는
저 아파트 아슬한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낮익은 할아버지 한분

아무렴, 저 할아버지 분명하구나

새집들이 흥겨운 저녁
친애하는 그분께서 찾아오시여
따스한 방안도 고루 짚어보셨다는
그 목소리 상기도 귀전에 울려오는가

저 할아버지 들려준 전설같은 이야기
이 거리 행복의 노래되어 들려오는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파란 머리수건 날리며
바람처럼 달려가는 처녀
동무들이 짜는 꽃비단 늘어나면
아이들은 꽃피고
늙은이들 젊어진다고
그날 그이의 말씀 전해주던
이웃집 너로구나

그 믿음에 할일 많다는 너의 이야기

이 거리 행복의 노래되어 들려오는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아, 만나는 사람 들리는곳마다
그이의 고마운 손길아래
늘어나는 살림자랑
감격의 이야기 끝이 없거니

크고작은 우리 생활의 그 모든것
오직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서
꽃피고 열매맺는
내 사는 나의 거리여

저 솟아오르는 아침해살처럼
날마다 마중오는 아름찬 행복에
가슴 부풀어오르는
아, 좋은 아침 좋은 때로다!

해 빛

창을 열이라
창을 열이라
직포직장의 창을 활짝 열이라
이 아침 밝은 해빛 넘쳐나게 흘러들라고
이 아침 밝은 바람 거침없이 날아들라고

해살 비쳐드는
생각깊은 저 창문너머
그 아침을 그려보면
마음속가가이 어려워와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

그날도 이런때 찾아오시여
비단짜는 처녀들의 일터인데
창문을 더 밝고 더 시원하게

어서 넓혀주자시던 그 사랑
해빛으로 줄줄이 흘러드는것인가

창밖의 별나비야, 이리로 날아오렴
공원의 꽃밭보다 더 취할 향기
밝은 해빛안고
내 날마다 짜는
필필이 꽃비단에 스며있단다

아, 은혜로운 창문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 어려있는
넓고 시원한 이 창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밝은 해빛 흘러들이라
세상에서 가장 밝은 바람 흘러들이라

총련과 함께 걸어온 재일조선문학의 자랑스런 성과

김래경

올해는 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30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총련의 결성과 총련이 걸어온 30년간의 빛나는 로정은 70만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력사적사변으로 될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작가들의 창작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사변으로 된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작가들의 문학예술활동과 창작사업을 옹호하게 방향짓고 주체적인 조선문학의 한 구성부분으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총련결성 이전시기 재일작가들의 창작사업은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로선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방법에 기초하여 창작되지 못함으로써 주체적인 조선문학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을 교양하고 미학정서적으로, 감화하는 사상적무기로 될수 없었다. 총련이 결성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보장됨으로써 재일조선작가들의 문학예술사업에서는 주체가 확고히 서고 창작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총련문학예술활동과 창작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것은 1959년 재일조선문학예술동맹이 결성된 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얼마전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 작가, 예술인들이 도쿄에 모여 문학예술인들의 조직을 꾸었는데 그 조직의 강령에는 우리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지적되어있습니다.》

문예동맹은 총련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하며 우리 시대의 유일한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고수할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움으로써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할수 있게 하였다. 오는 재일작가들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조국통일위업과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조선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오늘 재일작가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이 70만재일동포들뿐만 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사상

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애독되는 리유가 비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총련문학작품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광범한 독자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면서 널리 보급되는것은 작품칭직에서 주제방향을 옳게 설정하고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기때문이다.

작품창작에서 주제를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예술적형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제는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재일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주체적방향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그를 구현한 총련방침에 톤튼히 의거하여 설정하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총련애국사업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재일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과 조국에 바치는 송축의 마음을 노래한 송가작품들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과 조국통일위업에 한몸바쳐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보람차고 다양한 생활을 반영한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재일작가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드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라는 없다.

재일동포들이 가장 깨끗하고 숭엄한 마음으로 그려보며 동경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번영도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을 망국노의 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주시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살며 싸울수 있도록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자랑을 가슴에 안고 궁지높이 살아가고있으며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도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견결히 지키고 빛내여가고 있다.

1974년 총련 제10차전체대회를 계기로 총련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더욱 심화되고 총련일군들과 동포대중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이 강화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백전백승의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확고한 신념은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더욱 세차게 굽이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확고한 신념과 불같은 결의는 당과 수령과 조국에 바치는 송시를 낳게 하였다.

재일작가들이 창작한 송가작품들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송축의 마음으로 노래할 때 반드시 어머니조국과 결부시켜 노래부르고있는 점이다.

당과 수령을 떠나서는 진정한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참다운 애국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자신이 생활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재일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대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조국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려는 충성의 한 마음을 노래한 송시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가사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한덕수), 《인자하신 그 영상을 우러롭니다》(김두권), 서정시 《찬가》(허남기), 《조국의 품에서 부르는 첫 노래》(남시우), 《감격의 이날》(정화흠), 《손목시계》(정화수), 《2월에 드리는 충성의 송가》(한덕수), 《매화꽃향기 스며드는 이른봄날에》(김운호), 영화문학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허남기), 단편소설 《태양의 품》(량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어머니조국에 바쳐진 송가작품들이다.

가사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는 1957년 4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첫번째로 보내주신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시적계기로 하여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노래하였다.

가사는 조국의 사랑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심고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를 뜨거운 마음을 담아 노래하였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을
꿀꺽에도 꿀꺽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

이역에서 이역에서 나서자라는
아들딸로 아들딸로 지덕체 갖추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여라
아버이심정으로 수령님께서 보내셨어요
...

가사가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세월이 흐를

수록 사람들속에서 더 많이 불리워지고 사랑을 받게 되는것은 그것이 소박하면서도 절절하게 노래되었기때문이다.

가사의 사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이 가사가 가지는 의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는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도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시며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끝없는 흠모와 뉘그러는 충성의 한마음을 간결하고 함축된 시형상으로 절절하게 노래한데 있다.

가사의 어느 시행, 어느 절에도 가식이나 꾸밈이 없으며 구절구절이 평이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절가형식에 담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송축의 마음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서정시 《감격의 이날》과 《손목시계》는 최근 시기 송시작품창작에서 거둔 성과작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과 재일작가들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조국을 방문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몸소 접견해주시고 선물까지 안겨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언제나 손목잡고 이끌어줄
아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손길
사랑의 손목시계
내 이제부터는 이 시계와 더불어
순간인들 헛된 세월 보낼수 있으랴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 바친 나의 심장
김일성주의시대의 시각을 새겨가는
이 시계의 동음과 함께 고통치며
수령님께 바치는 나의 충성
멋을줄 모르는 시간과 함께 영원하리라

서정시는 깊은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사랑의 손목시계를 받아안은 서정적주인공의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한걸음을 걸어도 시계의 동음과 같이 주체시대를 빛내이는 주체형의 총련일군으로 살며 싸울 드립없는 결의가 참으로 진실하게 일반화되고있다.

서정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주체혁명의 한걸음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총련일군의 드립없는 결의와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하게 노래하였다.

서정시 《2월에 드리는 충성의 송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창작된 서정시이다.

헌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이 가지는 의의를 풍부한 서정으로 노래하였다.

...
처음으로 안기신 요람은

끝없이 펼쳐진 천고의 밀림
 처음으로 들으신 자장가는
 장엄한 혁명의 노래
 처음으로 바라보신 하늘은
 수령님 높이 드신 주체의 기쁨
 ...

아, 장엄한
 백두의 해돋이 !
 그 광재에
 조국이 젊어지고
 그 광재에
 찬란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력사의 그날에 밝아온
 4월의 아침이 있어
 룡성하는 주체의 새시대
 눈부신 채광 누리에 비끼고

2월에 열린
 백두의 찬란한 아침이 있어
 성스러운 주체의 위업은
 약속된 승리를 마중하게 되었으니
 영광으로 칭송합니다
 공산주의 새봄의 러명
 백두의 해돋이를 노래합니다 !

현시는 《2월에 열린 백두의 찬란한 아침이 있어》 주체의 위업은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적으로 일반화하면서 자주시대의 향토성으로 높이 솟아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일편단심 충성 다할 결의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영화문학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서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형상에 바쳐진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영화를 보시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영화문학은 주인공 옥순이가 이국땅에서 겪게 되는 각이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해외동포들이 진정한 조국을 가지지 못했을 때의 수난의 력사와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진신후의 행복한 생활을 서사시적으로 감회깊이 펼쳐보여주고있다.

그러기에 영화문학은 단순히 한 녀성의 비참하고 쓸쓸한 운명에 대한 형상도 아니며 해외에서 막연하게 조국을 그리워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전기도 아니다.

작품은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살길을 찾아 떠난 해외동포들이 당하게 되는 수난의 력사에 대한 화폭이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저주로운 망국노의 생활

에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으면서 억세게 싸워나가는 재일동포들의 투쟁력사에 대한 예술적재현이며 해외공민들에게 존엄있고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송가이다.

작품은 주인공 옥순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없는 해외공민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과 설움이 얼마나 크고 비참하며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품에 안겨 살게 된 행복이 얼마나 가슴벅차고 값높은 것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재일동포들에게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고 꽃피워나가는 진정한 조국이 있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작품은 또한 옥순의 수난에 찬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 인민에게 그런 망국노의 운명이 차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국에 있거나 해외에 살거나를 막론하고 조선공민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모두가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해 용감히 싸웁시다.》

주인공 옥순이의 힘찬 호소는 작품의 전반에 흐르고있는 기본사상이며 또한 작품이 말하려는 이야기의 기본내용이다.

작품은 제기하고있는 문제성자체가 심오할뿐 아니라 예술적형상창조에서도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작품은 주인공의 민족적 및 계급적 자각과정, 세계관의 발전과정을 생활과 밀착시켜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그의 성격장성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깊이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이국만리 해외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며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영예를 간직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형상에 바쳐진 우수한 작품으로서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훌륭한 교과서로 될뿐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재일작가들의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가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덕수), 《아들자랑 딸자랑》 (한덕수), 서정시 《룡마의 노래》 (허남기), 《어머니의 코노래》 (남시우),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 (남시우), 《처녀교원》 (정화흠), 《어머니 차려입은 치마저고리》 (김학렬), 《꽃시절이 왔구나》 (김운호), 단편소설 《동포》 (박종상), 《원앙유정》 (박종상),

《가장 귀중한것》(소영호), 《고향손님》(소영호), 《임무》(리은직) 등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 싸워나가는 총련일군-애국투사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 성과작들이다.

가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아들자랑 딸자랑》은 재일동포들뿐만아니라 조국의 근로자들이 가장 즐겨부르는 노래들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떳떳이 살며 싸워나가는 총련일군 된 자랑과 영예를 밝은 서정속에 감명깊게 노래부르고있다.

단편소설 《동포》는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미조직동포들을 뜨거운 동포애적심정과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교양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총련일군의 애국적형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창조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총련조직과 담을 쌓고 일본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미조직동포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형상적과제로 제기하고 그에 생동한 형상으로 예술적해답을 준데 있다.

작품은 윤로인의 고달픈 생활과 윤로인일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분회장 권석구의 애국적활동을 펼쳐보여주고있다.

윤로인의 한생은 지난날 재일동포들이 겪어온 피눈물나는 생활의 축도이다.

해방전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두다리를 잃게된 윤로인은 모진 고생속에 얻은 질병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아들과 등지고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생활의 유일한 밑천인 집까지 사기한테게 걸려들어 빼앗기지 않으면 안된 미조직동포이다.

권석구는 동포애적심정으로 윤로인의 매듭진 마음을 풀어주고 천신병에 효험이 있다는 조선꿈을 가져다주면서까지 그의 마음을 돌려세운다. 그리고 《나... 나는... 도대체... 그...그... 조선사람이라는 게... 딱 귀찮소!》 하고 문전거절하며 경마장에 다니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탕진하는 윤로인의 아들을 참을성있게 꾸준히 교양할뿐아니라 집문제까지 해결해줌으로써 윤로인일가가 조선뉘를 지니고 새생활에 들어서도록 한다.

작품은 권석구의 형상을 통하여 총련일군의 참된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권석구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까지것, 조선동포가 그렇게도 싫다는데 내버려두지요. 난 화가 나서 못견디겠단니까... 정말 일본종자가 되고싶어 환장한놈을 붙잡고 무슨 말을 했대야 귀에 들어갑니까?》 김동무가 서구를 보고 화풀이를 한다.

《...허 이사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을 한 사람도 일본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석구는 김동무에게 조용조용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조용한 어조에서 불같은 열기가 뿜어오르는 것을 김동무는 느꼈다...》

보는바와 같이 권석구는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수행해나가는 미더운 총련일군이다.

독자들이 단편소설 《동포》의 주인공을 사랑하는 까닭은 바로 그가 말주변이 좋거나 남보다 조직적 수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말은 적으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동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이끌어주는 인물, 점잖으면서도 원칙이 강한 인물로 그려졌기때문이다.

총련일군의 애국적형상은 단편소설 《귀중한것》에서의 김창수, 《임무》에서의 김기태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또한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형상창조에서 《어머니의 코노래》,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 《처녀교원》은 총련시가문학창작에서 주목되는 성과작들이다.

서정시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는 《비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니이가다항구에 귀국선이 뜨는 날에는 흐렸던 날도 맑게 개이고 안개도 걷힌다는 전설이 생겼다고 노래함으로써 귀국사업의 정당성과 귀국선을 환영하는 재일동포들과 선량한 일본인민들의 기쁨을 재치있게 노래하고있다.

귀국선고동이 울려 퍼지면
그날이면 지못게 흐렸던 하늘도
상을 띄고 구름도 물려서네

즐거운 출항, 희망의 길을
해님도 웃으며 배길을 열어주네

항구에 새전설이 돌았네
어른들도 반가와라 이야기했네
아이들도 즐거워라 노래불렀네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다-고

서정시는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로의 민족적대이동》이라고 불리는 귀국실현이 가지는 의의와 정당성, 그의 생활력, 귀국의 길에 오른 동포들을 축복하는 마음 등 사상을 시적사색을 통하여 노래했기때문에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여운을 주는것이다.

서정시는 작은 하나의 생활세부적정서를 통하여 큰 사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시적사색을 거쳐 《새전설》인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인다는 형상적과제도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으며 또한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였다. 시는 시인 자신이 체험한 생활감정 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 감정만을 골라 그것을 함축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함으로써 총련시가 작품의 본보기로 되었다.

오늘 재일조선작가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창작적 과제의 하나는 남반부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동포대중운동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민적투쟁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이 발현되는 것이다.

오늘 총련인군들과 재일조선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조국통일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으며 이 길에서 애국의 꽃, 충성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나가고 있다.

가사 《〈고향방문〉 말도 마오》(정화흠), 《이 땅에 새아침이 오기전에는》(김두권), 서정시 《대마도기행》(허남기), 《아들을 기다리시는 어머니》(정화수), 《분노의 시》(남시우), 《옥중에 계시는 님에게》(김학렬), 단편소설 《노도의 거리》(리은직), 《신작로》(리은직) 등은 남반부인민들의 투쟁과 조국통일에 바쳐진 성과작들이다.

가사 《〈고향방문〉 말도 마오》는 파쇼폭압과 사기협잡만이 판을 치는 남조선은 시람 못살 인권 유린 지대이며 인간생지옥이라는 것을 풍자적웃음을 통하여 예리하게 비판폭로하고 있다.

《고향방문》 좋다 하여
비행장에 내렸더니
충멘놈이 바글바글
갈보기생 와글와글
어리둥절 살피다가
불파귀에 불이 났소

서울구경 좋다가에
종로거리 나갔더니
양놈들이 바글바글
왜놈들이 우글우글
카메라 대었다가
《반공법》에 물렸대오
...

남조선괴뢰도당이 버려놓은 《고향방문》에 속아 넘어 주인공이 삼십년만에 찾아가던 고향에서 체험한 것은 따뜻한 혈육의 손길이 아니라 《반공법》

의 무시무시한 세계이며 양풍과 왜풍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사회였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이국땅에서 고향에도 잊을수 없던 그 고향이 아니었다. 뜨거운 정으로 맞이해주리라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풍자시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질가작시법에 의거하여 창작되었으며 《바글바글》, 《와글와글》, 《살금살금》, 《야금야금》, 《덜렁덜렁》, 《중얼중얼》, 《옥실옥실》 등 의성의태어들도 능숙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어리둥절 살피다가》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형상적언어들을 훌륭히 살려쓰으로써 가사의 사상에술성을 높이고 그의 통속화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단편소설 《노도의 거리》와 《신작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고 반항하다가 통탄하는 우국지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간고한 조건에서도 굴함없이 목적의식적으로 반미구국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리는 투사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노도의 거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을 심장에 아로새기고 통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로동자들을 각성시키고 로동조합을 무어 투쟁하는 애국투사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작품은 평범한 기자로 일하던 철수가 이모사촌인 박형태와 이모 그리고 로동자출신인 옥순이와의 접촉과정을 통하여 투쟁에 한몸바친 애국투사일가의 애국적지조와 동지적의리를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반파쇼민주화투쟁의 마당, 노도의 거리에 함께 나서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박형태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반부애국투사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였는데 있다.

최근시기 총련문학에서는 신인작가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하여 총련문학을 더욱 풍부화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단편소설 《한가정에서》(리량호), 《증언》(남상혁), 《초석》(리상민)은 매우 주목되는 작품으로서 금후 이들의 창작활동이 기대된다.

총련문학이 걸어온 30년간의 창작적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재일작가들을 창작적열성으로 이끌어주고 고무해준 총련의 올바른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총련작가들은 어제도 그러하였던것과 같이 래일도 어떠한 난관과 곤난이 닥쳐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면서 총련의 지도밑에 우리 주체적문학의 화원을 꽃피워나가는 작가로서의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나갈 것이다.

교원의 마음 외 1 편

김 선

길가던 걸음에도
내 가끔 방송에 귀기울이며
걸음 멈추는 때 있어라
정령으로 발표되는 공화국영웅
혹 내 가르친 제자의 이름이 아닌지

아침마다 신문을 받아들 때에도
사진과 함께 소개된 기사를 보고
가슴설레이는 때 있어라
크게 소개된 그 혁신자가
혹 내 가르친 제자가 아닌지

방송야회때에도
공연관람때에도
무대에 나서는 저 동무
혹 내 가르친 제자가 아닌지
교원된 보람안고
그 이름 새겨보게 되더라

기쁨과 함께
내 또한 당조직앞에
얼굴 붉혀질 때 있어라
조직앞에서 비판받는 저 동무
혹 내 가르친 제자가 아닌지

교원인 나에게는 기쁨도 크고
자책도 깊어지더라
하나 기쁨은 쉽게 잊혀져도
자책은 가슴속에 더 깊이 파고들더라

하어 내 당앞에서
기쁨보다 자책을 더 많이 받으며
마음의 탕개 조이노라
훌륭한 인간의 뒤엔
훌륭한 부모와 함께
훌륭한 선생이 서있었다는 진리를 따라-

교원과 제자

가렬한 전쟁의 폭음이 멎은
어느 일요일
휴가길에 오른 정찰병영웅
고향집 찾기에 앞서
그전날 학교부터 찾았더라

《선생님 !》 -
옛담임교원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전날의 제자는 선생님의 손 굳게 잡았더라
그래도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옛스승은
성장한 제자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선생님 ! 왜 저를 몰라보십니까?》
정찰영웅제자는 절절히 말했더라
《체육시간 조마운동때에
두번씩이나 넘지 못하고 되돌아선 저를
선생님은 엄하게 꾸짖었지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정찰영웅제자의 마음 어린시절로 되돌아가
스승의 눈길 지켜보며 말했네
《그때 선생님의 엄한 눈길 피할수 없어

세번째로 달리던 제자
눈 질끔 감고 높은 조마 뛰어넘었을 때
선생님은 그리도 기뻐하시며 칭찬해주셨지요
너도 인민군대감이라고-》

옛스승은 건승 대답했더라
《암 ! 기억나구말구 ! !》
하나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한 말 다 기억할수 없었더라

오랜 세월 교단에 서온 나날들에
교원들은 자기 한 말 다 기억할수 없었어도
제자들은 오랜 세월 기억하고있었더라
어느 한 순간 선생님의 눈길까지

교원들이여
우리 언제나 잊지 말자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기쁨드렸을 때
사람들은 어린시절의 옛담임교원을 생각하고
어쩌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조차
어린시절 교원으로부터 받았던 충고마저도
되새겨본다는것을!

나는 시처럼 살리라

김시권

나는 시처럼 살리라
시는 꽃이며 노래이며 별
그처럼 아름답고 빛나고저

나는 시처럼 살리라
시는 불이며 폭풍이며 장검
그처럼 기세차고 용맹하고저

나는 시처럼 살리라
시는 랑만이며 나태이며 기적
그처럼 위훈을 창조하고저

아 당을 받들어 내 한생
방패되고 기발되어 나가다 쓰러져도
시처럼 아름다운 충성의 화신되리라

출강중 울리며

한원군

내 그대와 함께
언제 한번
바람세찬 오가자의 들길을
걸은적 없고

언제 한번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안고
감격에 눈물겹던 이야기
들어본적 없건만

쇠장대 틀어잡고
또 한차지-
쇠물을 뽑는 이 순간
김혁동지 그대는
청춘시절 그 모습으로 다가서누나

심장의 피 끓게 하는
태양의 노래, 별의 노래 부르며
한방울의 쇠물이라도 더 많이 내라고
출강의 종소리 더 크게 울려주며

오, 김혁동지!
그대 열정의 시와
그대 랑만의 기타소리
온 용해장에 차넘치는듯
내 심장도 쇠물처럼 끓는다!

보아라!
강물처럼 쏟아지는 쇠물, 쇠물!
하늘도 땅도 온통 쇠물빛!

그대와 함께
강철로 조국에 디딤돌을 쌓아가는
이 영예, 이 긍지!

아, 태양의 첫 위성이 되어
천만의 심장들을 불멸의 성좌로
혁명의 전야에 빛내주던
20년대- 그날의 그 걸음으로
80년대- 오늘에로 달려온
그대 돌격의 기수여
시대의 나팔수여!

오늘은 그대
나와 함께
로의 숨결 가늠하며 쇠물을 뽑고
나와 함께 웃으며 맹세다지며
향도의 해발따라 발걸음 맞추거니

태양을 받들어 불타던
혁명전사의 심장은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불길!
그 불길 년대와 년대를 넘어
피끓는 심장마다 타번지누나!

내 언제 한번 만나본 일 없고
다감한 이야기 들어본적 없어도
그대는 우리모두의 벗이 되고
동지가 되어
영원히 함께 가고있구나
80년대 우리의 가슴
20년대의 혁명송가로 불태워주며...

자기가 선 자리

백은팔

먼 옛날 고구려의 무사들이 칼을 갈고 목을 추겼다는 옥천강여울물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오는 향촌의 자그마한 골안에 천연스레치봉을 가볍게 떠인 아담한 교사가 자리잡고있었다.

이끼푸른 산발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정가로운 교사에 들어설 때마다 신영숙은 자기도 이젠 이 낮은 생활환경과 정서에 퍼그나 익숙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었다.

석달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교단에 나선 신영숙에겐 옥천동골안을 감돌아흐르는 물소리도 숲속에서 우짖는 새소리도 모두 신기하고 귀설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빨리 새 환경에 친숙해지려고 남달리 애썼고 교원이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하나하나 세련시키면서 보충해왔다.

신임교원에 대한 선배들의 관심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들의 친절한 조언과 진지한 방조는 신영숙의 부족되고 모자라는것을 인차 메꾸어주었다.

특히 그에 대한 교장의 관심은 각별하였다.

정순림교장은 신영숙의 교수준비는 물론 그의 옷차림과 머리단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돌리었다.

신영숙은 교장의 그러한 관심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었다.

교장은 신영숙에게 있어서 항상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다.

인생의 절반이상을 교단에서 흘러보낸 정순림교장은 나이 50이 넘는 오늘날까지 교육자의 사명과 자각을 조금도 잃지 않고 오직 제자들을 성공의 한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가꾼 나무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충실한 열매가 익어야 한다. 어느 한 꽃망울에서도 헛꽃이 피거나 부실한 열매가 맺혀서는 안된다.)

이런 신념과 요구가 항상 정순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바치는 노력에 늘 부족을 느끼며 스스로 랑심앞에 묻고 비판하고 총화짓곤하였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딴 산골학교에서 인

민군대 군관, 당간부와 경제지도일군, 재능있는 예술가와 전도유망한 연구사 등 수많은 국가인재들이 배출된것도 다 정순림교장의 무시할수 없는 공적이었다.

신영숙은 교육자로서 사소한 빈구석도 찾아볼수 없는 정순림교장의 높은 교련과 현숙한 인품에 현재의 자신을 자주 비쳐보며 아득히 멀리서 서있는 그에게서 겸손하게 배우며 한결음한결음 뚝아올랐다.

교장은 신영숙의 수업시간에 자주 교수참관을 하였다.

교원실에 들어선 신영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교수준비를 다그쳤다.

오늘 첫수업시간에 교장이 또 교수참관을 하게 된것이다.

수업종이 울리었다.

신영숙은 거울앞에서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교원실을 나섰다.

교장은 벌써 교실에 먼저 가있었다.

교탁앞에 나선 신영숙은 고실 맨뒤에 의자를 들여다놓고 앉은 교장의 눈길과 마주쳤다.

교장의 미소어린 눈길은 여느때와 조금도 다를없이 매우 부드러웠다.

정순림은 신영숙의 몸가짐과 손짓, 지어 억양까지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며 강의를 듣고있었다.

마치 오랜 성악지도원이 자기가 키워낸 신진배우가 부르는 노래의 미세한 음정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듯 그렇게 온 신경을 귀와 눈에 모으고...

자세가 훨씬 낮아진 체소한 몸짓, 재빛으로 변한 머리칼, 눈가장자리와 입귀에 건너간 실금들, 정순림교장의 방정한 자세는 자식의 기특한 소행을 대견하게 여기는 친어머니를 방불케 했다.

수업이 끝난후 교장실로 돌아온 정순림은 아직 학생티가 생생한 처녀교원의 흑곤색 양복깃을 찬찬히 여며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격려해주었다.

《수업을 참 잘했어요.》

교양과 문화를 동시에 겸비한 정순림은 그 누구에게나 꼭 경어를 씌으로써 고상한 인품을 확고히 유지하고있었다.

《하지만 명심할것은 강의 하나만 잘하는것으로 는 교원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는것이

예요. 교원의 진짜 자격은 자식들을 위해 부지런히 시중드는 어머니의 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몰바쳐 일하는거예요. 왜냐 하면 교원의 성실과 양심은 곧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예요.

그러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간곡하게 모라씀하신게 아니겠어요.

영숙선생, 우리는 당과 국가 앞에 국가인재양성을 책임진 혁명가라는 높은 자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선 초소를 충실히 지켜가자요.》

고민하며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 신영숙은 순림교장의 절절하고 진지한 조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었다.

《꼭 명심하겠어요.》

신영숙은 마주잡은 두손을 가슴에 가져다대며 호-하고 긴장한 숨을 내긋는것으로 자기의 권의를 대신했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허연 로인이 방안에 들어섰다.

학교목수일을 하며 이따금 밤경비도 서군하는 마음무던한 로인이었다.

《마침 있었구만.》

정순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인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준표로인은 교장앞으로 스택스적 걸어가 접이자 가 꽃혀있는 작업복주머니에서 엽서 한장을 꺼내었다.

《편지가 또 왔네.》

정순림이 이 학교에 온날부터 내내 함께 일하고 있는 로인은 그가 교장으로 된후에도 사소한 간격을 두지 않고 허물없이 대하였다.

《어디서요...?》

《문상철이라구, 미술대학에 갔다가 중간에 그만둔 그 <수학박사> 있지 않나?》

편지를 받아든 정순림은 얼른 보낸 사람의 주소 성명부터 읽었다.

《제자, 문상철올림.》

정순림의 얼굴엔 대뜸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한동안 편지 한장 없던 문상철이, 대학을 중퇴하고 전자기공장으로 간후로는 더구나 소식없어 애타게 기다리던 잇을수 없는 제자였다.

《임자한테 요즘 내내 기쁜 소식만 날아드는군, 허허.》

준표로인의 주름많은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교장의 말대부 인민반아이들의 철봉대를 5센

치 더 높여줬네. 어디 한번 나가보라구.》

《예, 있다 꼭 가보겠어요.》

어제 생물소조원들과 함께 교재림에 올라가 나무에 버짚도 쳐매주고 새둥지들에 소털깃도 깔아 주고난 정순림은 인민반학생들의 과외체육장에 들리었다.

거기서 그는 새로 세운 철봉대가 학생들의 키보다 높지 못하다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아침 준표로인에게 철봉대를 5센치 메터 더 높여달라고 부탁했던것이다.

준표로인이 나가자 정순림은 결봉을 뜯고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교장의 얼굴에서 뜻밖에도 어두운 빛을 발견한 신영숙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혹시 제자에게 그 무슨 불행이 닥친것이 아닌가?)

정순림은 읽기를 그만두고 창밖으로 시선을 보내며 무거운 한숨을 내그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

그는 대답을 피하며 영숙이앞에 편지를 밀어놓았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안부 한장 전하지 않은 저의 그 불성실에 대해서는 장차 어떤 욕이든 다 해주셔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나큰 관용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전에 우리 공장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자재를 국내산으로 대용할수 있게 연구 해냄으로써 높은 국가표창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전자공학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는 저의 이 발명은 아직 미숙한것이 많지만 앞으로 그 부족점을 보충하고 완비하면 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 기뻐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읽은 신영숙은 어린애처럼 손뼉까지 치며 환성을 올렸다.

《아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나 정순림의 눈에 비친 그들은 좀처럼 가세지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난 그의 기쁨을 몇몇한 마음으로 축하해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해할수 없군요. 제자의 성공을 두고 가장 기뻐해야 할 스승이 어째서 그렇게도 피로와하시는지...?》

《영숙선생, 난 그 동무에게 큰 죄를 진 사람이예요.》

정순림은 신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고뇌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예?》

신영숙은 거의 경악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며 교장의 주름진 얼굴을 의문에 찬 눈길로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무슨 실책을 안고있기에 그리도 고민하며 모태기고있을가?)

2

창문밖에는 낮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설령거리였다.

마가울의 싸늘한 랭기가 교장실안에까지 스며들어왔다.

얼굴이 등실한 신영숙은 아까부터 심각한 낯빛을 짓고 계속되는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정순림이 교장으로 승격되어 일하기 시작한지 몇달 안되는 어느날, 그는 제자가 써보낸 뜻밖의 편지한장을 받아보았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미술대학추천문건에 수표해준 문상철학생에게서 온 편지였다.

《선생님, 신생님이 옥천고등학교 교장으로 사업하신다는 소식을 동무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계실 선생님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 글을 씁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펍 늙으셨지만 아직도 아찔하게 높은 황철나무꼭대기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새둥지를 달아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깊은 인정과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부드러운 눈길로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시던 선생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아름다운 추억속에 회상하곤합니다. 그럴수록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만나서 답답한 내 가슴 활짝 열어젖히고 어리광을 부리고도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찾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것처럼 훌륭한 미술가가 되라고 힘껏 떠밀어준 이 못난 제자는 벌써 붓대를 꺾어버린지 퍼그나 오래되었습니다.》

편지를 읽다 만 정순림은 갑자기 불에 덴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한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였다.

(이제 무슨 소리인가? 붓대를 꺾어버리다니?)

정순림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온몸이 굳어진 정순림은 불시에 그 어떤 불안같은 것이 밀려들면서 심장이 답답해움을 느끼었다.

편지를 펼쳐든 그의 손은 떨리었고 안정을 잃은 심장은 세차게 후드득거렸다.

그는 마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나

한것처럼 봉투에 적힌 이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다음줄을 또 읽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성공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미술가로 될 재능을 못가진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전에 대학을 그만두고 여기 전자기구공장에 내려와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여기 공장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공학계통의 서적을 새로 탐독하고있습니다. 현대과학은 벌써 수억만리 떨어진 행성으로 달리고있는 이때에 이제 겨우 전자공학에 첫발을 들여놓았다는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진한가를 번연히 알면서도 인생의 첫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간셈치고 모험하렵니다. 아니 헛되게 흘러보낸 지난날까지 보상하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젠가 인간은 자기가 올라설수 있는 능력의 최고한계점까지 자신을 높이 끌어올리고 만가동하며 일할 때에라야만 인생을 수치없이 산 몇몇한 사람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고견은 항상 나의 앞길을 재촉하며 채찍질해주고있습니다.》

정순림은 눈앞이 뿌연게 흐려와서 편지를 마지막까지 다 읽을수가 없었다.

자기가 그처럼 성공의 환희를 가장 기쁘게 느낄수 있다고 믿어온 문상철학생이 어찌하여 전망을 포기하고 도중에 주저앉았던말인가?

여기에는 확실히 나에게도 잘못할 그 어떤 궤치 못할 정신적번민이 문상철학생에게 닥쳐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째서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공장으로 내려갔는가?

의문은 꼬리를 물고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천재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재빛으로 변한 머리칼, 눈언저리와 입귀에 잡히기 시작한 여섯줄의 선명치 못한 주름살, 슬픔비슷한 고뇌의 빛이 그의 얼굴전체에 착잡하게 서리었다.

그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그자리에 우두머니 앉아 초점없는 눈길로 창문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었다.

얼마후 자리에서 일어난 정순림은 미술대학에 시외진화를 신청하고 강좌에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교환수는 미술대학접수가 나왔다고 알리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마침 문상철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조선휘강좌교원이었다.

그는 정순림이 묻는 말에 매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문상철은 생활에서 모범이였고 향학열이 높은 학생이었다. 그는 완강한 노력가였기에 근면성에서 그를 따를만한 학생이 없었다. 그러나 전문교육이 심화되기 시작한 1학년후반기부터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교원들도 그의 무딘 재능과 앞날에 대하여 몹시 우려하였다.

예술은 욕망과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든 분야이다.

문상철은 드디어 2학년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으로 나갔던것이다.

정순림은 손맥이 풀려 더는 송수화기를 들고 서 있을수가 없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럴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는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것처럼 아팠다.

전화기에서는 말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선생님, 물론 문상철학생이 그렇게 된다는 우리의 책임이 큼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문상철학생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는 역시 현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안다는것도 혈한 일은 아닙니다.》

《뭐라구요?》

참을성을 잃은 정순림의 입에서는 드디어 격한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만약 시간의 제약만 받지 않았더라면 정순림은 밤새껏이라도 상대방과 논쟁을 했을것이다.

그러나 통화시간은 이미 끝나고 수화기에서는 뻑-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문상철이가 미술가로 될수 없다구? 그가 학교를 그만둔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행동이었다구?)

정순림은 금시에 심장이 멎어버리는것 같은 압박감으로 하여 자리에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자기가 배워준 학생들이운데서 그중 실력이 높았고 탐구심 많고 환상적두뇌가 남달랐던 문상철이,

그가 또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며 미술에 취미가 있었던가?

정순림은 미술대학교원의 그 무책임한 발언에 반발심이 일어나 참을수가 없었다. 한 인간의 장래운명을 놓고 그렇게 희롱하는법이 어디 있는가?

정순림은 이튿날 시간을 내어 평양으로 떠났다.

대학에 도착한 그는 강좌에 찾아갔다.

그는 먼저 자기가 문상철학생의 이전 담임선생이었다는것을 소개하고 그가 학교를 그만둔 까닭을

물었다.

그리고 문상철이가 중학교 전과정을 어떻게 공부했으며 그가 그림그리는데 얼마나 취미가 있었는지 모른다는것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의 취미와 열정과 성실을 잘 아는 교육자로서 가슴이 아파 견딜수가 없다는것을 숨도 돌릴사이없이 들이대었다.

교장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난 강좌장은 진지한 어조로 천천히 대답하였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문상철학생은 성실하고 총명하였습니다. 그는 고민할줄 알았고 창조적지향도 매우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상철이를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취미와 재능을 잘못 갈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술의 애호가였지 재능이 있는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창조적재능이 부족합니다. 환상에 의하여 예술로 되는 순간을 포착할줄 모른다는것은 예술적재능이 부족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정순림은 침착하게 앉아 듣고있었지만 마음은 안정을 잃은채 강좌장의 다음 말을 초조하게 기다리었다.

《예술은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재능을 갖추고있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상철학생은 예술적재능보다 과학적두뇌가 더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좌에서 충분히 토론한후 현장에서 일하며 공장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겠다는 본인의 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곳 일군들과 공장대학선생님들에게도 잘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미술공부를 한건 커다란 밑천으로 될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학자에게 있어서 미술은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 기초과목의 하나로 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가인 그는 평소에 품었던 지망과 재능을 반드시 꽃피울것이며 조만간에 앞선 동무들을 따라잡을것입니다.》

확실히 강좌장의 마지막 말엔 타협과 위안의 색채가 농후하게 깃들어있다고 정순림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것은 지난날 교육자로서 만회할수 없는 엄중한 실책을 저질렀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기 시작하였기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파랗게 질리기 시작하였다.

심장을 내리누르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강좌장실에 꼼짝않고 앉아있던 정순림은 언제 밖으로 나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대학에선 수업이 끝난지 퍼그나 오래된것 같았다. 교정엔 정적이 깃들었다.

정순림은 정문을 지나 큰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

졌다. 그리로 가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기고싶은 욕망이 그를 떠밀었을뿐이다.

방금 서쪽으로 사라진 저녁해가 남겨놓은 황혼의 질은 여광이 변화한 도시에 연분홍물을 들어놓았다.

낮에는 울긋불긋 꽃물결을 이루고 밤이면 네온등이 아름답게 명멸하는 수도의 정다운 거리, 그러나 지금 정순림의 온몸은 무서운 번뇌속에 잠겨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2년전 미술대학추천문건에 수표를 해준 한 학생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 참된 교원의 위치에 자신을 세워놓고 지난날의 교육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것을 요구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정순림은 전도유망한 제자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그 마음의 빈공백을 끝없이 저주하며 가슴아픈 추억을 더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곧장 역으로 나가 기차를 타고 전자기구 공장으로 문상철을 찾아내려갔던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정순림교장은 서류함을 열고 두통의 편지를 동시에 꺼내놓았다.

《이것이 문상철동무가 보낸 편지들이예요.》

문상철이한테서 온 두번째편지에는 성공하기전에는 다시 소식을 전하지 않겠다는 절절한 사연이 적혀있었고 정순림교장이 보내준 참고서들이 자기의 학습에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라는 깊은 감사의 뜻이 적혀있었다.

속연한 감정에 사로잡혀 순림교장의 빈민의 마음속을 말없이 더듬던 신영숙은 지금껏 긴장하게 유지해오던 자세를 조금 헐어놓는다.

《교장선생님, 그 동무가 대학을 그만둔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문상철동무가 그렇게 된것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된 탓이에요.》

만약 신영숙의 말대로 그가 미술대학을 그만둔것이 문상철자신이 저지른 잘못때문이라면 정순림은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현재 그의 심정이 라는것을 신영숙은 알지 못하였다.

3

생물교원 정순림은 중등반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옥천골에 들어가 곤충채집을 하고있었다.

그는 흰나비, 노랑나비, 28점무당벌레, 불개미 등 학생들이 잡아오는죽죽 채집판에 바늘로 꽂아나갔다.

어떤 학생들은 모자에 비둘기알을 담아가지고 와서 장한듯이 떠들어대기도 하였다. 그러면 정순림은 산비둘기가 어떻게 유익한 새인가에 대하여 차

근차근 설명해주고 알을 그자리에 갖다놓도록 하였다.

학생들과 한데 어울려 곤충채집을 하던 정순림은 문상철학생이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대하여 의문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는 얼른 학생들을 다 모이게 했다.

그러나 문상철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한 정순림은 학생들이 꿀짜기를 타고 산우로 올라가라고 이르고 자기는 문상철학생이 아까 범나비를 쫓아갔다는 아래꿀짜기로 내려갔다. 몇명의 학생이 그의 뒤를 따랐다.

《상철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넓은 공지로 건너갔다. 거기에도 문상철은 없었다.

정순림은 잠시 굵은 백양나무에 몸을 기대고 숨을 거두었다.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산촌의 특유한 정서가 눈앞에 확 안겨왔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서를 마음껏 감수할 정신적여유가 없었다.

정순림은 안타까운 마음을 조용히 달래며 사방을 두루 살피었다.

이때 멀지않은곳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리였다.

정순림은 놀라 고개를 돌리였다. 소나무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조그마하게 내다보였다.

그는 발자국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쌍바위있는 데로 내려갔다.

굵게 자란 소나무기둥을 안고 돌아서던 그는 깜짝 놀라며 그자리에 멈춰섰다.

문상철학생이 바위우에 올라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림그리는데 어찌나 열중했는지 뒤에 사람이 다가서는줄도 모르고있었다.

《상철학생, 거기서 뭘해요?》

물라서가 아니라 너무도 억이 막혀 묻은것이다.

문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으로 돌아서며 종이와 연필을 얼른 뒤로 가져갔다. 자기의 서툰 그림솜씨를 선생님에게 보이는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어디 좀 보지요.》

정순림은 속상하던 생각같아서는 욕이 나갔지만 그의 남다른 행동이 기특하여 그림부터 들여다보았다.

황금빛노을이 곱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결에 가볍게 흐느적이는 백양나무사이로 날아다니는 범나비를 그린 연필화는 아주 생동하였다.

흰구름이 흘러가는 높은 하늘에는 가지가 실한 백양나무가 뚱뚱 떠있는데 그사이로 활촉처럼 긴

수업을 내뺀치고 쏜살같이 날아가는 얼럭덜럭한
범나비는 원근법도 잘 지키고 명암대조가 뚜렷하
여 현실감이 있었다.

백양나무의 실한 가지들은 물론 범나비의 생김새
와 날개를 움직이는 모양 등이 다 소나무기둥에 빈
침으로 꽂아놓은 진짜 나비와 비슷하였다.

어느모로보나 엉뚱한 환상이 담긴 그림이라는것
이 헛동이 알렸다.

정순림은 사물현상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찰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미래의 훌륭한 미술가를 발명한것이 너무
기빠서 이때까지 품고있던 그에 대한 노여움이 가
시어져 문상철을 와락 그러안았다.

《난 상철학생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줄은
정말 몰랐군요. 그래 어떤 맘을 먹구 이런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마음먹은게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범
나비가 없어두 기억할수 있게 하려고 그렸을뿐입니
다.》

《그래요?》

정순림은 미술에 대한 그의 취미와 소질을 더욱
발전시켜주기 위하여 문상철을 미술소조에 넣어주
었다.

그때로부터 3년후 졸업반학생들에 대한 상급학
교추천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상철학생의 지방학교는 미술
대학이 아니라 공업대학이었다.

(한번 길을 잘못들면 일생을 망칠수 있는데...?)

정순림은 문상철에게 고쳐생각할것을 요구하였
다.

아직 앞날에 대한 똑똑한 견해가 없는 문상철은
담임선생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때 정순림은 자기의 주관적의도를 강요한 그
순간에 자기가 놀린 손끝으로 하여서 한 인간의 운
명에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시킬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아니 생각하지 못
한것이 아니라 그는 문상철이가 틀림없이 훌륭한
미술가로 된다고 굳게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너럭바위우
에 걸터앉아 백양나무와 범나비를 그린 문상철은
예술적환상에 잠겨있었던것이 아니라 생물체의 특징
을 세밀히 관찰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사물현상에 대한 그의 관찰과 남다른 호
기심은 예술가의 기질보다 과학적재능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문상철은 물론 그림을 팬치않게 그리었다. 그는
모사할줄 알았으며 도해할줄도 알았다. 하지만 채
색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의 손재간과 그림에 대한
취미가 앞날의 미술가를 약속해준것은 결코 아니

였다.

(미술대학선생들이 아주 정확히 보았다.

확실히 나는 재능과 취미를 잘못 가려보았다. 재
능이 없는 사람은 일생동안 수고를 바쳐도 그 일에
서 성공할수 없는것이다.)

교육자로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찾은 정순림은
자기의 정신과 생각이 잠시나마 학생들에 대한 무
관심속에 있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다면 자기가 범한 이 돌이킬수 없는 실책이
단순한 실수나 경솔때문에 온것이겠는가?

아니다. 단지 그런 실수나 경솔성때문이였다면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와서 그처럼 가슴아픈 후회
를 하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여기에는 교원이라는
그 직책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 인간일반이 지녀야
할 숭고하고 값높은 자리, 자기가 지켜선 고귀한 사
회적위치를 망각한 탓으로 하여 초래된 웅당한 결
과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정순림은 피로운 후회를 안고 몸부림쳤지만 문상
철이가 잃어버린 지난 2년간의 빈공백을 메꿔줄 방
도는 나지않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껏 받은 사람들의 존경과 호
평은 그들이 나에 대한 너무나도 평면적인 리해의
결과였지요. 나는 량심을 속일수 없어요.》

신영숙의 단정한 자세는 조금도 움직일줄 몰랐다.

4

어느덧 교정엔 어둠이 깃들고 잎떨어진 은행나무
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짹짹거리던 새들도 깃을
펴기 시작하였다.

마가울의 짧은 해는 가뜩이나 높은 산으로 둘러
막힌 옥천동골안에서 인차 자취를 감추었다.

굴쪽같은 초생달이 불쑥 솟아올라 운동장둘레에
키높이 자란 황철나무정수리에 갈구리처럼 걸리였
다.

산촌의 저녁은 고즈넉한 정적속에 깊이 잠들었다.

정순림은 오싹하는 추위를 온몸에 느끼였다.

문상철의 두통의 원지, 자기 위안과 변명이 남긴
장거리 전화, 강좌장과의 솔직하고 진지한 이야기,
문상철의 그림과 미술대학추천문건, 정순림은 자기
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되며 또 마지막이여
야 할 수치에 대하여 신영숙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
고 죄다 이야기하였다.

방안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는 쉬임없이 똑딱거리고 이따금 이름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뻘뻘 울 들려왔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도 시간은 용납하
지 않고 나의 이러한 정신적빈구석을 가차없이 들
취내는군요. 그래서 난 피로하고 부끄럽지만 이 말을
교단에 처음으로 나선 영숙선생에게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신영숙은 숙였던 머리를 들고 신망에 찬 눈길로 교장의 얼굴을 뵈히 건너다보았다.

사회가 얼마든지 용서해줄수 있고 또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그런 실책아닌 실수를 두고 너무도 자신을 신랄하게 반성하기때문에 신영숙은 무슨 말로 위로했으면 좋을지 안타깝기만 하였다.

《교장선생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치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한번도 실수하지 않고 산다구 자꾸 그러세요.》

신영숙은 순림교장이 세운 공로에 비하면 그런 실수는 아주 작은것에 불과하며 또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교원이 어떻게 문상철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녀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예요. 교원은 천번을 옳게 행동했다라도 단 한번의 실수를 해서는 안돼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우리 교원들이 세세대들의 장래운명을 책임지고있기때문이에요.》

조용조용 속삭이는 순림교장의 버들잎같은 유연한 표정에는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그렇듯 정갈하고 고결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나 한사람의 실책이 국가인재양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공민적자각이 우리 교원들에게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혁명가라는 고귀한 이름을 지닐수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당의 위임, 혁명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가 지켜선 자리엔 그 어떤 사소한 실수나 치욕도 남겨서는 절대로 안되는거예요. 자기가 피워놓은 꽃에서는 반드시 충실한 열매를 익혀야 한다는 높은 사명감을 자각한 사람이라야 그렇게 살며 일할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저지른 파오는 단순히 문상철동무의 앞길에 리정표를 잘못 세워준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지 않아요.》

정순림의 온화한 성품과 잔잔한 눈빛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열기를 띠고 더욱더 절절하게 울리었다.

《영숙선생,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된 고마운 사회제도와 그 품속에서 성장한 량심적이고 책임적인 사람들이 아니였던들 문상철은 벌써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지 오랫동안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술대학강좌장선생을 만나고 돌아온날부터 더 참을길 없는 마음의 쓰라림을 안고 모태졌어요.》

신영숙은 비로소 숙였던 머리를 다소곳이 들며 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너무 자꾸 그러시니 내 마음도 좋지 않아

요.》

그러나 신영숙은 어찌하여 정순림교장이 커다란 죄책감속에서 것처럼 울고있는지 그 심정을 다는 알지 못하였다.

그는 다만 정순림교장이 방금 한 말속에 자기처럼 교단에 첫발을 올려놓은 신입교원만이 아니라 오래동안 교편을 잡은 나이많은 교원들까지도 깨우쳐주는 참된 진리가 담겨져있다는것을 깊이 되새겨 볼뿐이었다. 그리고 정순림교장이 지금 학생들에게 기울이고있는 사랑과 성실과 헌신을 다 합친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교육자의 량심을 깨끗이 지켜가려한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

준표로인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슬며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밤경비를 서겠다고 나온 그는 아까부터 순림이네들이 어서 들어갔으면 하는것이 소원이면서도 말은 못하고있었다.

《어서 들어들 가지 않구.》

《고마와요, 아버님.》

직무를 초월하여 인정적으로 얹힌 그들은 아무이야기나 허물없이 하는 처지였다.

정순림은 준표로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다. 로인역시 교장을 딸처럼 대했다.

그래서 지금 준표로인은 고향을 멀리 떠나 이 외판교장에 온날부터 때없이 들이닥치곤하는 남모르는 안타까움도 혼자 묵새기며 아이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쳐온 순림의 얼굴에서 것처럼 자애의 눈길을 떼지 못하는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여기 옥천동에 왔을 때는 그리도 곱게 렴던 얼굴에 어느새 주름이 서고 아무리 퍼내여도 찌워낼것 같지 않던 열정의 샘물은 붉은 줄이 건너간 그의 눈에서 퍼그나 줄어든것 같았다.

준표로인은 오늘밤처럼 저렇듯 순림의 얼굴에 수심이 어려있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뭘 그렇게 해지는줄도 모르고 얘기들을 하겠나?》

로인은 담배를 빼금빼금 빨며 흰오리쉬인 정순림의 재빛머리칼을 이윽히 더듬었다.

신영숙이도 가늘게 한숨을 내그었다.

《아버님, 문상철이라구 기억나시지요? 아까 나에게 편지를 보내온...》

《알구말구, 그 사람이 전자기구공장인가 하는일가있다면서?》

《아버님이 어떻게?》

《내 며칠전에 도소제지로 이사해간 그사람네 집안소식을 인편에 들었네.》

《그랬겠군요.》

정순림은 준표로인의 말까지 들으니 더욱 후회가

켰다.

《헌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준표로인은 가뜩이나 큰 눈을 둥그렇게 올리뜨며 순림을 면바로 쳐다보았다.

《공장에서 중요한걸 연구해냈답니다.》

《그래? ! 거참 반가운 소식이군. 본래부터 머리가 총명했으니까. 헌데 임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그러나?》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는 벌써 오래전에 큰일을 했을거예요.》

정순림은 문상철이가 미술대학을 그만두게 된 자초지종을 로인에게 다시 이야기하였다.

의자를 당겨놓고 묵묵히 앉아 듣고있던 준표로인은 고개만 연방 끄덕일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우에 꽃을 피우는 그런 정성으로 애어린 싹들을 키우느라 그렇게도 애써온 순림교장의 입에서 저렇듯 고운말이 나오는데야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러나 그는 정순림을 빨리 일궈세워 들여보내야겠기에 년장자의 너그러운 성품을 다시 드러내었다.

《그래두 너무 상심말구 마음을 녹죽하게 가지라구. 이래저래 마음고생만 그렇게 하다가 예순도 되기전에 머리가 하얘지겠네.》

《알겠어요.》

《자 이젠 들어가라구.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겠네.》

준표로인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정순림은 영숙이와 준표로인이 여러번 채근을 해야 힘들게 허리를 폈다.

영숙이가 봄외투를 벗거다 복도로 나서는 교장의 어깨우에 말없이 펼쳐주었다.

봄외투를 꺼입던 정순림은 웬일인지 그자리에서 잠깐 주춤거리었다.

현훈증을 만난 사람처럼 몸의 균형을 잡느라 한동안 애쓰던 그는 오늘밤중으로 문상철이한테 가봐야겠다고 말하였다.

신영숙은 깜짝 놀랐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야 해요. 늦었지만 찾아가서 그의 연구성과를 축하해주고 그것을 하루빨리 완성하는데 어떤 방조가 필요한지 꼭 알아봐야겠어요.》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번뜩이였다.

《가두 모래쭈 가게. 래일이야 일요일이 아닌가?》

준표로인이 눈섭을 실룩거리며 나무라듯 말하였다.

《그렇게 하세요. 학생들이 보내는 축하편지두 조직하구요!》

《참 좋은 의견이군요. 그건 영숙선생이 책임지고 꼭 써보내도록 하자요.》

밖에 나선 정순림은 창문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등지고 운동장한복판을 걷기 시작하였다.》

누구도 그의 걸음을 막지 못하였다.

영숙이와 준표로인이 정문까지 따라나갔다.

《그럼 무사히 다녀오세요.》

푸른 달빛이 먼길 떠나는 정순림의 어깨를 부도럽게 어루만졌다.

《어쩌면 저리도 마음이 깨끗할가!》

그들은 달빛속으로 사라지는 정순림교장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정다운 교정도 묵묵히 교장을 바래주었다.

가사

휴가 온 젊은 병사

리종률

들끓는 풍년벌로 휴가 온 젊은 병사
구리빛 얼굴에 체격도 미끈하네
어쩌면 저렇게 의젓하고 림림할가
처녀들 소곤대니 그 병사 하는 말
병사가 건강해야 초소가 튼튼하다네

가을할 땐 말이 없어 푹푹한줄 알았더니
설참엔 심글병글 손풍금도 잘 타네
어쩌면 저렇게 일잘하고 명랑할가

처녀들 소곤대니 그 병사 하는 말
병사가 명랑해야 싸움도 잘한다네

수령님의 사랑안고 휴가왔던 젊은 병사
풍년벌의 행복안고 초소로 떠나네
어쩌면 저렇게 발걸음도 씩씩할가
처녀들 소곤대니 그 병사 하는 말
꽃피는 고향보니 힘이 절로 난다네

우리의 총련이여

김두권

눈부신 태양의 빛발을 받아
우거진 신록이 머리를 설레이며
준풍을 노래하는 거목인양
우리의 총련
5월하늘에 위용을 펼치누나

그 높이 창공에 치솟아 켄수 없고
그 가지 사면팔방으로 뻗어
가지마다
마디마다
자주의 붉은 꽃 만발하고
창조의 열매 주렁졌거니
노래소리 누리에 메아리치누나

언제부터였더냐
찬바람 몰아치는 이역땅에서도
해살 넘치는 봄을 맞아
깃났혔던 푸나무가 되살아나고
힘있게
보람차게
나무아지 뻗기 시작한것은

언제부터였더냐
총련의 지붕높이
주체의 기치 세차게 펄럭이고
회관정원 나무들에

여러 새들 깃들고
갓가지 꽃
철따라 피기 시작한것은

그 언제부터였더냐
남의 나라 차간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소설 펼치고
세상의 가장 큰 행복
더없는 긍지 노래하게 되였더냐

은혜로운 햇빛
한없이 따사로와
만리이역땅에 비록 살아도
70만은 오늘
하많은 영광과 자랑으로
애국애족운동의 새길
걷고 또 걸어가거니...

굽디굽은 뿌리와
가지가지들에
헤아릴수 없는 잎사귀마다에
주체의 생명수 흘러흘러라
우리의 총련
위대한 태양의 찬연한 빛발아래
훈풍을 노래하는 거목인양
5월의 하늘높이 설레여라

가사

미래를 안고사는 나는 교원

박재선

해빛을 따라피는 천만송이 꽃
별빛을 따라피는 억만송이 꽃
조선의 꽃봉오리 키우는 마음
아 가슴에 안고사네 나는 교원

사시절 붉게 피어 향기풍기게
찬바람 불어와도 꺾이지 않게

혁명의 새세대로 키우는 마음
아 가슴에 안고사네 나는 교원

내 한생 교단우에 서있다해도
해와 별만 따르는 꽃을 가꾸리
래일을 그려보며 사는 이 마음
아 가슴에 안고사네 나는 교원

어머니교원

박관범

(1)

추계대운동회가 있는 지난 일요일은 날씨가 흐리어 추워하는 학부형들도 있었는데 오늘아침은 구름 한점 없이 깨끗이 맑아 한결 따뜻하다.

《요》 조선초급학교 교무주임 주봉선은 세살난 아들 기석의 고사리같은 손목을 잡고 학교에 오르는 마지막 돌계단을 힘있게 짚었다.

날씬한 몸매에 꽃무늬가 든 흰 저고리에다 곤색 치마를 받쳐입은 봉선은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은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가쁜 숨을 후 내쉬었다.

기석의 귀엽상스런 작은 가슴도 활짝거렸다.

봉선의 눈앞에는 중급학교와 잇닿은 넓은 운동장이 맑게 개인 가을하늘아래 시원하게 펼쳐졌다.

이 학교의 교원으로 부임하여 13년동안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같은 풍경이지만 봉선의 눈에는 오늘도 정답게 안겨왔다. 아침해살을 받아 번들거리는 4층교사의 유리창들이며 옥상에 큼직큼직하게 써붙인 눈부신 글발들이... 학교에 당도할 때마다 봉선은 어머니품에 안기는것 같은 포근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기석아.》

《응.》

《여기가 학교공원이란다.》

봉선은 집을 나오면서 기석에게 《오늘은 학교공원에나 가서 놀자 응.》 하고 말하였다.

수풀이 무성한 산우에 서있는 학교운동장에는 부속유치원의 미끄럼대니 그네니 하는 어린이들의 갖가지 놀이감과 운동도구가 가득 장만되어 공원처럼 보였다.

《엄마. 여기가 정말 공원?》

학교에 여러번 와본적이 있는 기석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해죽이 웃었다.

《정말이고말고. 여기가 학교공원이란다.》

봉선은 기석에게 타이르듯이 대답하였다.

봉선은 일요일 하루쯤 어린애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큰 공원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해야 할 일을 생각하여 기석이를 데리고 학교에 나왔다.

《기석아-》

현관앞에서 별안간 손벽을 치면서 기석의 이름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일찌기 학교에 나와서 직관교재를 제작하고 있던 교장선생이었다.

푸른 운동복에 흰 운동모자를 눌러쓴 몸이 뚱뚱하고 호인답게 생긴 교장선생은 일손을 멈추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기석이 오는쪽으로 달려갔다.

《아유! 교장선생 벌써 나오셨나요.》

봉선이라도 반색을 하면서 교장선생에게 인사를 드리었다.

교장선생은 기석을 두손으로 번쩍 들어서 높이 추켜올렸다.

《야 높아높아. 평양구경 했지. 옹지 기석이 과자 사줄가.》

교장선생은 봉선에게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기석을 안은채 운동장밖을 향하여 걸어갔다. 교문밖에는 조그마한 과자점방이 하나 있었다.

기석을 안고 걸어가는 교장선생의 뒤모습을 미안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서있던 봉선은 직원실에 들어가 짐을 풀어놓고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학교에서는 2학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말 기본단어 6백개를 골라서 단어의 뜻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시한 직관물을 60점씩 만들기로 하였다.

오늘 교장선생과 봉선이 만들어는 직관물게시판은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구형판으로 곱게 뿜끼칠을 하여 학생들이 잘 보이는 현관앞에 붙일 계획이다.

봉선은 자기 책상앞에 준비해두었던 뿜끼통과 붓을 넣은 컵에 신나를 부어서 들고 현관밖으로 나왔다.

점방에 갔던 교장선생은 과자봉지를 들고 아장아장 걷는 기석의 손목을 잡고 운동장을 걸어오고 있었다.

《교무주임선생은 오늘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일찍부터 나왔소?》

교장선생은 흰운동복을 갈아입고 나온 봉선을 보자 이렇게 나무랐으나 빙글빙글 웃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어려있었다.

《저는 교장선생이 좀 쉬었으면 했는데요 뭐.》

겉으로는 암전해보이지만 속대가 센 봉선은 교장

선생의 나무람에 이렇게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였다.

《오늘은 휴일인데 기석이를 생각해주어야지 않소. 남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산에랑 공원에랑 놀러 가는데말이요.》

《그러니까 기석이는 오늘 엄마와 함께 학교공원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호호호...》

《하여튼 교무주임선생이 어린애를 데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저 머리를 숙이지요.》

교장선생은 정말 머리를 숙이었다. 그리고 허허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기석이가 과자봉지를 봉선의 코앞에 쑥 내밀었다.

《그것 참 맛있는 과자로구나 기석아. 〈교장선생,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니? 자, 고맙습니다.》

봉선은 고개를 숙이도록 기석의 머리를 가볍게 눌렀다.

기석은 빨간 랑볼에 웃음보를 파고 해롱해롱 웃기만 하였다. 봉투속에서 과자를 한개 끄집어내어 엄마에게 주었다. 봉선은 그것을 교장선생에게 주라고 한다. 기석은 다시 교장선생한테 내밀었다.

《참, 기석이 네가 마음이 좋구나. 그러나 오늘 〈팔자〉는 사납구나. 응. 이런 어머니를 만나 하하하.》

교장선생은 과자를 받아 입에 물고 이런 톤담을 하면서 또 한바탕 웃었다.

《기석아, 엄마하고 저기 그네있는데로 가자.》

봉선은 기석의 손목을 끌고 운동장에 내려가서 그네있는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기석이를 그네에 태워서 흔들어주었다. 기석은 랑손으로 그네줄을 짊 붙잡고 고개를 약간 오른편으로 숙이면서 사뭇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자. 그럼 여기서 놀아라 응.》

봉선은 몇번이고 기석이 있는곳을 되돌아보면서 현관앞으로 다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였다.

봉선은 우선 합판을 자로 재서 금을 긋고 교장선생은 그것을 톱으로 켜다.

(2)

봉선은 어릴적부터 바라오던 교원 된 기쁨을 안고 교단에 서있는것을 큰 행복으로 여겨왔다.

그는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있는 일을 잊을수 없었다.

중학과정을 마쳤을 때 봉선은 고급부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여 학교 교원이 되고싶었다.

돼지 몇마리를 길러 생활을 유지해오는 가난한 그의 가정은 진학을 허락치 않았다.

봉선은 교원이 되고싶었던 희망을 던지고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인쇄소에 취직하게 되었다.

일하러 나갈 날이 다가오고있던 어느날 총련지부 위원장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봉선이가 장학생으로 고급부에 추천이 됐소.》

그는 뜻밖에도 이런 기쁜 소식을 봉선의 집에 가져다주었다.

이 말을 들은 봉선은 꿈만 같았다. 잃었던 희망이 되살아난것이다. 봉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봉선은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고급부에 진학하여 공부할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며 고급부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책망하던 학교 교원이 되었다.

봉선은 귀여운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뛰노는 것이 한없이 즐거웠다. 진심으로 학생을 귀여워하고 자기 힘껏 가르쳤다. 학생들도 무척 그를 따랐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미술연구소에 다니며 미술은 배웠다.

또 음악을 자기가 가르치기 위하여 아침 5시부터 학교에 나와 풍금을 공부하였다.

이런 봉선이길래 교편을 잡고있는 남편을 섬기었다.

결혼후 봉선은 자기도 모르게 가정생활에 기울어지는것 같았다.

가정일이 바빠서 학교사업이 잘 안될 때에는 남편을 돕는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다.

그러는동안에 기석이를 낳았다. 생활은 점점 더 바빠져서 밥인지 죽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밤낮없이 달려다니는 생활속에서 교원생활은 계속되었다.

봉선은 가정과 교원생활을 량립시키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생활은 본능과 타성의 테두리안에서 맴돌이치는것만 같았다.

(이때까지의 생활은 그저 자기 개인의 주관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 아니였던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하려면 더 넓은 시야와 더 높은 식견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립장에 서려면 교원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 더 높은 차원에 자신을 올려세워야 할것이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봉선은 노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하였다.

오늘아침이었다.

남보다 류달리 부지런한 봉선은 오늘 남편보다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일주일간 정리를 못하여 옷가지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먼지가 쌓인 집안팍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

하였다.

물결레로 담은 복도를 걷는 맨발의 감촉이 상쾌하였다.

간밤에 늦도록 세탁기를 돌리며 땀 땀래를 뜰에 내다널었다.

쌓이고쌓인 가정일로 무거워졌던 마음이 한꺼번에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봉선은 아침밥을 지어 상에 차려놓고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중고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남편은 잊지않아도 학생들의 작문검토와 답안채점, 교수준비에 밤가는줄 모르고 일하였다. 오늘아침은 한시간쯤 늦게야 일어났다.

《좀더 주무실걸요.》

눈을 비비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에게 봉선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담뱃 미소를 띠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일요일이라고 무한정 잘수야 있소.》

아직 잠이 덜 깬 남편의 대답은 통명스러웠다.

《그래도 쉬는 날은 꼭 쉬셔야 해요. 그러다가 몸상하면 어떻게 해요.》

봉선은 남편의 건강을 언제나 걱정하였다.

《걱정 마오. 일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게 있소.》

일에서만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는 남편은 노상 이런 말밖에 할줄을 몰랐다.

남편은 밥상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려우? 오늘은 집에서 하루 쉬오.》

남편은 봉선의 몸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전 오늘 학교에 나가봐야 하겠어요.》

봉선은 대개 휴일에는 집에서 가정일을 보면서 남편의 시중을 해드렸다.

고개를 숙인채 대답하는 봉선의 소리는 약간 떨리었다.

며칠전에 봉선은 기석의 동생될 어린애가 생긴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다.

남편은 첫아이 기석이가 생겼을 때처럼 기뻐하지는 않았다.

《하 그래!》 하고 놀라는 그의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은 없었다. 도리어 불안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봉선의 몸을 걱정하는 심정이기도 하였으나 교원생활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우려갈이기도 보였다.

봉선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3년전에 기석을 낳았을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모두 봉선이가 해산하게 되면 부득불 학교근무를 그만두고 가정에 들어앉게 되리라고 짐작하고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런 생각을 알아챈 봉선은 학교를 그만두자고 생각하니 자기가 가르치고있던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그 이름과 함께 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또록또록한 학생들의 눈동자와 귀여운 그 얼굴들이 봉선의 저고리소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과 헤어지는가고 생각하니 형용하기 어려운 쓸쓸한 감정이 복받쳐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남편의 교원생활을 계속하는데도 자기가 보태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적형편에서 봉선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남편도 교원을 그만두고 댄 무슨 돈벌이를 해야 할 립장이었다.

봉선이에게는 그것보다도 이국땅에 사는 어린이들을 아버지원수님의 아들딸로 키우는 일에서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온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이런것저런것 생각다가 봉선은 용단을 내려 기석을 업고다시 학교에 나갔다.

날아서 두달밖에 안되는 갓난애기를 업고 학교에 나가는것은 참으로 힘겨웠다. 책상우에 애기를 눕혀놓고 교실에 들어갔다.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봉선의 이악한 태도에 놀랐다.

《저런 ! 애기를 업고 학교엘 나가다니 원... 정성이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러면 애기를 내가 보아주마.》 하고 시어머니가 기석을 보아주게 되었다.

봉선은 주에 한번씩 토요일마다 L시내에 사는 시어머니택에 기석을 데리러 다니었다.

기석이는 할머니 슬하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봉선의 가슴은 큰 구멍이라도 뚫어진것처럼 늘 허전하였다.

기석을 보아주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앞으로 기석이밑에 또 어린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것인가, 아니 어린애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꿈쩍도 못하고 교원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봉선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갔다. 한편 후대들의 교육-일본정부의 동화정책이 날로 심화되는속에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민족의 얼을 안겨주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수행하는 애국투사로 육성하는 민족교육에 대한 의무감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봉선의 두어깨를 짓누르는것 같았다.

학교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가정에서 어머니노릇과 안해노릇을 해야 하는 두가지 역할사이에서 일보 전진하는가 혹은 물러서는가 하는 기로에 서서 봉선은 고민하였다.

이런 고민속에 잠겨있으면서 봉선은 오늘 기석이

를 데리고 학교에 나가 직관물을 만들 생각을 다시 고있었다.

《저의 걱정은 절대로 마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정일을 보고싶었지만 학교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일을 보고 모른척할수는 없어요.》

《사정이 그렇다면 당신 좋을대로 하오만 기석인 집에 두고 가오. 일을 하는데 어린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치장스러울테니 기석인 내가 나중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릴테니.》

남편의 얼굴에는 어딘지 쓸쓸한 빛이 보였다.

《아니예요. 제가 학교에 데리고 가겠어요.》

봉선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자기품에 안기지 못하는 기석이를 집에 두고 가고싶지도 않았지만 남편에게 어린애를 맡기여 부담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저 참 정 그렇다면야... 그럴바에야 할머니한테 그냥두고 올걸 그랬지.》

남편은 못마땅한듯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봉선은 아침식사를 마치자 부랴부랴 설것이를 끌내고 기석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3)

교장과 봉선은 점심을 먹은후에도 계속하여 직관물게시판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봉선은 교장선생이 대패질을 하여 끝을 45도각으로 자른 테두리각목에 파란색 뽕끼를 칠하였다.

뽕끼칠도 정작 해보니까 곁에서 보는것처럼 수월하지 않았다.

매끈하고 곱게 칠하려면 뽕끼를 많이 발라도 적게 발라도 안되였다. 될수록 넓게 단번치기로 붓질하여 바르는것이 좋은것 같았다.

봉선은 뽕끼를 찍은 붓을 다시 접시에 꼭꼭 눌러서 랑의 가늠을 해서 손을 아래우로 돌리면서 몇번이고 칠을 하였다. 오른팔이 아팠다. 잘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얼룩이 지어 진한데와 옅은데가 나타났다.

기석이는 운동장에서 노는것이 싫증이 났는지 교사안에 들어와서 톱톱 톱 톱을 뛰어다녔다.

《여기 차를 가져왔어요.》

학교용무원아주머니가 쟁반에 차그릇과 물끓인 주전자를 걸상우에 놓고갔다.

봉선은 뽕끼를 칠하던 붓을 놓고 걸상옆에 쪼크리고 앉아서 용무원이 가져온 차를 차잔에 따랐다.

《교장선생, 차 드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익숙치 않은 일을 할려니까 마음대로는 잘 안됩니다.》

교장은 학생걸상에 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말입니다. 힘은 곱들면서 일은 서툴구요.》

봉선이라도 교장선생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런것을 일일이 목수한테 부탁할수도 없구요.》

《허허, 사람 놀리지 마시오.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 교무주임선생한테는 너무 수고만 끼쳐서 안됐습니다. ...교장이 변변치 못해서 그런지 쉬는 교원이 더러 있어 교무주임선생을 담임교원 뽕질을 시켜서 참 미안합니다. ... 그리구 저 어제 가정 방문하신 유선생집형편이 어떻습니까? 곧 나올것 같습니다.》

교장선생은 자못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시할머니 초상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쉬고있는 4학년 담임 유선생에 대하여 묻는것이였다.

《네, 래주부터 출근하겠다고 말은 하고있었습니다만 좀...》

봉선은 어제저녁에 유선생을 방문한 결과를 월요일 아침에 보고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교장선생이 묻는바람에 이렇게 얼버무렸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 중도에서 끊었다.

유선생의 시가는 7시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에 있었다. 수백평이 넘는 넓은 부지에 고래등같은 큰이층기와집이 서있었다. 검은 철창으로 된 대문이 잠겨있었다.

대문옆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니 식모가 나와 누구인가고 묻는다.

조선학교에서 유선생을 찾아왔다고 하자 무표정한 식모는 찌그렁 하고 소리를 내어 대문을 열어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새로 지은 집인듯 모든 가장집물이 번들번들하고 으리으리하여 봉선의 취미에는 맞지 않았다.

식모는 봉선을 2층의 8첩이나 되는 넓은 다다미방에 안내하였다.

유선생이 혼자 쓰는 방인것 같았다. 방에는 검은 피아노가 놓여있고 책상우에 조선인형이 없혀있었다.

1층 응접설에선가 손님들의 떠들썩하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무슨 큰 기업을 하는 상공인 가정 같았다.

한 10분후에 식모가 차물을 가져오고 좀 있으니 유선생이 앞치마를 두른채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왔다.

《교무주임선생, 먼데 찾아주셔서 참 고마와요. 편히 앉으세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유선생은 자기가 결근하고있는데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변명도 없고 대뜸 어떻게 찾아왔는가고 태연하게 물었다.

봉선은 자기가 유선생대신으로 담임을 보아주고 있는데 그런 학교사업은 꼬물만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왔는가고 묻는 ○선생의 무신경이랄까 무관심에 대하여 쓸쓸한 감을 금할수가 없었다.

봉선은 그 질문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시할머니 령전에 소향을 하겠으니 안내하라고 하였다.

봉선은 유선생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 령전에 소향을 하고 큰절을 두번 하였다. 방안은 향내로 가득 찼다. 상주에게도 무릎을 꿇어 조의를 표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왔다.

유선생은 봉선의 뒤를 따라 2층에 올라오기가 바쁘게 《초상에 오선 친척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출근도 못하고 전 늘 이렇게 바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하고 다시 1층에 내려갔는데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봉선은 배도 고프데다가 너무 기다리게 하여 술 그머니 화가 치밀어올랐으나 뛰쳐나올수도 없고 그냥 참고 앉아있었다. 이윽고 유선생이 과일을 깎아 놓은 접시를 정반에 받쳐들고 와서 먹으라고 권하였다.

《교무주임선생, 학교에 나가지 못해서 참 미안해요. 이 집엔 친척도 많지만 손님이 그칠사이가 없어요.》

유선생은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다.

《유선생, 거기 잠깐만 앉으세요.》

봉선의 말은 명령조로 떨어졌다.

《무슨 말인데요. 전 아직 부엌일이 바빠서요.》

유선생은 새침해서 그자리에 앉았다.

《시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런데 와서 말씀드리기는 참 거북합니다. 그러나 학교사업은 하루도 미룰수 없고요. 이 집에 와보니까 바쁘다는건 잘 알겠습니다만... 유선생은 언제부터 학교에 나올수 있겠어요.》

봉선의 어조는 침착하고도 무게가 있었다.

《...》

《학생들이 쫓 기다리고있습니다. 유선생을.》

《그런데 전 늘 이렇게 바빠서요. 학교사업을 잊은것은 아니지만.》

《담임선생이 빨리 나오셔야 학생들이 안착해서 공부할수 있지 않아요.》

음성은 날카로웠다. 한참동안 침묵이 흘렀다. 봉선은 교원의 책임성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고싶었으나 오늘은 그만두었다.

《학교사정이 정 그렇다면 래주부터 나가겠어요.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요. 보시다싶이 저에게는 가정일이 너무 바빠요. 그렇다고 가정일을 희생시킬립장도 아니구요.》

유선생은 일허게 불부은 소리를 하면서 봉선을 쏘아보았다.

봉선은 몹시 불쾌하였으나 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왔다.

유선생은 학교사업과 가정일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가정일을 서슴없이 앞세우는 태도 같았다.

봉선의 머리에는 한달전 일이 선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유선생이 담임한 4학년 교실앞을 지나갈 때였다. 딱딱 교탁을 치는 회초리소리와 함께 《알았습니까?》 하는 소리가 댕겨퍼 들려왔다.

봉선은 기웃이 교실안을 들여다보았다.

학생들은 눈을 멀뚱멀뚱거리면서 모두 어리둥절 앉아있었다. 무엇을 알았다는 얼굴들은 아니였다.

선생은 가르친것을 학생들이 정말 이해했건말건 《알았습니다.》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듯이 《알았습니까?》를 계속 웨치고있었다.

학생들은 어쩔바를 모르고 그저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참 이상한 수업풍경이였다. 봉선은 혼자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교수안에는 저런 장면은 찍여있지 않았었는데...)하고 4학년 교실앞을 지나갔다.

이튿날 봉선은 시범수업을 조직하여 흥미를 돋우면서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학습세계로 유도하여 선생이 계획한대로 생각하는대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능숙한 교수법을 유선생에게 보여주었다.

봉선은 유선생집을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유선생을 학생사업에 열중하는 교원으로 키울수 있을까?...)하고 교무주임으로서의 책임을 느꼈다.

《유선생이 또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교장선생은 말을 중둥무이한 봉선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캐여물었다.

《...》

봉선은 한참동안 묵묵히 앉아 기석이 놓고있는곳을 주시하고있었다. 이야기를 할가말가 망설이다가 이윽고 사실대로 말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초상에 모인 친척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바쁘다고 하면서 래주부터는 나온다고 하고있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집이니까 아마 친척들도 많이 모일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이상이나 학교를 쓴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의 시집은 민족교육에 많은 협력을 하고있는데 유선생은 교원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도 상공인의 자제들을 잘 교양하여 애국자로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교무주임선생, 우리 힘을 합쳐서 유선생을 훌륭한 교원으로 키워봅시다.》

교장선생의 말에는 굳은 결의와 자신이 담겨져있었다.

지난봄에는 그런 일이 있어 그의 시집을 찾아가 오랜 시간 설복한끝에 출근하게 한 경험으로 교장

선생에게는 어떤 자신심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네. 저도 어제저녁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석이도 기다리고있고 해서... 유선생이 학교에 나오거든 또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봉선은 유선생의 불쾌한 태도에 대하여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무주임은 유선생의 수업준비와 담임사업을 더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네. 유선생이 만들어야 할 60점 직관물제작도 제가 20점가량은 만들어주고있습니다. 교수안도 매일 보아주고있고.》

《참, 수고를 합니다. 백번 찍어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없다고 하듯이 그렇게 자꾸 방조를 주고 설복을 하고 우리가 더욱 열성을 보이게 되면 따라오게 됩니다.》

교장은 먹다남은 차를 홀 하고 소리를 내어 들어마시고는 결상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작업을 계속하였다. 봉선이라도 뺨끼칠을 계속하였다.

봉선은 일을 하면서 교장선생의 이야기처럼 유선생이 교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걸어치우고 열성적인 교원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가정과 사업의 골짜기에 끼인 같은 녀성으로서 다시 자신의 경우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봉선의 가슴은 뭔가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점점 더 무거워지는것만 같았다.

(4)

《기석아, 기석아, 엄마 여기 있다. 아이구 기석아.》

봉선은 기석을 껴안고 안타까이 기석의 이름을 불렀다.

기석은 통 정신을 잃고 씩씩거리면서 울기만 한다. 눈까풀이 뒤집히고 흰자위가 드러났다. 금시에 얼굴이 새파래져서 팔다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얼굴을 찌프리고 운다.

봉선은 와락 겁이 났다. 정신이 아뜩해졌다. 눈앞이 뿌예지면서 기석의 이름만 웅겼다.

교장선생도 놀래여 황황히 이쪽으로 달려와 기석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갑자기 기석이가 웬일이요.》

《신나를 마신가봐요. 제가 언뜻 보니까 저 신나그릇을 들고있었어요.》

《아이구, 이거 야단났네. 빨리 병원에 가보아야겠소. 아니 오늘이 일요일이지. 열여섯 병원이 있잖아. 가만 있자. 그러지 말고 구급차를 부릅시다.》

교장선생은 되게 당황하여 이렇게 혼자 웅쳐대면서 전화를 걸려 직원실로 급히 달려갔다.

기석이는 어머니룸에서 그저 보채면서 앙앙 소리를 내어 운다.

봉선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기석이가 어떻게 되거나 앓는가 하는 공포감에 몸이 벌벌 떨리었다. 구급차가 어서 오지 않는가고 기석을 꼭 붙안은채 서성거리면서 운동장밖을 목이 빠지게 바라보았다.

구급차는 어디서 연락을 받고왔는지 모르지만 의외에도 빨리 도착하였다. 교장선생이 전화를 건지 불과 5분도 안되어 으앙으앙 소리를 내면서 교정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구급병원은 큰 병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일요일이 되어 구급환자 이외는 진찰을 받지 않았다. 병원안이 텅 빈것처럼 조용하였다. 기석은 곧 당직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다.

복도에서 놀던 기석이는 교장과 봉선이가 차물마시는것을 본것 같다. 봉선이가 감간동안 기석이한테서 눈을 떼고있는동안에 작업장 가까이 다가와서 유리컵에 들어있는 신나를 차물로 착각하고 마신 모양이다.

신사숙에는 메틸알콜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유해로운 물질이 섞여여있다. 마시면 전신이 마비된다. 물론 어린이가 많이 마시면 생명도 위험하다.

《신나를 마신것이 틀림없습니다. 속히 먹은것을 말끔히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곧 관장시킵시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별로 큰일은 아니라는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간호원을 시켜서 기석이를 수술실로 데리고 갔다. 세조는 잠간동안에 끝났다. 생명의 위험은 없어졌다. 그러나 2~3일은 입원하여 약을 마시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기석이는 어머니와 함께 입원실에 안내되었다. 조그마한 어린이기침대에 눕혀졌다. 새파래졌던 기석의 얼굴에 불그스레 피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가쁘게 쉬던 숨도 점점 순조로와졌다. 봉선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제 안심이 됩니다. 학교교정은 아예 말고 기석이 몸조리를 잘해주십시오.》

구급차를 타고 같이 따라왔던 교장선생은 말을 마치자 투박투박 발소리를 내면서 병실을 나갔다.

기석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서쪽하늘에는 뉘엿뉘엿 저녁노을이 붉게 탔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였다.

제정신에 돌아온 봉선은 구급병원의 입원실에 기석이와 함께 있는 자기의 존재를 새삼스러이 확인하였다. 가정이 생각되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 봉선은 살그머니 자리를 일어났다. 공중전화가 있는곳으로 걸어갔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순간 깜짝 놀라 《기석이가 신나를! 신나를 어째서? 그래 기석인 지금 어떻게 하구있소?...》 하고 들려오는 높은 여성이 수화기

로 링겨나와 봉선의 고막을 때렸다.

구급병원에 와서 세조를 마치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잠들고있다고 하니 그제야 남편의 어성은 다시 낮아졌다.

남편은 이제 달려올것이다. 전화를 놓고 생각하니 봉선은 남편을 만날 면목이 없었다. 남편은 아침에 기석이를 집에 두고 가라고 하였다. 남편의 말을 마다하고 봉선은 기석이를 학교에 끌고가서 이런 봉변을 당하였다. 남편이 나타나면 무엇이라고 사죄하면 좋을가.

밖이 차차 어두워지면서 방안은 전등불로 점점 환해졌다. 기석이를 시어머니 집으로 데려갈 시간이 각일각 다가온다. 그러나 기석은 오늘 입원하여 할머니한테는 갈수 없게 되었다. 봉선은 불안과 초조함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지금 기석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는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면 좋겠는가. 기석이가 입원하고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실가. 나를 얼마나 꾸중할것인가. 너무 걱정을 끼쳐서는 안되니까 시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말가. 아니.그럴수는 없다. 말이 할머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고있는 기석이에게 어머니역할을 하고있다.

기석이는 자다가 일어나면 《할메》를 부른다. 어데가 언짢아 올 때도 《할메》를 찾는다.

그건 기석이가 입원하고있는데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더 노하실것이다.)

봉선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시중을 끼쳐서 그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이라면 탁아소가 완비되어 시어머니에게 고생시키지 않고 무료로 어린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직장에 나갈수 있을것이다.

일본에는 공립보육소가 있기는 하나 그런데는 수속이 까다롭고 시간제한이 있다.

사실 보육소는 한달에 5만원이상 보육료를 물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곳에 애기를 맡기고 학교에 나오는 교원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뻔뻔하게 살림을 해나가고있는 봉선이가 무슨 어유가 있어 그간 보육소에 어린이를 맡길수 있겠는가.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 일을 하게 되면 아직은 10만원 수입을 얻을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고 기석이를 보아주고있다.

시어머니는 봉선에게 참으로 비할바없이 고마운 어머니다. 이런 시어머니에게 자기 잘못으로 걱정을 끼치게 된것이 고통스러웠다.

이런 때는 또 어지러운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다.

(시어머니한테 이상 더 신세를 질것 없이 가정에 들어앉아 기석이를 자기품에 안아서 키워볼가.)

기석이를 데리러 시어머니집에 갈적마다 기석이

가 나한테 낮가림을 하고 뒤걸음질을 쳐서 할머니 뒤에 몸을 숨길 때면 모자간에 어석어석한 찬바람이 도는것 같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책임을 못다하는 자책감으로 가슴이 금박 미어지는것처럼 쓰리고 아프다.

시어머니에게 것처럼 시중을 끼치고 기석이에게 것처럼 섭섭한 느낌을 줄것이 뭇가.

남편의 시중이나 잘 들어서 그에게 교원생활을 잘하도록 해드리면 족할것이 아닌가.)

봉선은 막상 이번과 같은 일에 부닥치면 이렇게 뒤걸음질도 쳐보나 다음 순간에는 또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대서는 안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너자도 사람인데 자기 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너자라고 남편에게 매달려만 살아서는 안된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마당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교무주임이 아닌가.

더구나 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수신 장학금으로 공부하여 어엿한 교원이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서도 남보다 일을 더 해야 한다.

시어머니에게 고생을 시키는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만 어머니에게 잘 리해시켜 시어머니도 우리 일을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봉선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한테 자기의 생각을 소곤소곤 말씀드려 보기로 하였다.

(5)

이튿날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한시간전이었다.

수풀사이로 비쳐드는 아침해살을 받은 학교 교사는 아직 등교하는 학생이 적어서 아주 고요하였다.

이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는 교장선생이 현관앞에 주춤하고 서서 의아한 눈으로 직원실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직원실에서 누군가가 얼른거리고있었다.

(누가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있을까?) 교장선생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유선생일가?) 교장선생은 어제저녁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유선생은 찾아갔다. 봉선교무주임이 쉬게 되면 아무래도 유선생이 출근해주어야지 4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보장할수가 없었다.

교장선생은 자기가 찾아간 보람이 있어서 유선생이 아마 수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한시간이나 앞서 출근하였는가 하고 지레짐작을 하면서 직원실에 들어섰다.

직원실을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토요일에 교무에게 제출하였던 교수안철을 교원들의 책상우에 돌려주고있는것은 뜻밖에도 봉선교무주임이었다.

《교장선생. 밤새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기석이 때문에 큰 수고를 끼쳤습니다.》

봉선은 수면부족으로 눈등이 부석부석 붓고 피곤으로 얼굴색이 노랗게 되어 전혀 풀기가 없어보였다.

교장선생은 아직도 교무주임이 출근하고있다는 사실이 채 믿어지지 않아 한참동안 정신없이 서있었다.

《아니 저런, 기석이는 어떻게 히구 이렇게 일찍 학교에 나왔소?》

교장선생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봉선을 쳐다보았다.

《네, 교장선생이 놀라실줄 알면서 출근하였습니다. 이제 기석은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입원하고있으면 래일은 퇴원하게 됩니다. 병원에는 시어머니가 와계십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걱정이 되어서요...》

봉선은 어제저녁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꼬박 하루저녁을 지새웠다. 남편은 병원에 올 때 저녁식사와 오늘 출근준비까지 해가지고 왔다.

기석은 저녁 9시경에 한번 일어나서 우유와 야채즙을 한병씩 마시었다. 그리고 또 잠이 깊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도 기석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장선생한테서 먼저 전화편락을 받은 시어머니는 어제저녁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우리 기석이가, 기석이가 큰 봉변을 당했구만.》 하고 웅치면서 병실에 들이신 시어머니는 침대로 달려갔다.그리고 기석을 와락 껴안았다.

기석은 잠깐동안 눈을 뜨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으나 스르르 맥없이 눈을 감았다.

《아이고 기석아, 할매가 왔다. 할매가, 큰일날 뻔했구나. 우리 기석이가...》

기석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흥분하여 웅치는 할머니의 어조는 높았다.

《할머니, 기석인 고단해서 지금 자고있어요.》

봉선은 시어머니에게 자중하여 조용해주셨으면 하고 바라여서 하는 말이였다.

《아이고 애기가 통 힘이 없구나. 그런데 애기어미는 눈은 어따 두고 기석이가 몸쓸 물건을 먹게 놔뒀나. 원 참.》

시어머니는 힐끗 봉선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탓하였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바루 곁에 있으면서 두 잠간 눈을 떴고있는 사이에 그만...》

봉선은 시어머니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잘못을 솔직히 빌었다.

《재수가 없을 뎌 그렇단다. 아이고 그래도 이만 한것이 다행이지. 큰일날뻔했구나.》

시어머니의 흥분은 차차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안았던 기석을 조심히 침대에 눕혔다. 기석이는 그냥 자는것 같았다.

그 직후에 남편이 와서 어머니에게 오늘아침에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여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시어머니는 오늘아침에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왔다.

《어머니. 저희들은 학교에 나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기석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조반을 마친 남편은 봉선의 마음속까지 벌써 짐작하여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였다.

《보아주고말고, 애기어미도 같이 가냐?》

봉선을 쳐다보고있던 남편은 봉선의 시선과 마주치자 학교로 가야 한다는듯이 고개를 학교쪽으로 흔들었다.

봉선은 사실 기석이가 아직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어 기석이결을 떠나기가 난처하였으나 학교도 매우 걱정이 되었다.

토요일저녁에 유선생을 만나본 감촉에 의하면 그가 오늘 출근할것 같지 않았다. 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교수안준비는 모두 봉선이 해놓았다.

그것을 들고 유선생이 충분한 수업을 할수는 없었다.

45분수업을 단 한시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봉선은 오늘 수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지였다.

병원에 입원하고있는 기석을 생각하면 박정한 어머니처럼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기석은 죄송스럽지만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는수밖에 없지. 나는 기석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 4백명어린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있다. 기석의 혼자만의 병석에 앉아있을수는 없다. 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있던 봉선은 남편의 시선에 수긍하는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늘 기석일 말기기만 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귀여운 어린이들이 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어머님, 기석을 부탁하겠습니다.》

봉선은 시어머니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애두 별말을 다 한다. 나야 내 손자가 귀여워 보는건데, 너희들이 내 손자를 열명을 낳아도 내가 다 봐주마, 애기걱정은 말고 어서들 가서 학생들에게 공부나 잘 가르쳐라.》

시어머니는 봉선의 마음을 다 알았다는듯이 이렇게 머느리를 격려하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저희들도 큰 힘이 솟아나는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손자를 보아준다고 하시지만 우리

민족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계십니다.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둘은 조용히 병원을 같이 나왔다. 학교에 오르는 언덕길에서 남편은 한밤을 지새워 얼굴이 축나보이는 봉선을 보고 《고생을 시켜서 안됐소. 당신은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내 교원을 계속해주오.》 하고 잔등을 밀어주었다.

《교무주임선생의 열성에는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교무주임은 오늘만은 학교에 못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유선생이 일찍 나오신줄로만 알았습니다. 유선생이 오늘은 꼭 나올것입니다. 교무주임선생은 학교일은 걱정 말고 지금 곧 병원으로 돌아가보십시오.》

《교장선생,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유선생이 나오게 되면 래일수업을 준비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봉선의 굳은 결의에 찬 얼굴은 교장선생의 말에 물러설것 같지 않았다.

수업종이 울리기 5분전에 유선생도 출근하였다.

《유선생, 바쁘신데 잘 나오셨어요. 참 일전엔 미안했어요. 오늘 4학년생수업은 제가 하겠어요. 제가 교수안을 짜놓았으니까, 유선생은 래일 가르칠 준비를 해주세요.》

유선생이 자기 결상에 앉기가 바쁘게 봉선은 유선생앞으로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유선생은 한참동안 정신나간 사람처럼 봉선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 교장선생한테서 들은 말에 의하면 봉선교무주임선생이 오늘 학교에 나올리가 만무한데 이렇게 자기가 담임한 학생들의 수업을 하겠다고 나서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봉선교무주임선생의 처사를 자기의 나름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어린애가 입원하고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한참후에 유선생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반문하였다.

《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봐주고있습니다.》

《저런! 어린애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교무주임은 어서 병원으로 가보세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와요. 오늘 4학년생수업은 제가 하는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유선생은 학생들한테 얼굴만 내보이고 래일 수업준비를 해주세요.》

봉선의 단호한 태도에 유선생도 물러서는수밖에 없었다.

유선생은 이날 하루종일 래일 할 교수안작성에 골몰하였다.

휴일의 대동강가에서

김영길

미림갑문 한끝

물맑은 강녘에 앉아

낙시줄 칭칭 드리웠건만

잉어 송어 푸들쩍 뛰어오르는 소리에

가슴만 설레고 미끼만 잃고

낙시대 휘도록 그 한마리

금시 물러올라올듯말듯...

그멋에 휴일이면 버릇처럼 이끌리는

대동강 이 기슭

그멋에 취해

돌아가는 저녁이면

흥에 겨운 코노래도 절로 나더라

가슴속엔

푸른 쫄음이 넘치더라

설레는 마음 물결따라 앉으며

조용히 눈길 드니

떼지어내리는 고기떼고기떼

몽클 가슴속엔

뜨거운 생각 없어주누나

아, 넘치는 생활의 기쁨속에

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가

배길 따로 고기길 내주신

수령님 그 사랑 그 은정

기쁨속에 행복속에

늘 안고살아서

정녕 가슴뜨거워라

이 땅의 한그루 나무에도

이 강의 한마리 물고기에도

인간사랑의 위대한 자욱

아니 깃든것 없어

길 목

리량호

한 처녀가 빨간 너자용 오토바이를 타고 맵시있게 달린다.

처녀가 쓴 하얀 헬멧트 아래로 흘러나온 머리카락이 바람에 가볍게 날린다.

골목길을 재치있게 돌아선 처녀는 한 집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밝은 웃음을 지으며 나와서 다시 떠난다. 곤색바지에 우유빛 잠바를 입은 처녀의 동작들은 경쾌하고 날렵해보인다. 한참 달리던 처녀는 이웃마을에도 들렀다.

그는 수강생들의 집을 찾아다니는 청년학교 강사 김인숙이다.

김인숙의 겹고 깊어보이는 큰 눈에서는 줄곧 미소가 생글거린다.

오늘저녁부터는 수강생이 더 늘어나게 되었기때문이다. 더우기는 수강생대상자명단에서 이름조차 지워진지 오랬던 박준일이가 망라되게 된것이 인숙이의 마음을 하양 기쁘게 했다.

여러번 찾아간 보람이 있었다.

찾아갈적마다 집에 없다고 했고 어찌다가 만나도 비꼬인 소리를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던 준일이한테서 드디어 확답을 받았다. 또 전번처럼 잊어먹지 않을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나 어쩐지 이번에는 에누리라 없을것 같았다.

인숙이는 준일까지 쉬인 청년학교의 흥성거릴 광경을 눈앞에 그리면서 줄곧 오토바이를 몰았다. 수강생들의 집에는 다 전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하루 한번씩은 그들의 얼굴을 보아야 마음이 놓이는 인숙이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어쩐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로 느껴졌다.

인숙이는 분회장한테도 찾아갔다. 인숙이의 아저씨인 분회장은 자동차수리소를 차리고 일하면서 분회사업을 꾸준히 했다.

준일이를 데리고 외롭게 사는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던 분회장도 준일이가 청년학교에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분회장은 인숙이가 송구해할 정도로 치하해주었다.

인숙이는 저녁수업준비를 다그쳤다.

마냥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 코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수강생들이 모여들었다. 수업을 시작했다.

준일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곧 오겠지.)

인숙이는 잦아드는 기분을 감추고 수업을 하면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순간순간에 스쳐지나는 마음의 그늘을 스스로도 어찌할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다 돌아가고나자 인숙이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속이 김빠진 고무공처럼 허전해졌다.

약속을 그렇게도 허수히 여겨버리는것일까.

배반당한 심정이였다.

다음순간 인숙이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것이 아닐가. 아니면 그처럼 거절하던곳이므로 오기가 몇적어서 오지못한것이 아닐가... 그는 준일이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준일이와 처음 만나던 일이 떠올랐다.

올해 정월 보름께였다.

조청분부에서 새해결의모임을 마친 인숙이는 수강생들의 집을 찾아 떠났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창 달리는데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보니 여러대의 오토바이가 부채살처럼 널려 달려오는것이였다.

처음에는 먼데서 작게 보이더니 눈깜박할 사이에 바짝 따라붙었다.

인숙이는 길녘에 불다싶이하여 달렸다.

길을 비켜주어 그들을 먼저 보낼 생각이였다.

그런데 귀청이 떨어질듯한 엔진소리와 경적소리가 터지면서 앞길이 확 막혔다.

《따따 따따 뚜뚜...》

오토바이들은 어떤 음악곡조 비슷한 경적을 연방 울리고 일부러 엔진소리를 요란스레 내면서 인숙이의 앞뒤와 좌우를 순식간에 둘러쌌다.

휘파람을 불거나 피상한 소리를 내는자도 있었다. 뒤좌석에 너자를 태운 대장격인 청년이 방풍유리를 밀어올리고는 실눈을 하면서 인숙이를 바라보았다.

《여 불만한데. 놀지 않겠어.》

조용하나 야비한것이 숨어있는 목소리였다.

인숙이는 저르기 놀랐지만 그들과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좋은 말로 거절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부르릉거리더니 저쪽 달려나갔다가 방향을 획 꺾어 인숙이게로 육박

해와서는 아슬아슬하게 스치면서 위협을 했다.

인숙이는 부딪치는줄로만 알고 몸을 흠칠했다.

그러는 인숙이를 보고 놈쟁이들은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경적을 울려댔다.

인숙이는 화가 났다.

그들은 간단히 물러설것 같지 않았다.

인숙이는 자기를 둘러싼 놈쟁이들의 씨물거리는 얼굴들을 경멸에 찬 눈초리로 일별하고 대장격인 청년에게 쏘아붙였다.

《비켜요, 갈길이 바빠요.》

인숙이는 이런 패들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제법인데 히히히...》

또 뿔뿔 휘파람을 불고 경적을 뱅뱅 울렸다. 약을 울리는것이다.

《여여, 비싸게 굴지 말고 차 한잔만 마십시다 그려 응.》

《키

습처럼 돼버린 푸념을 늘어놓았다. 푸념은 끝없이 이어졌다.

할머니는 제깬에 어이없는 웃음을 웃어보기도 하고 치마꼬리로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였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인숙이는 준일이와의 사업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이 할머니앞에 앉아있는것이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담배를 붙였다.

손자때문에 속이 타서 담배를 피운다고 했다.

할머니는 성급하게 담배를 빨았다.

좁은 방안에는 보양계 연기가 서렸다.

인숙이에게는 할머니의 속이 타면서 그것이 그대로 연기가 되어 흘러나오는듯이 생각되었다.

그러자 인숙이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자기 아버지가 오빠때문에 저렇게 온밤을 담배연기속에서 지새우던 일이 떠올랐다.

인숙이의 집에서도 외아들인 오빠를 끔찍이도 사랑했고 그에 대한 기대도 컸었다. 아버지는 일군을 여라문명 쓰면서 토목청부업을 하였다. 벌이가 괜찮았다. 살림이 괜찮은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아들을 키워서 의사로 만들 생각을 했다. 의사가 살아가는데는 그중 나은 직업이기때문이었다.

모든 기대를 아들에게 건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호락호락 응해주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 오빠는 언제나 배포유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빗나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돌아다니는가 하면 일본사람 행세도 하면서 집안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부모들한테도 말대답을 하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누구에게나 화풀이를 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오빠앞에서 인숙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인숙이의 깊고 검은 눈은 언제나 겁에 질려있었다.

일을 바로잡자고 분회장을 하는 사위는 매일처럼 찾아와 아들과 딸을 우리 학교로 보내어 사람을 만들자고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오빠의 의사만 따랐다.

오빠가 하는 일들이 심상치는 않았으나 좀더 철이 들면 제정신을 차릴것이라고 아버지는 기대를 가지는것이였다.

그러나 오빠는 갈수록 엇나갔고 드디어는 일을 치고말았다.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어머니와 인숙이는 교대로 오빠의 침대결에서 밤을 지새웠고 아버지는 온밤 담배를 피우며 날을 밝혔다.

그때의 인숙이의 집안은 말그대로 불꺼진 캄캄한 세상이였다.

모든것이 어둡고 침침하게만 보였었다.

인숙이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지난날 자기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금 읽어보는것이였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일동무도 차차 깨닫게 될거예요.》

인숙이는 속상해하는 할머니에게 겨우 이런 말로 위로할수밖에 없는것이 가슴아팠다.

인숙이는 한시바삐 준일이가 청년학교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 밤에 더욱 강렬해졌다.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청년학교 강사로서 내가 할 임무다.)

인숙이는 강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그럴수록 제구실을 똑똑히 못하고있는 자책감을 뼈아프게 느꼈다.

할머니와 헤어져 밖으로 나오자 인숙이는 준일이네가 늘 모인다는 역전 뒤골목의 간이식당으로 향했다.

술집과 음식점들이 촘촘히 들어선 골목은 밤이 이슬했으나 여전히 번거로웠다. 고기굽는 냄새, 생선굽는 냄새며 술냄새가 코를 찔렀다.

각양각색의 무리들이 승벽내기로 명멸하고 음악소리와 술꾼들의 취기오른 고향소리, 짹짹대는 녀급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로 머리가 핑 돌 지경이였다.

그는 모퉁이에 있는 간이식당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준일이를 찾아 그전날 낮에 한번 들린적이 있었으나 밤중에 오기는 처음이였다.

그도 가끔 조청동무들과 함께 그들의 생일을 축하하러 동행해본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어둡고 어지러운데는 처음이였다.

그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면서 간이식당안으로 들어섰다.

술냄새, 담배진냄새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속을 메슥메슥하게 했다.

저도 모르게 상을 켜그리고난 인숙이는 준일이를 찾아 점방안을 훑었다.

카운터에는 손님이 없고 안침진 구석에 젊은 사람들이 틀고앉아있다. 탁상용놀음기계를 둘러싸고 몇몇 사람들이 손잡이와 단추를 두드리고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서로 어깨를 기대고 끄덕끄덕 즐기고 있었다. 걸상에 야예 누워 다리를 등받이에 올려놓고 담배를 피우는 불량배같은 젊은이도 있었다.

인숙이가 카운터에 앉아 담배를 피나물고있던 여자가 힐끔힐끔 이쪽으로 보았다.

인숙이는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커피를 부탁했다.

준일이가 보이지 않아 곧 되돌아설 생각이였으나 그냥 나가자니 주인보기가 미안했다.

인숙이를 뜻밖이나 알고있는 주인은 커피를 따르

면서 준일이가 오늘은 이곳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주인도 인숙이가 준일이때문에 걸음을 걸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인숙이는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의 시선이 뒤에서 자기에게로 쏠리는듯한 야릇한 느낌을 받았다.

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는 그 눈초리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있다는것이 알려졌다.

《야, 인사도 없이 그냥 가. 전번에는 망신을 시키더니.》

아까는 어둑컴컴한 등불밑이여서 인차 알아볼수 없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지난번 거리에서 자기를 에워쌌던 준일이의 한쌍팔들이였다.

인숙이는 그들의 말을 듣자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자기들이 생떼를 쓰며 거리북판에서 남에게 망신을 주고는 도리어 이제 와서는 제편에서 트집을 잡으며 걸고드는것 이였다.

《너 조선아새끼 만나러 왔지?》

인숙이는 준일이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대뜸 알아차렸다. 그리고 같이 섞들려다니는 자기 동무에 대해서 이처럼 야비한 말로 비난하는데 또한 놀랐다.

혹시 준일이가 청년학교에 못나온것은 자기 짝패들의 이런 비난때문이 아닐가...

《조선 사람이면 조선사람이지 어쨌단말이예요?》

인숙이가 당돌할만큼 맞서자 그들은 약이 올라 더 못되게 굴었다.

《전번에도 큰소리를 툭탕 치더니, 어쨌어?》

인숙이는 맞서봐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가만히 있을수 없었다.

《조선사람인데 어쨌단말이야요.》

인숙이는 더욱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런 장소에서 분별없이 노는 사람들과 맞서 다루는것이 멋적고 창피한 일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조선사람을 알보고 모욕하는데는 양보할수가 없는것이였다.

이때 그들을 지켜보고있던 점방주인이 껍 소리 질렀다.

《네놈들은 싸울 대상도 바로 알아보지 못해?》

점방이 떠나갈듯한 주인의 호령에 그들은 비실비실 물러갔다.

인숙이는 불몽치같은것을 가슴에 안고 점방을 나섰다.

그는 분하고 몸이 떨렸다.

풀목길을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큰길에 나왔을 때까지도 흥분을 삭일수가 없었다.

오토바이를 탈념도 못하고 가로등밑에 우두커니 서있는데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오던 준일이가 인숙이를 알아보고 머물러섰다.

인숙이가 보건대 준일이는 밤중에 왜 이런곳에 와있느냐는 외문을 품고 다가오는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다가온 준일리와 마주선 인숙이의 두눈에는 이슬이 반짝 빛났다. 그는 지금까지 안고있던 야속한 생각이 쏟아져나오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것을 자재하기에는 안고있는 흥분이 너무 컸던것이다.

《동무는 뭐예요?》

물론 목소리도 전에 없이 날카로웠다.

준일이는 어리둥절해서 덤덤히 바라볼뿐이였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 청년학교에 안나왔어요?》

준일이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켜기는듯 말없이 길옆의자에 앉더니 담배를 꺼냈다.

그렇지만 일단 인숙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흥분을 멈출줄을 몰랐다.

《동무는 약속이라는 초보적인 도덕도 지킬줄 모르면서 왜 자기 민족을 모욕하고 다녀요?》

그 말에 준일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두눈을 치뜨고 씨근거렸다.

《난 조선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것을 원망은 했어도 모욕한 일은 없소.》

《없다구요? ...원망한다구요? ... 그래서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속이고 나도 속이었어요?... 동무가 것처럼 믿고 사귀어 사람들이 그래 동무를 무슨 신주처럼 받들고 모셔주던가요?... 아무리 제정신이 없더라도 자기를 모욕하고 제 혈육들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밀려다닐수가 있나말이예요.》

준일은 말문이 막힌듯 인숙이의 얼굴을 뻗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인숙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불덩어리같은 분노를 받아안으며 마치도 인숙이가 이처럼 노한 까닭을 제 나름으로 생각해보기라도 하는듯 싶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인숙이의 울분은 계속되였다.

《원망한다구요? 원망하기전에 왜 자기 민족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가요. 자기 민족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밀려다니는거예요. 자기 민족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떼를 지어 밀려다니는 동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동무는 우리 조선민족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있어요. 비굴하게... 그래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뭐예요. 동무는 지금 제정신을 잃고있어요.》

준일이는 무엇인가 변명해보려고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인숙이를 쳐다봤다.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그러는 준일이가 인숙이는 갑자기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러자 끝없이 터져오를것 같던 울분이 저도 모르게 사그라졌다.

인숙이는 준일이를 가엽게 굽어보다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박토박 이어나갔다.

《다 제 나라에 대해서 똑똑히 모르기때문이야요. 날로 부강하는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모두가 부러워하는데 동문 왜 자기 나라-조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나요.

동무네 할머니나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되어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지도 알아야 할게 안예요?》

인숙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민족을 싫어하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까지도 원망하면서 우쭐대다가 앞길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걸 알아야 해요.》

인숙이는 자기 오빠를 생각하며 말했다.

오빠의 일을 생각할적마다 조직의 고마움을 가슴 뜨겁게 느끼곤하는 인숙이었다.

오빠로 하여 어둡침침하던 집안에 언제부터 해빛이 비치게 되었던가.

학교에서도 가슴을 못퍼고 집에서 오빠한테 주눅이 잡혀 살던 인숙이는 우리 조선학교에 들어 가서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수 있었다.

조국을 알았을 때의 기쁜 마음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었다.

눈앞이 확 띄여 앞길이 열리었고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서있었는지도 알수가 있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기운다는 지극히 당연한 리치를 처음으로 깨달은것 같은 심정이였었다.

언제나 겁을 먹고 그늘져있던, 그래서 더 깊어 보이던 그의 눈은 그때부터 빛을 뿜기 시작했다. 인숙이는 너그럽고 여유있게 준일이를 주시했다.

《몇해전만 해도 우리 오빠가 바로 동무처럼 그랬었어요.》

《?!》

자기를 의아쩍게 쳐다보는 준일이의 눈길을 알아차린 인숙이는 자기네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자기에 대한 그 어떤 동정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때의 그 감격, 그 충격, 그 행복을 준일이에게도 어서 빨리 차례지게 해주고싶은 심정에서였다.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가면 되겠는데 겁을 먹고 달아날 생각부터 먼저하니 출로가 보이겠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면 큰길이 나지는데 왕청같은 길을 가니 되겠나요. 마치 사회가 나쁘고 주위사람들이 나쁜데만 책임이 있듯이 말하면서말해요.》

인숙이의 절절한 목소리에는 애원과 간청이 깃들여있었다.

준일이는 큰숨만 몰아쉴뿐 한마디의 대꾸도 없었다.

인숙이는 간절한 눈길로 준일이를 굽어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난 기어코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지키겠어요. 오늘처럼말이에요.

민족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조선사람으로서 제 정신으로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 나갈수 있게말이에요.》

준일이가 지금까지 꼭 다물고있던 입을 열었다.

그러나 눈길만은 감히 쳐들지 못하고 땅을 굽어 보며 말했다.

《동무는 내 처지를 몰라.》

무뚝뚝했으나 생각에 잠긴 목소리였다.

령리한 인숙이는 준일이가 무엇을 녀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인차 헤아려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니까 동무는 자기 패들의 비난이 두려워 청년학교에도 못나오겠다는거지요. 그렇지요? 난 동무가 정말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줄은 몰랐군요. 용기를 내세요. 대담하게 그들과 결별하세요. 떳떳하게 자기 길을 걸으세요.》

자기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인숙이가 놀라운지 아니면 무참히 짓밟히우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신경질적으로 오토바이에 발동을 걸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굴지 말라구.》

말을 끝내기 바쁘게 요란한 소리를 남기며 달려가버렸다.

그러나 그의 어조와 행동에는 이미 기가 꺾이고 있었다.

청년학교사업은 날로 활발해져갔다.

더우기 명절을 앞두고 흥성거렸다.

조청에서 조직한 이어달리기경기대회에 청년학교수강생팀도 출전하게 된것이다.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이야기가 벌어졌다.

《꼭 입상을 해야겠어.》

《상을 타는게 문제가 아니지. 참가하는것만으로도 의의가 커.》

《옳아, 우선 우리가 선수로 뽑히는게 처음이고 조선청년으로 참가하는것도 처음이고 수강생팀으로 참가하는것도 처음이지,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처음이니 의의가 크단말이야.》

열에 떠서 서로 주고 받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인숙이도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리하여 자기도 오토바이를 타고 메가폰을 들고 따라나설 결심을 은근히 다지곤했다.

그런 뒤에는 의례히 더많은 조선청년을 찾아내여 이들의 대렬속에 세워주고싶은 간절한 마음이 뒤따르는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동포를 한사람도 일본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교시하시었는데 불과 얼마 안되는 청년들을 붙잡고 전전궁궁하고있으

려니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아직 찾아내지 못한 청년들은 말할것도 없고 준일이를 여태 데려오지 못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물론 지금의 수강생들도 거의가 우여곡절을 겪은 동무들이다.

그중에는 《조선》이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워하던 동무들이 있다.

그들은 교과서 한 구절에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조선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기만 해도 자라목처럼 마음을 움츠리고 살아왔었다.

그러던 그들이 청년학교에 나오으로써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우월성과 자랑을 알게 되었다.

인숙이는 날이 갈수록 준일이에게도 그런 기쁨과 긍지를 가슴가득 안겨주어야 할 의무감을 통감하였다.

인숙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줄곧 준일이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교수안을 펼쳐놓아도 준일이가 눈앞에서 어른거리 글줄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벽에 걸었던 잠바를 내려입고 이 밤중에 어디 나가느냐는 근심섞인 어머니의 지청구를 등뒤로 들으며 집을 나섰다.

이런 밤이 인숙이에게는 몇번이나 있었는지 모른다.

인숙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자신은 웅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졸업을 앞두고 앞길을 정하던 때의 일이 인숙이를 그 길로 추동하고있었다.

인숙이는 조교로 편입한 후 그 어느때보다도 공부에 열중했다.

그에게는 모든 내용이 새롭고 뜻이 깊었다.

어느것이나 필요한것이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삼년간 배운것으로써 사회에 나가 활동하기에는 부족했다.

부모들은 졸업을 한 뒤에는 집일이나 도우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조청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네가 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니?》

어머니는 근심에 잠겨 딸을 타일렸다.

아버지의 억눌림속에 자기의 창발성을 잃고 사는 어머니는 딸에게 사정까지 했다.

《너자들이 무얼 한다고 그러냐. 가정일이나 몇해 하다가 시집이나 갈게지.》

아버지는 애당초 의논할만한것이 못된다고 딸을 꼭 눌러놓으려 했다.

그러나 인숙이는 엄한 아버지앞에도 굽어들지 않았다.

《제가 배운것이 모자라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

만 오빠와 제가 일본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 생각나세요. 저는 두번 다시 우리 집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요.

제 갈길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조산사람으로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게 그들의 길목을 지켜주고싶어요.

저는 우리 고급학교에 다닐 때부터 늘 생각해보면서 조청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편에서 확답이 없자 이번에는 아저씨인 분회장이 인숙이를 도와나섰다.

《좋은 결심을 했다. 사람이란 배운만큼 보답을 해야 한다. 모자라면 또 배워가면서도 일을 더 잘 해야 한다.》

분회장까지 그렇게 나오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더는 인숙이를 막지 못했다.

(내가 조청사업에 나선것은 무엇때문이었던가.)

인숙이는 여태껏 준일이를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는것은 자기 사업에서 빈구석이 있고 자기의 성의와 열성이 부족한탓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인숙이는 또다시 준일이를 찾아갔다.

그것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일에 참가하고난 저녁 무렵이었다.

인숙이는 도중에서 준일이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인숙이를 보자 가쁜숨을 뿜으며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마침 잘 왔네.》

할머니는 숨이 차서 이내 뒤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일입니까?》

《오토바이를 탄 아이들이 여럿이 와서 금방 우리 준일이를 데리고 나갔네. 그 애들이 옥신각신 하면서 나갔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여질것 같네. 그래서 내 분회장을 찾아가던 길이네.》

할머니는 가쁜숨을 누착히려고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인숙이의 뇌리에서는 심상치않은 예감이 번개같이 스쳐지나갔다.

《할머니 알겠어요. 제가 알릴테니 들어가보세요.》

인숙이는 가까운곳에서 지부사무실에다 할머니에게서 들은 사연을 전화로 알렸다.

인숙이가 전화로 알리는것을 보고난 할머니는 후유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인숙이는 준일이네가 늘 다니는 길을 따라 전속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진 인숙이었다.

무엇인가 진득진득한것이 얼굴에 와 부딪쳤다.

온 종일 찌부둥해있던 하늘이 마침내 진눈까비가 내리었다.

인숙이는 소매로 얼굴에 와붙는 눈송이를 훔치며 달렸다.

강둑우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혹시?)

인숙이는 방향을 확 꺾었다.

눈이 내리며 녹아 질적질적해진 길은 미끄러웠다.
인숙이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강쪽으로 달려
올라갔다.

아니다나다가 거기에서는 청년들의 싸움이 붙었
다.

누가 누구를 치고받는지 알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인숙이는 그들에게 깔리운 준일이를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말릴 엄두를 못내고 《저런》, 《저
런》 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인숙이는 종주먹을 쥐고 달렸다.

구경군들을 헤집고 똑아래로 내려갔다.

준일이는 온몸이 흠과 피투성이로 변했다. 그대
로 두면 꼭 무슨 사고를 저지를것만 같았다.

(저 동무를 살려야 한다.)

북받치는 정의감과 동정감이 인숙이로 하여금 저
도 모르게 싸움판으로 뛰어들게 했다.

《왜 이래요 큰일나겠어요. 그만들 뒤요.》

인숙이는 고향을 질렀다.

《저것도 처라.》

몇놈이 인숙이에게로 달려들었다.

인숙이는 놈들의 발길에 채여 허궁 나가 넘어졌
다. 눈앞이 아찔하고 귀가 멍멍했다. 그래도 인숙이
는 계속 소리쳤다.

《그만뒤요. 왜 사람을 쳐요.》

인숙이는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그
러나 또다시 그들의 발길에 채여 넘어졌다.

멀리서 싸이렌소리가 울렸다.

《뛰자 !》

한놈랭이가 소리치자 모두들 그를 따라 비실비실
홀어져갔다. 가면서 뇌까렸다.

《조선사람인 주제에 건방지게 놀더니 맛이 어
때.》

경찰차가 나타났다.

인숙이는 그때까지 쓰러져있는 준일이를 부축해
서 일으켰다.

《네가 싸웠니?》

경찰관이 준일이를 흘겨보면서 짹 소리질렀다.

《그 사람은 피해자요. 달려들어 때린 애들은 다
달아났소.》

《그럼소, 옳소.》

그제서야 구경군들은 인숙이의 편을 들어나섰다.

인숙이와 구경군들의 사리정연한 항의앞에 경찰
관은 기가 꺾인듯 가해자가 어떤자들인지 조사해야
하겠다면서 경찰서로 같이들 가자고 했다.

인숙이는 준일이를 부축하고 비칠거리면서 따라
갔다.

그들의 오토바이는 물녘에 처박혀있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더니 인숙이
를 먼저 돌려보냈다.

경찰서에서 나온 인숙이는 공중전화로 가까이에
있는 한 수감생을 찾아 준일이 할머니에게 별일없
으니 안심하라는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눈은 포장길우에 내리자마자 녹아버렸다.

그러나 가로수밑과 잔디밭들에는 미처 녹지 못하
고 허영게 쌓였다.

인숙이의 머리와 어깨에도 눈은 허영게 내려앉으
며 녹았다. 이마전과 얼굴에는 물방울이 주렁주렁
맺혔다.

인숙이는 그것을 훔칠 생각도 잊은채 걸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막을수는 없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 후회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준일이를 찾아 간이식당에 갔을 때 있었던 일, 자
기에게 준일이가 《동무는 내 처지를 몰라.》 하던
말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그에게서 후회를 불러일으
켰다. 좀더 마음을 쓰고 살렸더라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몹스다고 하면서 아무런 전진도 못하고 이런 지
경에까지 이르게 하고보니 준일이앞에서도, 준일이
할머니앞에서도, 자기를 청년학교 강사로 임명해
준 총련조직앞에도 면목이 없었다.

인숙이는 오던 길을 되짚어 경찰서쪽으로 걸었다.

부상을 당한 준일이를 혼자 걷게 할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도 안되었다. 지금에 와서 준일이는 그 전
날과 달리 친오빠나 동생같이만 여겨지는 인숙이었
다.

퍼그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준일이는 경찰서에서
나왔다.

경찰서앞의 가로수밑에 서있는 인숙이를 보자 준
일이는 몸을 훔칠하며 한자리에 머물러섰다.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자기를 위해 수십번도 더
걸음을 걷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싸움판에 뛰어들고,
자기를 대변하여 경찰들앞에 정정당당하게 주권을
내세우고 그리고는 눈을 맞으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숙이를 보자 이그러졌던 그의 가슴속에서도
감동의 파도가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모양 그는 움
직일줄을 몰랐다.

인숙이는 아까부터 물에 적시여 들고있던 손수건
을 준일이앞에 내밀었다.

《얼굴을 닦으세요. 아직 피자욱이 그냥 남아있
어요.》

준일이는 초점을 잃은 눈길로 인숙이를 뻔히 지
켜보았다. 그 눈길에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사나
이의 그 어떤 웅심이 비껴있었다.

잠시후에 손수건을 받아든 준일이는 더는 인숙이
를 마주보기가 피로운듯 돌아섰다. 그리고는 가슴
속에 일어난 세찬 파도를 감당하기 어려운듯 넓은

두어깨를 추켜올리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자기를 등진 준일이가 얼굴을 닦을 때까지 기다린 인숙이는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왔다.
 인숙이는 동포가 경영하는 병원으로 준일이를 데리고 갔다.
 혹시 심한 뇌타박이라도 받지 않았는가 하여 의사에게 렌트겐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촬영결과 다행히도 심한 타격은 있었다.
 그제야 인숙이에게서는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이 나갔다.
 처치를 받고 붕대를 감은 준일이의 입원수속까지 끝내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피로움이 인숙이를 덮쳤다. 온몸이 쭈시고 아파났다.
 준일이를 구원해야 한다는 단 한가지 생각으로 싸움판에 뛰어들었을 때 놈들의 발길에 채인 아픔이 이제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인숙이는 이를 사려물고 육체적인 아픔을 정신적인 의지로 이겨내며 병원을 나갔다.
 소식을 알게 된 지부일군들과 인숙이네 청년학교 수강생들이 병문안을 위해 준일이를 찾아 병원으로 갔다.
 시간이 감에 따라 몸이 더욱 쭈시고 아팠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알수 없으나 몸을 운신할수가 없었다, 팔과 다리의 뼈마디들이 시큰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러나 인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의 한몸때문에 켜여들어가기 시작한 청년학교를 하루라도 쉬울수가 없었다.
 인숙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인숙이는 제시간에 지부사무소로 갔다.
 그리고는 아픔을 감추려고 애쓰며 수강생들이 기다리는 2층 강당으로 올라갔다.
 침착한 자세로 교탁앞에 서서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던 인숙이는 몸을 흠칫했다.
 수강생들의 맨 뒤좌석에 붕대를 감은 새 수강생이 한명 앉아있었던 것이다.
 인숙이는 두눈을 슴벅거렸다.
 그러나 얼굴에 가로세로 붕대를 감은 새 수강생은 분명 준일이였다.
 인숙이는 어떻게 수업을 시작하고 끝냈는지 알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자 수강생들은 돌아갔다.
 그러나 준일이만은 뿌리가 내린듯 엉거주춤 그 자리에 서있다.
 방안에는 그와 인숙이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인숙이는 천천히 준일이곁으로 다가갔다.

준일이는 앞에 온 인숙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인숙이는 같은 동포청년으로써, 청년학교 강사로서 준일이에게 우의를 보여주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한참뒤에야 갈린 음성으로 조용히 말했다.
 《준일동무 완쾌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병원에 서 나왔나요. 바람을 쐬여 상처가 더해지면 어쩔라구요.》
 이번에는 준일이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준일이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허아래소리를 했다.
 《인숙동무, 난 동무가 나때문에 얼마나 애쓰며 고생했다는걸 다 들었소.
 병문안 온 지부일군들과 수강생동무들한테서 다 들었소. 그리구 그들이 왜 나의 병문안을 오는지도 알았소. 그들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소.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걱정하여 병문안을 왔소. 한동포이고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이기때문에 그들은 이 못난놈을 걱정해서 찾아왔단말이요.
 인숙동무, 정말 고맙소.
 동무는 정말 내 길목을 지켜주었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내 평생 잊지 않겠소.》
 인숙이는 이런 때 준일이에게 무슨 말이든지 해주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인차 입이 열리지 않았다.
 또 한명의 조선청년이 자기의 길을 찾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 행복으로 목이 메어 말이 되지 않았다.
 인숙이는 가슴속의 충동을 간신히 달래고나서 말했다.
 《준일동무, 고마와요. 그런데 날 고맙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과 총련조직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선청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그분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총련조직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준일이는 고개를 쳐들고 강당정면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준일이를 굽어보고계시는듯싶었다.
 초상화를 우러르던 준일이는 마침내 고개를 푹 떨구며 흑 하고 흐느끼었다.
 인숙이는 세차게 물결치는 준일이의 넓은 잔등을 어루만져주고싶은 어머니다운 충동을 느끼며 또박 또박 말했다.
 《준일동무, 오늘의 이 밤을 영원히 잊지 말아요.》
 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한 분회장의 모습

리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올해를 총련 대오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총련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오는 5월 25일-총련결성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100일간집중행동》에 부끄럽지 않게 참가하고있는 한 분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지난 토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어느날처럼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뺄스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닫고 집안에 들어서자 올해 인민학교 1학년생인 막내딸이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항공편지를 내밀었다.

항공편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의아해졌다. 곁방에 썩여져있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주소를 몇번이고 몇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에서 총련 분회장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이였다.

나는 머리속에서 그 분회장의 이름을 뇌이며 맨 먼저 조선대학동창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총련 현본부위원장, 총련 지부위원장, 조선학교 교원, 상공회리사, 시인... 총련 분회장으로 일하고있는 조대동창은 없었다. 이어 초청에서 같이 일하던 동무들이며 고베조선중고급학교에서 같이 교단에 섰던 교원들을 더듬어보았다. 그들속에도 분회장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럼 혹시 우편통신원이 받을 사람을 헛갈리지 않았나 하고 받을 사람의 주소를 다시 보았다. 내앞으로 보내온 편지임은 틀림없었다.

(그럼 누굴까?...)

나는 책상앞에 앉아서 항공편지를 뜯었다. 봉투에서 여라문장이나 되는 편지와 사진 한장이 나왔다. 시원시원한 필 치로 쓴 분회장의 긴 편지를 읽었다.

어느덧 나의 눈앞에는 30년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맞이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을 무어주신 1955년 5월 25일이 어제일인듯 선히 밟혀왔다. 당시 나는 호로무이라는곳에서 토목로동을 하고있었는데 총련이 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새벽 호로무이에 사는 동포들과 같이 기차를 타고 총련 홋카이도본부에 있는 삿포로로 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본부청사 회의실에는 발뼘길틈 없을정

도로 도내동포들이 와있었다.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력사적인 총련결성을 축하하는 도내동포들의 모임이 오전에 끝났으나 동포들은 감격과 환희, 흥분으로 하여 헤어질줄 몰랐다.

밤이 이슬해서야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나의 앞좌석에 5월도 중순이 넘었는데도 개털모자를 겹숙이 쓴 로인이 앉았다. 그도 총련결성을 축하하는 모임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이였다.

《로인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그 로인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쏘련땅 하보마이란데가 육안으로 환히 바라보는 이놈의 섬나라 막바지 와까나이란데까지 가네. 자넨 ?...》

로인은 내가 권한 담배를 붙여물고 깊이 빨아들였다.

우리의 통성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로인은 갓 마흔을 넘은 로인 아닌 《로인》이었다. 날아가던 까마귀도 얼어서 떨어진다는 북극의 설풍이 휘몰아치는 일본의 최북단 막바지에서 사는 그는 일정한 일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슬하에 매달린 안해와 두 아들의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쉼없이 1년 삼백륙십오일을 거리에 나가 닥치는대로 일했다. 쪽배를 타고 명태잡이에 나갔다가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는바람에 물귀신이 될번한 일도 한두번만 겪지 않았다. 실은 거친 이국땅 거리에 내던져진 몸이였다.

기차가 호로무이역에 가까와오자 로인 아닌 《로인》-《와까나이로인》은 얼어서 터갈라진 뼈마디 굵은 손으로 나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힘있게 말했다.

《...여태 내 신세는 부평초신세였지. 안그렇나? 자네도 알지만 부평초란거야 논물이나 련못 같은데 떠돌아다니는 풀이 아inga, 얼핏 보긴 해파리같은기 그리 보기 흉한것 아이지. 자그만기... 그런데 그놈의 부평초란기 뿌리는 많지만 땅에 내리지 못해서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다간 죽고말지. 허나 뿌리를 땅에 든든히 박은것은 철이 오면 고운 꽃도 피우고 싱그러운 향기도 내뿜거든. 그러니 그놈의 향기를 맡고 온갖 벌들이며 술한 나비들이 날아오지 않나.

그런데 오늘 삿포로에 가서 총련결성 축하모임을 보니 이젠 나도 그놈의 부평초신세하고 영영 리별하고 뿌리를 깊이 박고 살게 됐네.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것도 조선사람 향기를 !》

《와까나이로인》이 눈에 함짝 고였던 이슬이 눈

별과 북극의 실한풍에 새까맣게 탄 골깊은 주름살이 잡힌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주름살을 타고 흐르는것이 아니라 마치 주름살을 퍼면서.

기차는 호로무이역에 도착했다.

《저는 내리겠습니다. 후에 와까나이에 찾아가겠습니다.》

《꼭 오게. 이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태 우리 집엔 우리 동포가 찾아온 일이 없네. 하긴 향기없는 부평초신세였으니...》

《와까나이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나의 등을 가볍게 툭 쳤다.

열차에서 내린 나는 개찰구쪽으로 걸어갈 념을 잊고 못박힌듯 역홈에 서서 밤의 어둠속으로 사라져가는 열차를 바라보았다.

나는 와까나이에 가보다가보다 하면서도 가지 못했다. 토목로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퍼그나 흘러서야 가보았다.

조선대학을 졸업하고 조청 혹가이드본부에서 사업하고있을 때 《와까나이로인》네 집을 찾아갔었다.

철은 5월이지만 와까나이의 5월의 바람-노사뽀꽃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랭기를 품고있었다.

《와까나이로인》네 집은 지붕이 뽀족한 단층집이었다. 지붕꼭대기에는 랑홍색 공화국기가 바다바람에 세차게 나뭇기고있었다. 방은 두칸이었는데 큰 방은 분회사무소로 쓰고 작은 방은 살림방으로 쓰고있었다. 그러니 분회사무소자 그의 집이라 해도 무방하였다.

《계십니까?》

나는 현관문을 열고 사람을 찾았다.

《네-》하는 소리가 방안에서 나더니 이내 치마저고리차림을 한 중년부인이 나왔다. 《와까나이로인》의 안해라는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내가 자기 소개를 하자 그는 남편한테서 자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방으로 안내했다.

방구석에 놓인 앉은뱅이책상앞에 앉아서 책을 보던 사내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꾸벅 절을 했다. 《와까나이로인》의 안해는 사내애에게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이르고 부엌에 내려가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산을 피웠다.

이윽고 사내나이를 앞세우고 《와까나이로인》이 왔다.

나는 그를 본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얼굴은 여전히 까맣으나 눈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못지않게 정기가 돌았고 그렇게도 많던 골깊은 주름살이 수태 없어졌다. 그리고 온몸에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패기가 넘치고있었다.

《그새 수태 늙으신줄 알았었는데 젊어졌습시다.》

《이래뵈두 분회장인데 늙으면 되겠소.》

《와까나이로인》은 온 얼굴에 웃음을 담고 나에게 담배를 권하고 자기도 피워물었다.

그는 담배를 몇모금 들이키고나서 채털이에다 비벼치고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 될 자네가 왜 이래 늦었소?》

나는 그새 조선대학에서 공부를 하느라 오지 못했으며 졸업한후 조청 도본부에서 일하고있다고 했다. 그러자 《와까나이로인》은 나의 손을 덥석 쥐었다. 몇해전, 열차칸에서 나의 손을 쥐던 그때처럼.

《장하우. 그러니 자넨 뿌리를 든든히 박은셈이군. 장해! 그런데 나는 아직 뿌릴 깊이 내리지 못했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분회장이란게 이제 겨우 신문을 뜯어볼 정도니깐. 관하구역이 넓고 동포들이 산지사방 흩어져사는 형편이니깐 힘이야 몇배 더 들지만... 어쨌든 다른 분회보다 어느모로 보나 뒤떨어졌거던. 분회사무소만 보아도 초라하지. 분회사무소란게 분회얼굴인데. 동포자녀들의 우리 조선학교 입학률을 보아도 다른 분회보다 앞서지 못했거던. 이게 다 분회장인 내탓이네. 그러니 아직도 모범분회칭호를 받지 못했네.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안된다구...》

《와까나이로인》의 안해가 상을 차리고 방에 올라오는통에 그는 하던 말을 끊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채 하지 못한 말을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그후 나는 《외까나이령감》을 만나지 못했다. 그해 겨울, 나는 조동되여 고베로 떠나갔으며 이어 귀국선을 타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겼다.

나는 30년전에 만났고 25년전에 헤어졌던 분회장-《와까나이로인》에게서 편지를 받을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다.

시원시원한 필치로 쓴 그의 편지는 《총련결성 3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100일간집중행동》을 힘있게 벌려 2중모범분회칭호를 쟁취한 분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조국통일을 비롯한 애국사업수행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릴 결의로 끝맺었다.

편지를 다 읽고난 다음 나는 사진을 들었다.

사진은 《와까나이로인》이 분회사무소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가슴우에 모시고 여섯하게 서있는 모습은 일흔넘은 로인이라고 볼수 없었다. 30년전보다 훨씬 젊어보였고 원기왕성 하였다. 분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회사무소는 단층이 아니라 아담한 2층집이었다. 옥상우 높이 솟은 공화국기발이 세차게 나뭇기고있었다.

나는 《와까나이로인》이 분회사무소를 떠먼 장수처럼 여겨졌다. 2층사무소가 아니라 3층, 아니 4층분회사무소라 할지라도 능히 떠메고나갈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의 눈앞에는 땅속깊이 뿌리내린 거목이 우뚝이 떠올랐다. 짙은 향기를 내뿜는 잎이 무성한 거목이!

봄날의 아름다운 화폭속에서

김창희

봄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벅찬 느낌으로 가득찰것이다.

한껏 부풀어오른 눈석이물에 들떠온 마지막 얼음장들이 부딪치고부딪치며 기슭으로 밀려들고 봄별이 함뿍 넘치는 푸른 하늘에서는 종다리의 울음소리가 끊어질듯 이어질듯 멀리 들린다. 푸른빛으로 단장하는 산과 들, 갓 베어놓은 수박에서 풍기는 향기마냥 신선한 봄의 대기...

상상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푸른 기운에 젖어들곤 했다.

하물며 봄의 훈기가 감도는 들판에 나선 지금에라!

나는 천천히 갈천벌을 걷고있다.

온 심혼을 봄날이 안겨주는 기본에 맡기고 봄에 취해보고싶은 심정이다. 풍요한 가을을 약속하는 이 드넓은 대지우에서 새로운 봄의 서정에 잠기고 봄풍경에 깃든 아름다움의 진가를 찾고싶다.

봄은 바야호로 갈천벌에 청신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린애 주먹같이 통통하니 부푼 버들개지가 아름아름 휘늘어진 버들방천에도, 애어린 잎새에 이슬을 꿰여들고 햇빛을 가닥가닥 비껴담으며 움터오른 강변의 잔디에도 봄기운이 완연했다.

봄노래를 읊조리며 홀려흐르는 시내를 따라 나는 봄을 찾아서, 봄의 아름다운 화폭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다.

《봄은 시내가에 먼저 찾아온대요. 어릴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결에서 걸던 나어린 처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 그때문에 강변을 따라 함께 걸자고 나를 이끌었구나.

참으로 영특한 처녀였다.

발깃한 두발, 갓 돌아난 새싹처럼 여리고 버들개지처럼 솜털이 보르르한 처녀, 그는 움트는 봄의 정경과 얼마나 자연스레 어울리는가.

나는 그 처녀를 방금전에 작업반실 앞마당에서 만났다. 작업반장은 취재나온 나를 안내하라고 처녀에게 당부했었다. 그는 농장원들속에서 《불독처녀》라고 불리우고있다. 모관관리를 하던 며칠전 어느날 밤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자 보온대책을 취하고도 안심치 않아서 불독을 달구어 모관 비닐박막속에 넣어주었다는 처녀였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봄의 안내자》인셈이다.

나어린 처녀는 나를 어디로 이끌가, 내가 안게 될 봄의 정서는 어떤것일가, 아름다운 화폭은 어디에 있을까?

은근한 기대와 호기심에 싸인 나를 이끌고 처녀는 춤추듯이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건는다.

아직 들꽃은 피지 않았는데 눈녹은 양지쪽의 냉이만이 봄별을 물고 늘어져있다. 그러나 무언가 모르게 봄의 정취가 시내가를 감돌고 그속에 잠겨 처녀는 걸어간다. 마치 시내물이 그의 뒤를 따라 춤추며 흐르는것 같다. 넓고넓은 갈천벌의 동쪽, 해님이 떠오르는 지평선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신비의 세계를 펼치고 처녀를 손짓해부르고있다. 종다리가 높이 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슬을 굴리는것 같은 소리는 지척에 들린다. 마치도 낮익은 처녀에게 새날의 인사를 건네는듯 했다.

처녀의 그윽한 눈가에는 가슴벅찬 환희를 앞େ 둔 때에 흔히 보게 되는 그런 기꺼움이 물결쳤다. 그의 미소는 봄풍경과 청신한 대기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것 같다.

마치도 처녀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봄풍경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같았다. 무슨 까닭일까...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버들개지를 어루만지며 나를 돌아본다.

《작가선생님은 언제 버들개지 망울이 잡히는지 아세요? 전 알고있어요. 늘 이 길로 출근했거든요. 강이 콩콩 얼어붙은 그때 벌써 망울이 잡힌답니다. 찬바람이 불면 당장 얼어버리는가싶다가도 해별이 조금만 부드러운지면 다시 파랗게 mim이 돌고...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령상모관의 어린 싹도 산에 눈이 쌓였던 그때부터 땅껍질을 떠들기 시작했을거예요. 저는 그것을 본것만 같아요. 움트는 소리도 들은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이 강변을 걸으면서 그걸 마음속에 그려보곤했는데 어찌나 그에 익숙해졌는지 금시 눈으로 본것처럼 됐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귀기울이면 령상모관에서 싹트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어요. 그답엔 안정을 잃어버렸지요. 근심스럽기도 하구 기쁘기도 하구... 아마 처음으로 모관관리를 맡아선지도 모르지요. 우리 어머니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첫애기를 키울 때도 그렇지는 않았다고 웃으시지요.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저는 대꾸를 못하고 웃어버렸답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더

군요. 이렇게 오늘을 기다렸답니다. 오늘은 모판에 싹이 돌아나왔을거예요. 작가선생님은 마침 오셨어요. 좀더 늦었더라면...》

나는 그저 놀랄뿐이다. 작년에 비할바없이 농사철이 앞당겨지는게 아닌가.

처녀는 작년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했는데 올해에는 더 크고 실한 모를 일찍 키워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더우기 올해는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경축하는 대축전장에 만풍년의 선물을 안고 들어서야 할 해이다. 그러니 농사철도 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단순한 그만큼 명백했다. 농장의 새 주인들만이 할수 있는 타산이며 확신이 아닐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뜻깊은 1985년을 우리 조국력사에 가장 빛나는 한해로 장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사로운 대축전장을 향하여 온 나라에 굵이쳐흐르는 충성의 대오속에 갈천벌의 주인들도 발걸음을 맞추고있는 것이다. 그러니 농장의 봄을 앞당겨 맞으려는 처녀의 마음도 이해파라 자별할 것이다.

우리는 시내가에 자리잡은 방풍장에 다달았다. 곳곳에 오색기발이 펠릭이고 농장원들의 활기찬 말소리가 들린다. 방풍장결에 세워놓은 긴 장대우에 매달린 바람개비가 빙빙 돌아간다. 풍속계였다. 그 밑에 설치된 백엽상, 우량계들과 지난 10년간의 모관리일지까지 보고나서 나는 이 애어린 처녀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미리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며 첫아기의 요람을 지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애지중지 모판에 정성을 쏟아부은 그 처녀의 확신에 나는 점점 깊이 끌려들어간다.

우리는 서로 숨을 죽인 가운데 분조에서 제일먼저 모판씨뿌리를 끝낸 《불돌처녀》의 모판에 싹이 움튼는가를 살폈다.

비닐박막을 떠들고 모판을 들여다보던 처녀의 얼굴은 갑자기 해쓱하니 질렸다. 그는 다급히 다음 모판으로 달려갔다. 여러 모판을 돌아보았으나 새싹은 보이지 않는다.

결에서 들여다보던 나까지도 절망에 찬 한숨을 토했다. 그러나 먼저 리성을 회복한것은 나였다.

이제 래일쯤엔 돌아날 것이다. 틀림없이 돌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싶었다.

《모는 오늘 꼭 나와야 합니다.》

처녀의 말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지나해보다 싹터오르는 날자를 퍼그나 앞당겨

예견한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오늘 꼭 새싹이 움튼것을 볼줄 알았어요. 우리는 싹트는 날자를 바로 오늘로 정해놓고 그에 맞는 온습도와 영양분을 충분히 보장해주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관리에서 뭔가 부족했던가봐요.》

처녀는 금시라도 울것처럼 서글퍼졌다. 그의 눈에 서렸던 생기는 자취없이 가셔진 듯했다.

나를 휩쌌던 봄날의 기꺼움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병풍장두리를 거니는 나의 걸음은 무겁기만하다. 처녀의 안타까운 마음의 여파가 내 가슴속에도 비쳐왔기때문이라.

나는 주위를 말없이 둘러본다.

내가 취하고싶었던 봄의 훈기는 어리로 갔는가, 들판의 아름다움은 빛을 잃은듯하다.

눈앞에는 다만 수심에 쌓인 처녀의 얼굴이 떠날 줄 모른다. 지워버릴래도 지워버릴수가 없다.

어떨가, 오늘저녁에라도 돌아날수 있잖을가.

나는 병풍장으로 찾아오는 기사장을 만났다.

《올해 추위는 마감까지 양탈을 부렸지요. 레년에 드문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꼭 오늘 돌아날것으로 믿었지요. 단순히 과학적인 타산에선가요? 그 과학의 주인인 모판관리공들의 마음과 정성을 믿었지요. 난 지금도 이걸 부정하고싶지 않습니다.》

기사장은 처녀결으로 다가가서 주의깊이 모판을 살핀다.

사위의 모든것은 숨을 죽인듯하다. 봄을 읊조리던 시내물소리도, 아득한 하늘가에 가득찼던 종달새의 노래소리도...

정적은 무엇을 기다리는것일까. 어디선가 우썹우썹 새싹이 돌아나는 소리가 방금, 방금이라도 들려올듯하다. 맑은 하늘가의 구름도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기다리는것만 같다.

《보여요, 새싹이 보여요!》

처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는 누를수 없는 흥분이 울린다.

《싹이 보여요. 파랗게 돌아났어요.》

나는 《불돌처녀》에게로 급히 다간다.

《자세히 살펴보니 글썽 방풍장결의 박막밑에 몇잎이 뽕뽕 돌아난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마음이 앞서서 급하게 살펴다니니 미처 보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덤뻤어요. 이렇게 파랗게 돌아났는데. 이처럼 파랗게...》

처녀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커다란 두눈엔 물기가 한가득 고였다.

모판 한쪽 가녁에 록보석 싸라기들을 뿌린듯 벼모가 점점이 움터올랐다.

홍조가 피어난 처녀의 두볼에는 기쁨의 눈물이

햇빛을 부시며 구울러내려 구슬처럼 맺혔다.

《됐어요. 아 이제 됐어요!...》

봄풍같은 기쁨이여! 봄의 환희여!

처녀는 방풍장을 나서서 들판으로 몇걸음 뛰어간다. 두팔을 벌리고 머리를 젖혀 마음껏 해살을 받으며 그자리에서 맴돈다.

처녀의 환희로운 목소리에 깨어난 들판의 갖가지 음향이 내 귀전을 울린다. 김이 물물나는 거름을 넘치게 싣고 들판을 달리는 트랙또르의 발동소리, 마감 토지정리를 다그치는 불도젤의 거세찬 동음, 모판을 떠나보낼듯한 모판관리공들의 웃음 소리! ...

그것은 정겨운 봄의 음향이었다.

방금전에 처녀를 따라 흘러가던 시내물소리가 아름다운 선물로 들려오는데 저멀리 산기슭에 늘어선 아카시아나무의 거뭇거뭇한 가지에도 푸른 빛이 감도는듯하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 생기에 넘치는 봄풍경은 조화를 이루며 대자연의 주인인 농장원처녀의 모습을 돋보이는데 바쳐진듯했다.

농장의 새봄을 마음속에 지녀왔고 그를 움티운 처녀는 진정 아름다운 봄의 화신이 아닌가.

나의 눈앞에는 동화속에, 옛 사람들의 기원속에

그려졌던 봄아씨가 서있는듯했다.

아, 처녀의 눈가에서 내비치는 미소는 어쩌면 저리도 황홀하고 환희로울가. 역시 봄에 대한 느낌은 봄을 앞당긴 사람에게 더 강렬한것으로, 더 아름다운것으로 안겨지는것이 아닐가. 처녀의 미소에는 봄풍경의 아름다움의 전부가 체현되어있는것 같다.

내가 찾던 대상, 내가 그리고싶었던것은 바로 방금전에 들길을 함께 걸어온 처녀에게 있었다. 봄풍경의 주인은 바로 그 처녀였다.

이 들판에서 맛보고싶었던 봄의 향기, 내가 찾던 봄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처녀의 희망에 젖은 미소에, 대축전장으로 달리는 그 마음속에 있었다! ...

검은 흙밭이 뒤번져진 아득한 벌에서는 그물그물 땅김이 피어오른다. 봄별은 따듯한 미소를 던지고 미풍은 가벼운 비단결처럼 나를 스쳐간다. 봄노래가 울리고 생의 활력이 가슴에 웅솟는다.

나날이 새롭게 채색되는 봄의 서정에 잠겨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알찬 이삭이 무겁게 드리울 가을을 약속하는 꿈만한 대지의 봄이여, 나는 너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 처녀에게로, 농장벌의 주인들의 세계에로 한걸음 두걸음 들어간다.

뜨거운 열, 밝은 빛

신지락

수수한 검은빛으로
지하천길 땅속에 묻혔다도
타면
뜨거운 열
밝은 빛

그 언제부터던가 탄아
어릴적 성미격한 나의 아버지
너를 많이 켜날이면 나를 안고
웃음도 많아지던 그때부턴지

내 제대배낭 멘채로 막장에 뛰어들어
한줌 높이 들고 웨치던
그 즉흥시에서부터 깊어졌던가
너와의 인연도

그 언제부터인지

내 미처 따로 생각 안해도
탄부들 나를 보면 아버지 닮았다고
설참이면 부자간의 이중창도 청해주는
그 흠없는 진정속에

탄아
내 노래도 너밖에 몰라
내 성미도 너처럼 속깊어
어느새 뻔수 없는 인연속에
당을 받드는 뜨거운 심장
빛나는 위훈의 삶을 지너

아, 탄아
내 날마다 너를 켜다만
너는 내 마음에도 지퍼주고있었구나
내 가슴속의 식지 않는 열도
내 삶의 영원한 빛발

검덕의 모습을...

리금녀

처음 올 땐
힘한 산세
시원한 물소리에
내 서둘러 역에서부터 만년필 들었네

다음 왔을 땐
장쾌한 발파소리
동화속의 날개차갈은 인차에 끌려
부지런히 원고지를 번져갔네

진달래 붉은
막장의 휴계실을 두고 한편
수직갱 석수에 어깨를 적시며
한편

친정집에 마음 달리는
집난어처럼
오고 또 오고
시를 쓰고 또 쓰건만

써놓으면 아니여서
써놓으면 검덕사람모습이
날을 따라 달라져서
모대기며 쳐다보나니

아, 내 그 언제면
그 숨결 그 열정 그 걸음
시줄마다에 담아서
검덕의 참모습 전할수 있을까!

출강의 기쁨

서진명

강밖에 나서니
마주웃는구나
하늘이
하늘의 별들이

하루일 넘쳐한 기쁨에
가슴부풀어
쇠돌 하나 쥐여들고
하늘을 쳐다보니

아, 은빛쇠돌을
광차의 흐름으로 안아낸

가슴가득한 이 기쁨
비껴담아선가

하늘도 온통
번쩍이는 쇠돌
쇠돌의 은빛 광채로 가득차
나를 보며 웃는듯

강구밖 하늘이여
하늘의 별들이여
너와 마주웃을 권리
정녕 내 홀로 지닌듯싶구나

지 름 길

정은섭

수송관작업조는 마을에서 삼십리나 떨어진 청루덕으로 옮겨갔다. 해발 1,200여미터가 넘는 청루덕은 깎아지른듯한 벼랑과 헤치기 힘든 잡관목들이 서로 엉킨 험한 산이었다. 그러나 산우에 오르면 놀랄 정도로 넓은 벌이 무연히 펼쳐져있다.

철쭉이며 두메양귀비들이나 자라던 이 덕우에 선광장건설이 벌어지면서 정광수송관부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수송관작업조장 지달혁은 공사지휘부로부터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음산한 아침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벌써 며칠째 그치지 않고 퍼붓는 비때문에 길은 온통 흙탕이 되고 미끄러워서 도저히 걸을수가 없었다.

작업조의 천막이 오백미터도 못미쳐있건만 그에게는 아득히 멀어보였다.

사나운 날씨, 흙탕길, 아픔이 벌게 받아안은 작업과제, 이 모든것들로 달혁은 가슴이 무겁고 숨이 가빠 온몸이 그대로 땅에 갇아드는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방금 지휘부회의에 참가했었다. 선광장제1계단공사가 두달이나 앞당겨 끝날것이 예견되자 뒤전에 밀리웠던 수송관건설이 이제는 앞자리에 나왔게 되었다. 하여 달혁이는 조원들을 휴게실로 지은 천막에 옮겨와 류숙하게 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모든 일손을 바짝 다그쳤다. 그런데 오가는 시간마저 잔치게 리용하는 지금에 와서도 생산실적은 별로 올라가지 못했다. 요즈음 런던 비까지 쏟아져 수송마저 난문제로 제기되었다. 달혁이는 참모부 일군들과 수송관건설의 일정을 따지면서 장마로 자동차에 의한 관수송이 곤란하게 된 조건을 걸고 로력때문에 오래동안 다름질을 했다. 그러나 참모부에서는 단 한사람의 로력도 더 줄수 없다고 딱 잘라버렸다.

《지동무, 동무네 사람이야 순 알짜배기가 아니요. 다른조에 비하면 다섯몫도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

참모부지도원이 안타까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그의 손을 잡았다. 달혁은 한숨을 길게 내뿜으며 지휘부의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밖은 칠혹같은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차갑고 탄탄한 비방울이 사정없이 얼굴을 후려치자 그는 달팽이처럼 문안으로 기어들어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

비발은 점점 세차지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설새없이 쏟아지는 비방울은 여기저기에 술한 물웅덩이를 만들어놓고 팔죽가마처럼 끓어번지게 했다.

달혁은 철덩이같이 무거운 진흙이 두텁게 달라붙은 신발을 간신히 옮겨놓으며 목안에 비물이 스며들지 않게 비옷깃을 꽁꽁 여며놓았다. 그러나 삽시에 비옷은 화락하니 젖어 어깨를 무겁게 누르며 목안으로 차거운 비물을 줄금줄금 부어넣었다.

달혁은 몸을 웅송그리며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기의 천막으로 헤엄치듯 한걸음 한걸음 힘겨웁게 걸어갔다. 문득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길옆 산아래로 눈길을 돌리었다. 사정없이 쏟아붓는 비발속에서 산을 뚫아오르는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니, 이런 사나운 날씨에 자동차길도 아닌 비탈길로 다니다니 ...)

그러나 그 사람은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잡관목을 헤치고 매끄러운 바위를 네발걸음으로 뚫아오르면서도 어찌나 빨리 걸음을 다그쳐대는지 잠깐 후에는 길우에 올라섰다. 그의 혈떡거리는 숨소리가 달혁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는 한동안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비옷에 달린 모자를 벗었다. 흰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는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얼굴을 문지르고 자기가 뚫고온 비탈길을 내려다보며 얼굴에 흐뭇한 미소까지 띄우는것이였다. 순간 달혁은 그만 그자라에 굳어지고말았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그의 작업조에서 일하는 정덕이였던것이다.

달혁은 정덕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동년배인 정덕은 그의 옆집에서 살고있었는데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였다.

집앞의 터밭머리에는 언젠가 앵두나무를 몇그루 심어놓았는데 온 집 애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극성스레 가꾸는지 여름한철엔 동전일만큼 큰 앵두가 가지가 휘게 열리곤하였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그 집을 《앵두집》이라고 즐겨부르곤하였다.

그러다보니 정덕이의 이름조차도 《앵두집아버지》, 《앵두집아저씨》로 통하곤하였다. 실로 《앵두집아버지》는 무사분주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일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도 가고 치와 함께 새 영화보러 회관에 가서도 언제나 앞좌석에 버젓이 앉기도 했다. 사십이 지났건만 건설사업소 축구조의 문지기였고 예술소조의 바이올린수이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과업을 주어도 언제 한번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달혁은 무슨 일이 제기되면 그의 얼굴부터 쳐다보곤하였다. 그

런데 사람이란 지내보아야 아는 모양이다. 작업장이 청루덕으로 옮겨지면서 달혁이의 그에 대한 관점은 전혀 달라졌다.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아담한 천막이 꾸려졌건만 그는 저녁이면 자기의 집을 찾아 마을로 내려가고 아침이면 제시간에 나타나곤 하였다.

《조장동무, 집에 …》

《아니, 또 내려갈려오?》

《네, 좀…》 정덕은 머뭇거렸다.

《임자 앵두집애빈 집에 끝단지를 묻어놓은 모양이지…》

작업조의 좌상아바이가 한마디 던지자 꺾다놓은 보리썩처럼 웅기증기 앉았던 조원들이 천막안에서 터지게 와그르르 웃음을 터쳤다. 그래도 정덕은 히죽이 웃으며 천막을 나섰다.

문밖으로 사라지는 정덕이를 결눈으로 쫓아 훑어보던 달혁은 《쳇 쳇》 하고 본때있게 혀를 찼다.

달혁은 정덕이가 며칠이 지나면 힘겨워서라도 천막에 그냥 눌러앉아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정덕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이면 비탈길로 집에 내려가고 아침이면 그길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피곤도 느끼지 않은듯 오히려 신이 나서 하루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정덕이가 처음으로 발자국을 땀 그 산비탈길이 자그마한 오솔길이 되었다. 오솔길은 선광장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길을 《앵두집길》이라고 불렀다.

《순애동무, 자동차가 가는데 마을로 같이가지 않겠소?》

《난 앵두집길로 가겠어요. 빨간 앵두나무가 멀리서 부르는 그길로 꽃이랑 꺾으면서…》

《그럼 나도 그길로 갈까…》

건설장의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 길이 정덕이가 처음으로 낸 오솔길이라는 것도, 그래서 《앵두집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의 정든 마을을 찾아 정덕이가 낸 그 지름길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달혁은 도대체 정덕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때문에 아담한 천막을 버리고 그 험투성이의 산을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도 마흔이 넘은 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가.

달혁은 오히려 한적한 천막이 더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는 안해의 시끄러운 지청구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담을 쌓고 조용히 일에만 파묻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에이, 이제야 40도 넘었는데 또 매련을 불라나? 뻘》

달혁은 천막으로 씨엉씨엉 걸어가는 정덕이의 뒤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간밤에도 그는 끝내 천막

을 버리고 자칫하면 천길벼랑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돌사태에 파묻힐 수도 있는 그 험한 길을 걸어 집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자정도 되기 전에 왜 돌아왔는지…

도대체 그 무엇이 그를 못건디게 집으로 끌어가는 것일까.

불시에 그는 가슴속에서 그 어떤 노여움이 옥치 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작업조의 어려운 과제를 불안고 힘겨웁게 비속을 뚫고 가는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그림자까지 쉼에 넣어도 말겨진 과제를 제기일 안에 하기가 바쁘는데 왕복 30리나 되는 그 험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처와 아이들에게만 마음을 쏟아붓는 정덕이가 패썹해나기까지 했다. 그가 천막앞에 이르렀을 때 언제나 쿵쿵 코고는 소리만 요란하던 천막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그의 걸음을 붙잡았다.

《그래 로친네가 날 찾아오겠다구, 허.》

만족한 듯 찔찔 웃는 좌상아바이의 목소리였다.

《임자가 겨울잠을 자는 꿈처럼 천막안에 꼭 박혀있으니 로친네가 오죽하겠나. 사랑 사랑해도 늘 그막 사랑에 당할데 없다는데…》 좌상아바이와 동년배인 덕구아바이의 말이었다. 또다시 천막안에 웃음이 터졌다.

《참, 진국동무의 안해가 초저녁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소.》

그러자 천막이 날아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영차!》 소리와 함께 천막지붕이 비탈을 뚫고 불룩불룩 솟아올랐다. 아마도 조원들이 진국이를 높이 들어올린 모양이었다.

달혁이의 뿔룩뿔룩 오르내리던 두볼에도 빙그레 웃음이 떠올랐다.

(그 친구 아들 쌍둥이를 보다니. 그처럼 딸만 주르르 내리날더니 끝내 아들을 보았구나.)

가슴속이 스르륵 풀리면서 무엇인가 한시름 놓이는 듯싶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알수 없는 우려가 머리속을 어지럽혔다.

(저 친구가 괜히 벌둥지를 쑤셔놓아 모두들 집에 내려가자고 하면 야단인데. 그러지 않아도 일이 촉나지 않고 수송이 딸린다고 두덜거리던 사람들이…)

천막안이 한동안은 조용한 듯하더니 또다시 정덕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선광장1제딘공사가 두달이나 앞당겨진다는구만. 그래서 정광수송관부설이 일정에 올랐다고. 아마 조장동무가 큰 과업을 안고 올거요.》

정덕이의 말에 달혁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집에 폭 빠져돌아가는 주제에 마치나 자기가 정광수송관부설을 제일 관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소로웠다.

《그래요?! 온몸이 근질근질하더니 그럼 이제는 한바탕 조겨대게 뵈구만.》

《우리 작업조에 경사가 났소. 쌍둥이 아들이 생

졌겠다 한번 해볼만한 일감이 생겼겠다 얼마나 좋소.》

천막안은 그대로 부글부글 끓는듯싶었다. 매일 초저녁부터 끓아떨어지던 사람들이 오늘은 잠마저 잊어버린것 같았다. 모두 성수가 나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귀전에 울려왔건만 달혁은 쓴입만 다시였다.

(장마때문에 자동차로 관수송이 곤란하다는것을 알거나 하는지. 그 판을 메어나르자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들여야 하는가를 내 이제 알려줘야지.) 아침체기가 울리미는듯하여 속이 답답해난 그는 천막 출입문의 문고리를 덜컥 잡았다.

땡 땡.

열한시를 알리는 시계종소리가 시름없이 울려왔다.

×

주절주절 내리는 비는 검질기게도 그칠줄 몰랐다. 온 하루 비속에서 마지막 정리작업을 끝냈지만 수송관을 실은 자동차는 저녁녘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들 속이 달아 툄들때면서 찌뿌둥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푸념들을 늘어놓는다.

《에이 어쩌겠나 하늘의 조환결. 아직 며칠이 남았는데 너무...》

좌상아바이가 조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듯 늘쩍늘쩍 한마디 던졌다.

《뭘라고요? 원 어느때게... 무슨 방도를 찾아야지 ...》

《하 그 사람 누군 방도를 찾기 싫어 가만 있는 줄 아나? 허참.》

정덕이의 말을 중도에서 툄 꺾어버리는 달혁이의 짜증섞인 면박에 조원들은 입들을 꼭 다물고 저마끔 훌어져가버린다.

지휘부에서 하루총화사업을 끝낸 달혁이는 조급해지는 걸음을 헤집으며 천막앞에 이르렀다. 순간 야릇한 정적이 깃든 천막앞에 걸음을 멈추고 덜컥 문을 제켰다.

《에이 내 이럴줄 알았어...》

땡그렇게 빈 천막안에는 돌돌 개여놓은 주인없는 이불들이 줄쳐앉았는데 천막중심에는 앉은뱅이 책상이 오흑 나앉아 주인행세를 하는듯싶었다.

(에이 앵두집인지 뭔지... 흥 쿵)

욕지거리를 해대며 달혁이는 책상우의 종이장을 집어들었다.

《...조장동무, 기다리다 못해 마을로 내리갑시다. 무슨 방도도 찾을겸...》

《말은 좋다. 방도... 네넨네들의 치마자락에 감겨돌 생각이 그리 급해서 돌아가는주체에 구실은 좋아...》

그는 평생고질이 된 코방귀굴 연해연방 불어대며 웃을 입은 채로 자리에 덜렁 드러누웠다. 알수없는 허전함이 가슴속에 갈마들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바람이 나서 마을로

갔을가? 글썄 쌍둥이 애비는 쌍둥이 보려 간다치구 두 참 덕구아바이까지도... 그 시간이면 푹 한잠 싹껏 잘것이지. 그런데 그 정덕이란 사람은 그 먼길을 오르내리면서도 왜서 피곤해하지 않는지... 조화는 조화다. 무슨 힘이 그를 잡아끄는지...)

이렇게 생각을 굴리는 달혁은 저도 몰래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천막을 나서 얼마까지 않으니 어둠속에서도 희끄무레한 지름길이 보였다. 지름길 어구에 이른 그는 새삼스레 안해와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원 이런 바보라구야. 허)

이렇게 제절로 푸념을 늘어놓는 그의 귀전에는 언젠가 무심중에 들은 처녀총각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순애동무, 자동차가 가는데 마을로 같이가지 않겠소?》

《난 앵두집길로 갈래요...》

《그럼 나도 앵두집길로 갈가...》 ...

《에라 나도 한번 이길루 가보자》

달혁은 그 처녀총각의 뒤나 따르듯 혼자 중얼거리며 지름길에 들어섰다.

실로 지름길이 지름길이었다.

곳은비로 하여 미끄럽기는 해도 길옆에 나무 넉출들을 잡을수 있어 넘어질 우려도 없고 더구나 내리막이라 아이들이 스키를 타는것처럼 나는듯 빨랐다.

(참 사람도 극성스럽지. 얼마나 집에 가고싶으면 이런 길을 만들어놓았을가) 하여튼 처음걸는 길이지만 조금도 생소하지 않고 친근해지는게 이상하였다.

어느덧 줄쳐선 마을의 집집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그의 눈앞에 달려왔다. 번잡한 거리의 소음도 들끓는 체취도 온몸에 느껴졌다.

가두 고성기에서 울리는 경쾌한 노래소리,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목소리, 불밝은 집집의 창가에 활짝핀 화분의 꽃, 터져오르는 웃음소리... 여직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생활이 여기서 약동하고있는게 아닌가.

달혁이는 집문앞에 이르자 가슴이 울렁거려왔다. 이제 곧 안해와 아이들이 와 달려나와 품에 안기고 다리에 매여달리며 반기리라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흐뭇했다.

그는 서둘러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섰다. 안개가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썰렁했다. 그런데 빠끔히 열린 방문으로 바이올린의 명랑한 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순간 달혁은 청루덕의 천막으로 올라가기 전날에 바이올린을 구해달라고 조르던 막내딸의 애원이 어렸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달혁은 시끄러운듯 팔애를 밀어버렸다. 옆에 앉아있던 정덕이가 멋지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팔애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

아이들이 인기척을 느꼈던지 방문을 열고 쪼르르

달려나왔다.

《아버지!》

막내딸이 한손에 바이올린을 전체 해죽해죽 웃으며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이거 누가 사줬니?》

달혁은 딸애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물었다.

《앵두집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뭐라구?! 그럼 정덕이가...》

달혁은 너무도 큰 충격에 숨이 꺾 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바이올린을 만지고 또 만져보았다. 어찌나 닥달을 냈는지 불빛에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그는 딸애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고 밖으로 나왔다. 딸애에게 그리고 정덕에게 그 무슨 죄를 지은것 같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정덕이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정덕이네 집마당에 이르렀을 때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막내이가 아버지의 무릎에 앉고 그옆에 그의 안해가 정겨운 눈매로 정덕이를 바라보며 첫째와 둘째가 나란히 서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있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환히 들여다보였다.

문득 달혁이의 눈길은 한곳에서 벗어나버렸다. 저쪽 방안의 구석에서 자기의 안해가 부러운 눈길로 정덕이네 가정의 단란한 그 모습을 쳐다보고있었다.

달혁은 삽시에 쓰러오는 가슴을 부여안고 창황히 마당에서 물러났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 무엇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망연히 깨달았다.

《아니, 조장동무가 오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린 인차 올라가려고 했는데.》

난데없는 말소리에 달혁은 정신이 팔쩍들었다. 허겁지겁 달려온곳은 정덕이네 발머리 앵두나무앞이었다. 창가에서 흘러나온 불빛에 잘 익은 앵두들이 빨간 불들을 방실거리며 웃는 모양이 보였다. 앵두나무밑엔 바로 조원 진국이가 멍실거리며 서있었다. 언제나 말수 적고 흐린날같이 찌뿌둥하던 그의 얼굴엔 웃음기가 번뜩이고있었다.

《저 조장동무, 방금 우리는 정덕이의 말들을 듣고 생각해보았는데 될것 같습니다. 저 창고장하는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데 창고에 와야로쁘가 있답니다.》

《여, 뭐가 된단말인가? 영?》

《야, 조장동무, 저 앵두집길에 와야로쁘를 대고 잉그라잉차를 가설해서 저 수송관을 올리면...》

《아니 뭐요? 그래, 그래.》

(와야로쁘, 잉그라잉차, 수송관... 잉그라잉차, 수송관...앵두집길...)

달혁이 머리속에서 방금 들은 말들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달혁이는 설새없이 가능성을 타산해보았

다. 수송관의 위치와 앵두집길의 위치.아, 정말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두 달이 아니라 며칠사이에 해지울수 있지 않는가?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덕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는가. 이렇게 간단히 풀릴걸...)

숨이 차올랐다. 비바람도 어느덧 멈췄지만 그는 그것도 감촉하지 못하고 벗겨지려는 비옷모자를 꼭 잡아 눌러썼다.

달혁이는 진국이가 옆에 있는것도 잊고서 성큼성큼 걸음을 땀다.

(빨리 가자, 지휘부에 가서 방법을 토의하자. 래일로 인차...)

《조장동무, 들어가자요. 저 정덕이네 집에 이제 조원들이 모여올거예요.》

《오 알겠네. 그럼 생각들을 잘해서 래일 올라와 토론해보세. 래일 인차...》

《알았습니다. 조장동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시다.》

진국이는 언젠가 병사시절이 돌아온것처럼 거수 경례를 해대고는 환성을 울리며 달려갔다.

달혁이는 달려가는 그의 뒤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서 천천히 머리를 돌려 지금쯤은 동무들이 모여들어 웃고 떠들창문을 바라보았다.

바로 저 불빛밖은 청가, 안해의 정겨운 눈길과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웃음, 바로 거기에서 정덕이가 매일 오르고 내린 지름길도, 잉그라잉차의 새로운 발길도 태어난것이 아닌가!

비옥한 토양을 떠나서 훌륭한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굶이 없는 생활속에서 어찌 기적과 용맹이 창조되랴.

(아,나는 어떤 인간이였던가, 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모든것이 갖추어진 그속에서도 나는 그것과 담을 쌓은 메마른 인간이 아니였던가!)

희푸름히 개인 하늘가에 머리없는 조각달이 오래간만에 찾아온 부끄러움에 얼굴 붉히며 빠끔히 머리를 내민다.

달혁은 달빛속에 우렁이 안겨오는 정광수송관이 방불히 보이는듯하여 멀리 뻗은 산비탈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정덕이가 처음으로 발자국을 찍은 그 비탈길우에 광산마을과 선광장으로 오가는 지름길로 된 그 《앵두집길》우에 은빛으로 번쩍이며 장엄하게 놓여있지 않는가!

《앵두집길》, 그것은 마치도 달혁이를 생활에로 부르는 지름길마냥 그를 부른다.

생활을 사랑하라!

달혁이는 이제부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곰곰히 생각하며 걸음을 재우쳤다.

검덕의 시간

송수관

사람들은 흔히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간다고 말한다. 그 흘러가는 시간과 더불어 검덕골에서의 광산 개발력사도 500여년이라는 세월을 헤아린다. 하지만 검덕사람들의 시간이 오늘처럼 즐기치게 앞당겨지면서 사품치는 격류처럼 흘러간적이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대규모광산들과 중소규모광산들을 적극 개발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검덕광산은 날마다 새로운 비약이 나래친다.

나는 요즘 격류처럼 흐른 검덕의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다는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얼마전에 3대혁명붉은기 4.5강을 찾았던 나는 뜻밖의 일에 부딪치게 되었다. 막장속보관앞에서는 갱속보원청년이 흥분에 들뜬 기분으로 긴머리카락을 연신 쓸어넘기면서 대서특필을 하고있었다. 4.5강 청년채광소대원들이 한교대시간동안의 광석생산계획을 거의 두배나 해제켰다는것이였다. 속보글을 읽는 광부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고 4.5강 청년채광소대원들은 싱글벙글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런데 이때 막장을 쩡 울리는 호령소리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속보를 쓰지 말라구!》

모두가 어안이 빙빙하여 다가오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어깨가 짝 버그러진 공훈광부 강아바이였다.

《속보원, 채굴장에 올라가보니 광석을 더 켤수있었네, 헌데 그것밖에 못했거든, 자만이지, 자만이야!》

나는 놀랐다. 청년소대원들이 거둔 지금의 혁신적성도가 적당할인가! 물론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것은 좋지만 평가에 린색하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속보원청년은 공훈광부의 심중을 헤아려서인지 빙그레 웃으며 타협조로 말하였다.

《아바이심정은 알만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에 해놓은 일인데 다음교대에 더 봉창을 할셈치고 크게 소개합니다.》

갑자기 아바이는 그 무엇에 찔린듯 아픔을 참는듯 기름한 얼굴이 이그러졌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구?! 우리에게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네. 검덕사람들은 늘 시간을 앞당겨오지 않았다. 다음 교대에 미를바에야 속보는 써서 뭘하겠나. 우리한테 필요한것은 충성으로 빛나는 시간뿐일세.》

아바이의 말을 새겨듣는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골고루 다같이 차례지지만 그것을 빛내이는데는 서로 다르네.》

자네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광산을 찾아주신 그 7월에 광부가 된 사람들이야, 그 여름날의 하루의 시간은 짧았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검덕사람들에게 오늘을 다 주시였고 먼 래일까지다 안겨주셨네. 그 사랑속에 살면서도 오늘의 성과에 만족해서 더 할일을 못하다니... 바로 래일을 안고 살아야 할 우리가 아닌가.》

순간 나는 몽클해오는 심정을 어쩔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감격은 금시 새롭게만 안겨오는 1975년 7월 1일, 검덕광산을 굴지의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꾸리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마천령의 험한 길을 헤치시고 금굴을 찾아주신 력사의 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날 오시는 그 걸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든 일터부터 찾으시면서 우리모두에게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천리 먼 로정의 피로를 푸실 그 짧은 시간마저도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쫓겨나가시기 위하여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사람들마다감격을 금치못하는데 그이께서는 4.5강의 20리지하막장을 찾으시고 광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산에서 오래동안 모대기던 운광문제를 풀기 위해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놓을데 대한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추켜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광부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산이 치솟아 골이 좁은 검덕에서 사는 광부들의 생활상 불편을 세세히 헤아려보시면서 별방 부럽지 않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방도를 따듯이 가르쳐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동해바다가의 물고기도 물이 날

세라, 서해 백리벌의 겨울남새도 한일 상할세라 직통렬차로 보내주시도록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우리 광부들은 즐기게 일떠선 고층 아파트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고있을뿐아니라 태양등이 빛을 뿌리는 막장에서 대형기계군단을 거느리고 천년 잠든 암벽을 허물어내린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 규모와 웅장화려함이 손색이 없을 노동자문화회관에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사는 우리 광 부들이다.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름날의 그 하루의 시간속에서 검덕의 생산규모와 발전의 먼 장래를 안아오시였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던것이다. 공훈광부아바의 말은 끝없는 생각으로 나를 끌어갔다.

《명심들 하라구,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힘이 최대한으로 바쳐지지 않는 시간은 당과 조국에 바치는 우리 인민의 가장 깨끗한 충성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시간이란걸 알아야 하네.》

이것이였다. 맞고 보내는 분과 초에 달과 해를 엮으려는 검덕사람들의 그 불타는 열망과 지향이 있

기에 그들의 시간흐름에 대한 개념은 산수학적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쁨속에, 인민의 행복속에 남는 순간순간의 시간은 영원히 빛난다는것이 바로 검덕의 시간계산법인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검덕의 시간은 《80년대속도》를 안아온것이며 조국의 기억속에, 력사의 순간순간에 가장 빛나게 남는것이라 !

정녕 돌이켜보면 한순간의 휴식마저도 뒤로 미루시고 그 시간을 광부들을 위해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속에 앞당겨지는 충성의 시간들이 그 얼마나 많이 빛나는것인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은 시간을 담아시고 저 은룡덕우에 제3선광장이 높이 솟아 빛나는것이다. 검덕은 바로 이런 시간을 안고 영원히 온 나라의 앞장에 서서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며 먼 앞날에서 늘 사는것이라. 나는 세찬 충격으로 가슴부풀며 청년소대원들과 함께 채광장으로 올랐다.

미구에 소개될 새로운 혁신에 담을 검덕의 시간을 그리면서...

그 심장의 불길로

김송남

소나기나 폭포수나
 내려붓는 석수속에
 지심천길 뚫고 내리는
 수갱 굴하장은 물바다 물세계

후렁후렁한 고무비옷
 다 젖어들어도
 어서 또 한발과 불을 달아야지
 착암수의 심장에도 불
 착암기 정끝에도 불

물도 태우며
 돌도 녹이며
 막장 가득히 타오르누나
 광석으로 조국을 만들 그 생각
 당중앙의 그 뜻을 꽃피울 생각

마음속엔 벌써 빛발쳐오는
 150만톤 은금의 광채
 그 한아름만 안아올려도

하늘을 덮는 무지개 되리라고
 땅을 덮는 꽃바다 되리라고

그 시각을 짊어가는 기쁨인가
 달아오른 착암기
 동음은 소리소리 발부리를 흔들고
 부딪치는 불과 물
 섬광은 번쩍이며 바위를 쪼개는듯

아, 석수 아니쏟아진다면
 심장의 뜨거움 어이 다 알라
 수직갱 아득히 깊지 않다면
 끊어 가슴속에 솟구치는것
 어디에 다 쏟으랴

그 심장의 불길로
 너는 열고있구나
 새 채광장 천리지경을
 보석의 별무리 총총한
 막장의 새로운 하늘을

령길을 따라

석유균

런런히 뻗어간 산밭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굽이굽이 흘러내린 령길을 따라 한 사나이가 자전거를 몰아가고있다. 그가 바로 고현광산의 책임기사 김정준이었다.

30리길을 단숨에 가델 생각이였으나 고개를 두개 넘고나니 어지간히 그도 숨이 가빠졌다.

온몸이 땀에 폭 젖은 그는 초조감에 사로잡혔다.

몇달전부터 고대하던 사깁벨트콘베아를 2~3일 안에 내려보낸다는 총국의 지령을 어제 받자 도대체 앉아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벨트콘베아로 광석을 폭포처럼 나른다는 명덕광산에 가있었다. 래일 아침빠스를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이 그는 일요일이지만 길을 떠났던것이다.

아아히 막아선 산밭에 가리워 긴 여름해도 꼬리를 사렸건만 어쩐지 바람한점 일지 않았다. 자전거의 발디디개에 힘을 주는 경준에게는 땀흐르는 몸보다 마음이 더 달아올랐다.

새로 개발된 청년갱으로 자리를 옮긴 그에게는 요즘 뜻밖의 일이 자주 제기되군하였다. 그때마다 경준은 10여년 광산기사로 일해오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자신을 놀랍게 지켜보군하였다. 그로 하여 때없이 갈마드는 자기 볼만때문에 초조해지는 마음처럼 일손이 거칠어지고 누구에게라 할것 없이 어성을 높이는 때가 드문하였다. 하긴 새 설비만 들어오면 생산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될것이며 마음도 안정을 되찾게 될것이라고 은연중 스스로 위안해보기도 하였다. 하기에 그는 다급해진 마음처럼 길을 재촉했던것이다.

썩-어느덧 산골물이 줄기차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북대천이 가까워졌던것이다. 아니나 다를가 얼마 지나서 가로 질려간 큰길에 《연봉-6Km》 《명덕-4Km》라고 쓴 이정표가 나졌다. 명덕쪽으로 방향을 돌리던 경준은 멈칫해졌다. 길가에 자전거만 한대 멍그렇게 세워졌던것이다.

주인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경준은 인기척에 끌려 북대천을 데려다보았다.

흰 남방샤쓰에 새 농립모까지 시원하게 쓴 웬 사람의 손에서 무엇인가 큰놈이 푸들쩍거리었다. 어둡기전엔 명덕까지 가델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경준은 땀도 들일겸 호기심에 끌려 북대천기

슌으로 내려갔다.

《고기가 잘 잡힙니까?》

《아니요, 잡아온 고기를 살궂놓느라구요.》

원살나마 돼보이는 건장한 사람이 돌우에 걸터 앉은채 이쪽을 돌아보았다. 다가가보니 돌로 막아놓은 작은 물굽에 팔뚝시같은 가물치 세마리가 숨가쁘게 아가미를 헐썩거리고있었다. 이런 산골에서는 쉽지 않는 가물치였다.

《에크 꽤 큰놈이군, 어디서 잡았습니까?》

《연봉저수지에서 낚았지요.》 점차 유유히 꼬리치는 가물치를 흐뭇이 내려다보던 그는 제자랑처럼 한마디 보탰다.

《젊은이들이야 대낙을 부지런히 들었다놔두 잔고기나 건져내지요, 우리처럼 주낙을 깊숙이 넣어놔야 이런놈이 걸려든다니까요.》

관록있는 낚시군답게 한마디 비쳐보이는 그의 말에 경준은 귀가 솔깃해졌다.

오늘아침 오래간만에 친구를 찾아가간 아버지는 송아지적시절에 즐기던 낚시질을 떠났다는것이다. 잉어며 붕어, 누치를 퍼그나 잡긴 했어도 해가 기울어져서야 이런 횡재를 하게 되었다.

《제법 꼬리치는걸 보니 살겠습시다. 저걸 회쳐놓고 한잔 했으면...》 경준은 저도 모르게 군침까지 꿀꺽 삼켰다.

《그러지않아두 그 친구 지금 회를 친다 어죽을 쓴다 야단일겁니다. 몸보신하는데 좋다가에 이놈이 욕심이 나서... 그렇게 붙잡는걸 떠나지 않았소.》

경준은 저도 모르게 이마를 찼다.

(못가에서 어죽을 쑤어먹는 그 별미를 무엇에 비길라구, 그보다 낚시질군이라면야 이제부터 저녁먹이를 찾아다니는 고기를 낚는 그 좋은 기회를 버리다니. 아뿔싸 욕심이 지나치다보니 그 재미를 다 잃었군.) 경준은 아쉬운 심정을 금치 못해 다시금 그를 흘끔 쳐다보았다. 관골이 두드러진 얼굴에 주름이 깊숙이 패이기는 했어도 긴 눈섭아래 온건한 정이 흐르는 눈빛을 보면 물욕이 있는 사람같진 않았다.

하긴 산골사람이라면 이런 가물치를 탐낼만도 하지, 하고 경준은 너그럽게 생각했다. 했으나 찬물에 기운이 회복되어 용를 쓰는 가물치를 물에 적신

쑥에다 정성스레 짜고 또 짜는 그 품이 어찌 보면
《구두쇠령감》처럼 여겨졌다.

찬물에 시원하게 세수를 하고 발까지 씻고나니
땀이 쑥 잦아들었다. 몸이 가쁜해진 경준은 한결 가
벼워진 마음으로 길떠날 차비를 했다.

《아버이두 명덕으로 가십니까?》

제 속심만 차리는것같긴 해도 그 역시 나이탓이
라고 너그럽게 생각한 경준은 마흔을 멀리 바라보
는 자기로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예. 손님두 그쪽으로 가시우?》

자전거뒤에 고기다래끼를 든듯히 매놓던 그는 기
대어린 눈길을 주었다.

《예, 광산에 불일이 있어서요.》

《그 참 잘됐수다. 나두 그 광산에 있다우.》

《여기 태생입니까?》

《고향이야 연봉이지요. 그래두 이 광산에 제대
배낭을 풀어놓은지도 이젠 20년이 넘지요.》

《그래요!》

경준은 본능적으로 존경어린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보니 광산에서 오래 일한 사람답게 온몸이
돌처럼 단단하게 돌려뻗었다는것을 새삼스레 느꼈
다.

그들은 나란히 자전거를 몰아갔다.

《그만하면 난 오늘 운수가 좋수다.

고기를 낚는데다가 길동무까지 생겼으니말이요.
헌데 손님은 남 다 즐기는 일요일에 무슨 일로 우
리 광산을 찾으시우?》

《명덕광산에선 콘베아가 은을 낸다기에 좋은 경
험을 들으려 갑니다.》

대답을 하고보니 한다 하는 광산기계기사로서 조
언을 청하러 간다는것이 쑥스러워 경준은 입을 다
물었다. 허나 아버이가 끈끈히 묻는바람에 그는 본
의 아니게 길떠나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
게 되었다. 청년갱이 개발되면서 사방에서 광석이
쏟아져나와 일이 점점 벽차졌다. 그중에도 제일 난
문제가 운광이었다. 명덕광산에서 이미 지난날 예
사갱벨트콘베아를 농자부터 광석운반이 풀렸다는
소문을 듣고 구미가 버쩍 동했었다. 더구나 그런 대
형설비를 지난해 착암대차개조안 도입때문에 자기
를 찾아왔던 대학을 갓 나온 영식기사가 말아하였
다는것을 알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조립도면을 연구하면서 수백미터에 달하는 거물
을 드림없이 설치한다는것이 조련치 않다는것을 알
고도 남음이 있는 그였다.

당장 목이 멘 운광부터 한시바삐 풀어야겠다는
욕망으로 설비가 도착하기전에 영식기사의 경험을
듣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것이다.

《알고보니 고현광산 책임기사동무군요. 이거 참
반갑습니다.》

아버이가 마치 오랜 지기처럼 반갑게 웃으며 인
사를 건네는바람에 경준은 눈이 커졌다.

《아버이가 어떻게 절 압니까?》

《나두 영식기사와 함께 일하지요, 우리 기사동
무한테서 다 들었수다. 제일처럼 각근히 도와주었
다구요...》

《저야 뭐... 배울 사람이 애쨌지요.》

《하여튼 책임기사동무기술이 보통아닙니다. 어
찌문 그런 묘한 생각을 했수! 지금두 그놈의 대차
가 용을 쓸 땐 책임 기사동무이야길 한답니다. 그덕
을 톡톡히 보면서두 인사가 늦어서 안됐수다.》

아버이의 진정어린 인사치레에 경준은 그만 웅색
해질 지경이었다. 아니, 그 너그러움에 감복된 나며
지 마음까지 허심해졌다.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요즘은 되려 일이 배차
져서 잠이 다 안오는데요.》

령길이 나지자 그들은 자전거에서 내려 나란히
걸었다. 초면이지만 오랜 광부라는 믿음으로 해서
경준은 안타까운 심정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신설갱이다보니 불비한 점도 많고 게다가 일손도
팔리고 설비도 부족하였다. 그중에도 신설갱에서
제기될수 있는 복잡한 문제도 능숙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는 유능한 기술일군이 적은것이 제일 큰 애로
다. 대학을 갓 졸업한 세명의 기사가 새로 배치되어
왔지만 그들에게 선뜻 일을 맡기기가 저어되었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혼자 안고 뛰여 다니다보니
마음만 더 초조해졌다.

《그래두 기술이 능한 책임기사동무를 믿구 맡긴
게 아니겠수.》

《생각과는 달리 일이 점점 더 배차지는것 같습
니다. 한동안 채광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게 좀 풀
리니 이번엔 운광까지 목이 메와서...일이 자꾸 겹
칩니다. 아무래두 그 아름다운 일을 해내기엔 제 능력
이 따라서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며 아버이는 이윽히 생
각에 잠겼다. 령길구배가 가파로와지자 퍼그나 힘
들어하는 아버이를 생각하여 경준은 그와 자전거를
나란히 세우며 지그시 밀었다. 급한 고배를 넘어선
아버이는 경준을 돌아보며 히죽이 웃음을 지었다.

《이젠 나이탓인지 이 구배에선 다리가 빠근해지
거던요. 허허...기사동무가 밀어준 덕에 한결 수월
히 올라왔수다.》

《웬걸요. 마음뿐이지 제야 뭐...》

《마음이 천냥 찐다질 않수. 힘든 때일수록 의지
하고싶은게 사람마음이구 마음에 의지가 생기면 그
게 다 힘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이 두

터워진다고 하지 않수.»

경준은 아바이가 구수하게 섬기는 말을 허거프게 웃어넘겼다.

《허허…헌데 어디 손발이 맞아돌아가야지요.》

《우리두 영식기사가 주동이 돼서 콘베아를 제때에 났으니망정이지…》

남을 칭찬하는데 습관된 사람들이 함용 그러하듯이 아바이는 눈귀에 잔주름을 그리며 영식기사가 설비조립을 열흘 앞당겨 끝내고 처음부터 만부하를 걸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경준에게는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다. 다른것이라면 몰라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광산기계라면 그로서는 자기의 기술과 경험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경준은 흥이 나서 말하는 아바이를 새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광산에서 오래 일했다니 동발공이나 로동안전원을 하리라고 단정했으나 기계속이 밝은것을 보면 필경 아바이는 수리공이 아니면 설비관리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든 아바이의 그 자랑속에는 오히려 제사람을 위하려는 성실한 인간의 따뜻한 인간미가 흘렀다.

하긴 이제 와서 무슨 일을 보느냐고 묻는다는것이 오히려 실례가 된다고 경준은 속단했다. 어쨌든 별치 않는 일로 아바이의 말을 토막내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경준은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자기의 진정을 스스로 내비치었다.

《아바인 그저 제 아들처럼 자랑만 합니다.》

웃음과 이야기속에 곁음이 떠진다는것을 경준은 미처 느끼지 못하였다.

《난 멀었수다. 제 자식이면 아직 합숙생활을 시키겠소… 우리끼리니말이지 구태여 우리 기사동무의 흠을 끄집어낸다면 도대체 제 생각은 밀어놓는 것이라우. 일이 아니면 책이지요…》

그러니 사람몸이 철덩이가 아닌이상 견뎌내겠수? 별루 건강체두 아닌데, 그래서 콘베아를 돌려놓군 억지루 휴양권을 쥐여 보냈수다. 몸도 추세울겁, 나이 서른이 다됐는데 눈에 맞는 처녀라두 고를가 해서요. 말이야 바른대루 휴양오는 처녀라면 일 잘하는 혁신자일거구 사람 아낄줄도 아는 착실한 살림꾼이 아니겠소?》

《허허 님두 불겅 뿡두 딸겅 참 신통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휴양소에서 돌아오지 않았겠군요?》

경준은 은연중 걱정이 앞서 다그쳐물었다. 했으나 아바이는 입맛만 다시었다.

《걱정마시우… 떠난지 닳새만에 덜컥 그가 갯에 다시 나타나질 않았겠수.》

《저런?》 경준이도 눈이 커졌다.

《휴양소에서 처녀와 사건줄 알았더니 하, 영선 광산기계공장 설계원과 대뜸 친했거던요, 둘이 뒀을 짝자궁이했는지 광산에 돌아와선 대바람에 파쇄기개조에 달라붙었수다. 스크링축에 날개를 덧 달아 파쇄능력을 높이자는거지요. 하긴 콘베아에 만부하를 걸자면 그게 문제니까요.》

《그저 참 그럴듯한 생각인데요.》 경준은 대뜸 귀가 번쩍 띄었다.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쪽일은 또 랑패를 했으니… 참 기사동무, 암전한 처녀가 있으면 좀 소개하시우, 동업자들끼리야 통하는데가 있겠는데요.》 아바이의 눈은 금시 밝아졌다. 경준이도 그 뜨거운 진정을 거절할수 없었다.

《예, 어디 물색해보겠습니다.》

《허허, 이게 다 좋은 일이 아니요.》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지을 호탕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속에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인간의 너그러운 기품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유쾌한 이야기로 그들은 아득히 올라다보이던 고개마루에 언제 올라섰는지 몰랐다. 령마루에 올라선 그들은 다시 자전거에 몸을 실었다. 서늘로운 저녁바람을 안고 기운차게 달려가는 경준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X

광산마을에 내려온 그들은 합숙을 찾았다. 혈색 좋은 식당아주머니가 아바이를 보고 별로 놀라와했다.

《아니, 읍에 간다더니? …》

《갔다오는길이지, 여보 인사하우, 고현광산에서 온 귀한 손님이지요…우리 집 사람이웨다.》

경준은 녀인의 각근한 인사를 받았다. 다래끼를 끄르던 아바이가 안심찮은 기색으로 물었다.

《기사동문 있소?》

《웬걸요. 아까 저쪽으로 나가던데요.》

《허, 공무동력엘 갔나보군, 일요일인데 회관에 라두 가지 않구.》

다래끼안을 헤쳐보던 녀인의 입에서 가벼운 탄성이 울렸다.

《아이, 저런 아직 살았군요.》

《살지 않구, 가물치란게 어떤놈이라구.》

아바이는 녀인을 따라 주방에까지 들어갔다. 물붓는 소리, 도란도란 내외가 주고받는 말소리… 밖에 나온 아바이는 경준의 손목부터 끝었다.

《자 기사동무방에 갑시다.》

《어서 들어가자요. 이 무더운데 먼길 오시느라 오죽 피곤하겠어요.》 뒤따라 나온 녀인도 그를 끝었다. 경준은 서늘한 저녁바람이 좋다고 가볍게 사

양하고 나무의자에 앉았다. 아바이는 어딘가 또 걸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저녁이나 자지구 가구려.》 너인의 눈빛은 간
절하였다.

《어서 가아지. 거기선 그 친구가 매운탕을 끓여
놓구 눈이 빠지게 기다릴거요.》

《참, 그 아주머니 극성두 여전하시구만요.》

읍으로 되돌아가는길이라는것을 알게 된 경준은
놀라와 만류하였다.

《날이 어두워지겠는데 래일 아침빠스로 떠나시
지요.》

《손님을 앉혀놓구가서 안됐수다. 아침엔 일이
있어와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밤길가는것도 괜
찮지요. 이제부턴 거의 내림받이니까 〈제비〉(자
전거이름)만 타면 단숨에 가지요.》 아바이는 혼연
한 기색으로 그를 안위시키었다. 길동무로 사귄 정
을 아쉬워하는 그의 심정을 눈치챈 아바이는 부드
러운 미소를 담은채 말을 이었다.

《또 만나게 되겠지요. 나이가 들면 잔걱정이 많
은 법이라우. 어린하겠소만 일이란 그저 사람 마음
먹게 타이지요. 신설깁을 맡았는데 왜 힘들지 않겠
수. 일이 아름답쌀 땐 그걸 보람으로 여겨야 마음이
든든해지지요.》

초면에 누가 이런 조언을 주었다면 경준은 결코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처음 사
귀면서도 무릅없이 마음을 나누었던 아바이의 생각
깊은 말이어서 그것이 그대로 가슴에 새겨졌다. 서
로 찾아오라고 뜨겁게 인사를 나누며 그들은 헤어
졌다. 아바이와 헤어진 경준은 마음이 허전해져 그
냥 영식기사를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다.

너인이 가리켜준대로 공무원직장으로 뻗은 외
통길로 오르던 경준은 중도에서 영식기사를 만났다.

《소식도 없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도 무척 반가와하였다.

《기사동무 방조를 받자구 왔소.》

《원 룡담두 저야 뭐…》 그는 못미더운 기색이
였다.

《왜 룡말이겠소. 사실 우리도 이번에 사갱벨트
콘베아를 받게 되오.》

《그래요?》

그는 마치 제일처럼 기뻐하는것이였다.

그를 따라 걸음을 돌려세운 경준은 넌지시 한마
디 비치였다.

《그래 기사동문 많은 일을 했더군요.》

《제 혼자서야… 업두나 내겠습니까,》

나야 아직 풋내기 기산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처
음에 말아놓고보니 겁부터 났습니다. 다 해놓고보
니 별것도 아닌걸…》

《허, 그 답력이 부럽소.》

《답력이랄게 있습니다. 다들 도와나서는데 공연
히 속이 좋아들어 주저했됐지요. 책임기사동무도
아다실이 설비야 특별히 신비하거나 복잡한데가 있
습니까. 그저 조립도면대로만 정확히 하면 되는거
지요.》 제 뉘우침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그 기품에
어쩐지 경준은 자기 몸이 한돌기 더 술가져보이었
다. 하긴 1년사이 그의 몸가짐이 한결 준수해지고
눈빛마저 더 영채가 도는듯싶었다. 합숙에 도착했
을 때 이미 저녁상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광산의 풍족한 살림이 그대로 차려진듯싶었다.
갖가지 산나물이며 두부탕, 고기볶음… 아니 그보
다도 더 놀라운것은 너인이 마지막으로 들고온 가
물치회였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났어요?》 놀란것은 영식기
사만이 아니였다. 경준은 대뜸 아연해졌다.

《어서 많이 드시우, 기사동무 고향에만 가물치
가 있는줄 아시우?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두 별게
다 생기지요.》

두사람은 푸수한 너인의 너스레에 대답할 경황이
못되었다.

《이 가물친 아바이가 요긴한데 쓰겠다구 하던데
요…》 경준의 놀라운 눈길은 너인에게 쏠렸다.

《아바이라니요?》 영식기사는 두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경준과 일별한 너인은 자못 난감한듯 제
변명처럼 말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령감〉 보구 하는 말이라우.》

《비서동지야 군에 강습하러 가지 않았습니
까?》

《오늘이야 쉬는 날이 아니요.》

그들의 말에 경준은 얼떠름해졌다.

《비서동지라니?》

《우리 갱 분초급당비서동지말입니다. 정홍섭비
서동지를 모릅니까?》

정홍섭비서를 모를리 없다. 언젠가 도일보에도
《우리 비서》로 광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1
0여년을 하루같이 일한다는 기사가 크게 났었다.

(아뿔싸, 그런것도 모르고 가물치를 탐낸 뉘시군
아바이로만 생각했으니… 이런 인사불성이라구야.)
경준은 자기 실책을 아프게 느꼈다.

《자 어서들 드시우, 이걸 일 잘했다구 한상 차리
는게 아니라우. 휴양소에서 〈도망〉 친 〈벌칙〉 이
라 던가요? 하여튼 이번까지 사양해선 안돼요. 손
님두 많이 드시우.》

너인은 인심후한 안주인답게 친절히 권하고는 부
역으로 내려갔다.

하나 누구도 선뜻 술을 들지 못하였다.

《기사동무! 어서 드오. 비서아바이가 몸보신하

라고 우정 잡아온건데 많이 드요.》

경준은 먼길을 달려온 비서아바이의 수고가 헤아려져 먹음직한 가물치회그릇을 그앞으로 밀어놓았다. 순간 그의 손은 굳어졌다. 영식기사의 눈가에 물기가 번뜩이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책임기사동무도 보다싶이...우린 그저 비서아바이의...》

뜨거운것이 치받치는듯 영식기사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를 보는 경준은 경험도 기술도 어린 영식기사가 어찌면 벨트콘베아 놓는 일을 그렇게 빨리 해제졌는지. 처음부터 설비에 만부하를 걸게 됐고 파쇄기개조안문제를 대뜸 생각해냈는지, 아니 그런 담력과 묘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아도 그 열쇠를 찾아칠수 있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는 함께 령길을 오르던 아바이의 모습이 삼삼히 그려졌다. 한쪽 눈섭을 종긋해보이며 너그럽게 지어보이던 그 미소가... 그러면서 마음의 의지가 생기면 그게 힘이 된다고하던 아니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은 두터워진다고 하던 말이 그의 신념처럼 들려왔다.

크나큰 사랑속에 안겨지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큰힘으로 되는것인가. 인간의 재능이 훨썬 꽃피어나도록 뜨거운 창조적열정을 불려일으키는 그 사랑속에 믿음은 두터워지고 두터이지는 믿음속에 인간은 자기도 몰라보게 성장하는것이다. 천부모도 다 헤아릴수 없었던 이 믿음은 오직 인간을 무궁한 존재로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에 의해서만 부어질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라는것을 경준은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고마운 당의 사랑속에 누구나 한결같이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그것을 향유한다.

(영식기사에게는 그 믿음이 그대로 힘이 되고 지혜로 빛발쳐 담찬 인간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도...)

그 믿음의 진가를 미처 다는 모르고 살아온 자신을 비춰보며 스스로 자책을 금할수 없는 경준이었다.

어언중 그는 불신으로 해서 알팍해진 마음을 안고 요즘 초조하게 돌아치던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럴수록 그는 아바이의 진정이 그대로 가슴에 스며들어 가물치회만이 아닌 뜨거운것을 삼켰다.

이윽고 저녁상을 물린 그들은 한동안 숙연해졌다. 깊은 자책속에 모태기던 경준은 저도 모르는 강한 충동에 끌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식기사는 그를

무작정 눌러앉히려 했다.

《왜 일어납니까? 오늘밤엔 여기서 쉬고 래일 갭에 올라갑시다.》

《아니 갭에 올라갈 필요가 없소. 설비야 아까 기사동무 말한것처럼 조립도면대로만 하면 되는것이니까 별다른게 있겠소. 문제는 마음먹기탓이지...》

《별로 도움도 드릴것도 없는데 공연히 쉬는 날 어려운 걸음을 하셨군요.》

송구스러워하는 영식기사가 경준에게는 더 미더워보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충고하듯 정색해서 제 마음속 느낌을 서슴없이 터놓았다.

《아니요, 많이 배웠소. 기계만 보다니니 큰결 놓칠번했소.》

경준은 벌써부터 새로 온 기사들과 무릎을 맞대고 콘베아설치며 파쇄기개조, 아니, 신설갱의 생산을 부쩍 늘어 정상화해나갈 방도까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저마다 어려운 초소를 말아나서게 될 장한 모습들을 새로운 기쁨속에 그려보았다. 그가 서둘러 일어서자 영식기사는 만유했다.

부득부득 자전거를 끌고나서자 그도 뒤따라나섰다.

《아니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떠난다고 그럼니까, 래일 아침빠스가 있는데...》

《일없소, 밤길 걷는것도 켜찮지요.》

경준은 은연중 비서아바이가 하던 말을 곱씹어했다는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말의 뜻을 눈치챈 영식기사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뿐 더는 만류하지 않았다.

밖에 나서니 둥근달이 비죽이 솟아올랐다.

(사람마다 휴식을 즐기는 일요일저녁에 비서아바이는 또다시 령길을 넘어갔다.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진 령길이기에 휴식의 즐거움보다 더 큰 보람을 안고 먼저 갔다.)

경준은 아는것보다 더 크고 뜨거운 사랑을 저도 모르게 받아안고 산다는것을, 바로 그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신설갱일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다는 신심이 넘쳤다.

뒤늦게나마 아바이의 뒤를 따라 령길에 나선 그는 예없이 새로운 긍지를 감득하였다. 아득히 올려다보이는 그 령길에 들어서는 자기의 등을 미더운 손길이 이끌어주고있음을 느끼었다.

가슴속에 스며드는 사랑과 믿음을 안고 경준은 큰걸음을 옮겼다. 령길을 따라...

기쁨

안용근

그날은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오래간만에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아침식사가 끝나자 가족들과 함께 계획한 대로 거리구경을 하기로 했다.

아들딸 남매를 앞세우고 안해와 함께 흰눈을 소복이 맞으며 새로 일떠선 거리들과 대기넘비며 명승고적이며 대동강반의 설경을 구경한다는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평양에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도 이런 재미를 보기는 꼭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이날의 나의 《관광》 계획은 대단했다.

될수록 빠스를 타지 않기로 되어있는 그 계획에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은 물론 련광정과 대동문, 모란봉과 을밀대까지 들어있었다.

점심때가 되면 옥류관에서 식사를 하고...

서둘러 준비를 끝낸 우리 일행은 현관문을 나섰다.

밖에 나서자 때를 기다린듯 함박눈이 우리의 머리와 어깨우에 축복의 꽃보라인양 어리광치며 내려와 앉았다.

뿐만 재빛하늘 중천에서 나뭇대며 쏟아지는 눈은 우리 일행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애들은 벌써 저만치 앞에서 눈우에 똥굴기도 하고 팔을 짹 벌리고 흰 눈송이들을 받아먹기도 하며 까치걸음에 토끼춤을 춘다.

그 애들도 이런 날 이런 걸음이 무등 기쁜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 난처한 일이 생겼다. 앞서가던 아들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다짜고짜로 썰매를 만들어달라고 생떼를 쓰는것이 아닌가.

《썰매라니? 오늘은 거리구경을 하기로 하잖았니?》

《난 싫어, 나도 썰매탈래, 아버지 나 썰매 사달라...》

알고보니 아파트모퉁이에서 그 애포레들이 썰매를 타고있었는데 그것이 몹시 부러운 모양이었다.

《썰매가 어디 있어야지. 내 이제... 아니 좀 있다가 만들어줄게. 응, 저 애것보다 더 멋있게말이야.》

나는 칭얼대는 그 애를 우선 달래놓고보아야 하기에 덮어놓고 얼리려들었다.

그러나 원래 고집불통인 애는 좀처럼 나의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모처럼 마련된 《관광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는것 같아 안달아났다.

안해도 사랑이며 군고구마를 내놓았으나 허사였다.

정말 이럴 때 어데 파는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떼질하며 우는 애를 데리고 거리구경을 할수 없는 일이어서 나는 아쉬운대로 발길을 돌릴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썰매를 만들자고 생각하니 그 품도 간단치 않았다. 자재를 구하여 만든다 해도 반나절은 걸릴게고, 그럼 거리구경은...

어차피 오래간만에 맛보자던 도시구경은 후날로 미루어야 했다.

《썰매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동대원구역직매점에서 한창 팔던데...》

어느결에 우리 옆까지 다가온 한 아주머니의 말소리에 우리는 귀가 솔깃해졌다. 그 아주머니옆에는 나비리봉을 맨 처녀아이가 손잡고 서있었는데 그아이의 손에는깜찍스레 만든 새인형이 쥐여져있었다.

나는 너무도 반가운 김에 그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만 한마디 던진채 가족들에게 천천히 따라오라고 이르고는 구역직매점으로 급히 향했다.

직매점은 초입구부터 구매자들로 붐비었다.

어느 매대에서나 흥성흥성한 웃음속에 상품들이 순식간에 팔리고있었다.

천류, 초물류, 편직물, 세공품들... 그리고 인형에 이르기까지 빨강고 파랑고 노란 갖가지 상품들이

매장에 넘치여 하나의 만발한 화원을 이루었는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냥 흐뭇하게 한다. 애기들이 입을 옷만도 수십가지나 되었다.

정성다하여 만든 그 상품들은 대번에 나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처녀동문 어느 색깔의 단추를 요구하고요?》

《저... 분홍색...》

아련하게 생긴 한 처녀가 판매원에게서 분홍색 단추를 받아들며 함박꽃같은 웃음을 짓고있었다.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처녀는 입고있는 양복에 그 단추를 갖다 대보기도 하고 거울에 제 모습을 비쳐보기도 했다.

새 류형의 양복단추는 처녀의 미모를 더욱 예쁘게 장식했다. 내 보기도 그 단추가 마음에 들었다. 하물며 한껏 아름다움을 돋구는 젊은 녀성들에게야...

처녀는 판매원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생긋 웃어 보이고는 부리나케 문밖으로 나간다.

달려나가는 처녀의 모습은 들끓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잠겨버렸다.

그런데도 그 모습은 나에게 뚜렷한 인상으로 선히 안겨왔다.

나는 때늦게야 헛눈을 팔고있는 자신을 깨닫고 이 매대, 저 매대에서 썰매를 찾기 시작했다.

제일 구석진 매대에 이르러 썰매를 발견한 나는 하마트면 환성을 올릴번했다.

원 이렇게 고마울데라구야.

《판매원동무. 나 좀...》

나는 서두르며 썰매를 요구했다.

값을 치르고 썰매를 받아안고보니 실로 입이 저절로 벅글썩해졌다.

나무로 만든 별치 않은 물건인데도 반질반질하게 밀어내고 윤기나게 색을 칠해놓은것이 정말 귀중한 골동품처럼 보여 만든 사람들의 정성이 그대로 안겨왔다.

이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좀전에 본 처녀의 웃음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도 아마 단추를 받았을 때 나와 같은 기쁨을 맛보았을것이였다.

나나 그 처녀나 그리고 여기에 온 모든 구매자들의 얼굴에 넘쳐난 기쁨의 미소... 그것은 결코 상품의 가치에서만 오는것이 아니였다. 보다는 그것이

사람들의 범상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구에 충족을 주었기때문일것이다. 이것이 어찌 여기 동대원구역직매점뿐이겠는가.

만경대구역, 서성구역, 중구역... 그 어느 직매점에서나 당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그 어떤 불편도 줄세라 갖가지 세소상품들이 팔리고있었고 거기서도 상품을 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나나 그 처녀와 같은 기쁨이 어려있을것이였다.

정녕 그랬다.

그닥지 않은 물건들이 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호기심과 기쁨을 가져오고 있는것인가!

나는 이것을 흥성거리며 봄비는 직매점을 통하여, 구매자들의 회열에 넘친 얼굴마다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받아안은 감정에서 똑똑히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생산잠재력과 온갖 가능성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행복! 그것은 실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이 땅의 포전길, 구내길, 오솔길을 죄다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깊고깊은 심혈의 열매가 아닌가.

동서남북 조국의 그 어디나를 둘러보아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우리 인민들이건만 인민생활을 더 높이자고 회의와 연설때마다 강조하시는 다정한 그 음성...

말타면 경마잡히고싶어하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인민생활에 단 한점의 불편도 있을세라 할수 있고 가능한 모든 방도와 예비를 찾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창조적인 지혜와 재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

수령진 진펄길을 가시다가도, 살얼음진 개울을 건느시다가도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풍청하게 사는 인민들을 만나면 만시름을 다 잊고 기뻐하시는 자애로운 그 모습...

그 깊은 심혈과 은혜로운 사랑속에 인민소비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직장파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그물망처럼 전국에 뒤덮였고 다양한 세소상품들이 강물처럼 쏟아지게 되었다.

어찌 그뿐이라. 늙은이, 젊은이 가림없이 공장과 농촌, 가두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힘에 맞게 일하게 되니 살림이 펴이고 건강이 보장되어 가정에서도 웃음, 일터에서도 웃음... 하여 온 나라에 웃음풍년이 들었다.

아, 어디서나 들리는 저 웃음소리... 기쁨과 환희에 넘친 저 모습들...

나에겐 그 모든것이 범상치 않고 무심치 않다.

부지런한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에 속아 등기를 마저 빼앗긴 우리 조부모님들이 활처럼 휘어진 허리에 웅이 배여 매듭진 손으로 쟁기를 들고 아침이면 새벽을 이고 저녁이면 달빛을 지고 허이허이 사립문으로 나돌던 그 모진 세월에 바란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기껏해야 초가삼간에 무명나들이옷 한벌, 그밖에 삼시 입에 풀칠이나마 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도 그 사회는 최소한의 그 소원과 기쁨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문화정서생활도 다양하게, 식생활도 구미에 맞게 하도록 문화위생시설들이며 기호품들과 세소상품에 이르기까지 척척 마련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그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복된 인민이 또 어디 있으랴.

무슨 말을 해야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한단말인가.

이런 흥분된 생각으로 가슴들먹이고있던 나는 누군가가 내 손에서 썰매를 당겨가는바람에 얼굴을 돌렸다.

어느새 뒤따라온 아들이 방그레 웃음짓고있었다. 언제 울었던가싶게 온 얼굴에 꽃송이같은 웃음이 활짝 피여 넘친다.

《야 !》

귀염둥이 《고집불통이》는 썰매를 받자 짱충짱충 뛰었다.

티없이 밝게 웃으며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노라니 웬일인지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애의 얼굴에 난 눈물자국을 닦아주는 나의 손은 가늘게 떨리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아버지가 너의 울음을 그치게 했다고 생각할것이다.

하지만 너도 이제 크면 다 알게 될게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치게 못한 너의 울음을 누가 그치게 했는가를.)

하늘에선 여전히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있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우리 인민들에게 상품도 만가지, 기쁨도 만가지 주고주고 또 주고싶어하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마음을 남아서인가 천만 눈송이들이 사람들의 머리우에, 어깨우에 햇솜마냥 포근히 쌓이고 덧쌓인다.

우리는 그 눈을 맞으며 시내로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다.

하마트면 퇴각할번한 길이었다.

그 웃음을

석광희

또 하루

막장을 멀리 밀어제끼고

노을지는 난장에 나서며

안전모밑에서 빙긋이 웃는 얼굴

그대로 사진찍어 보내주고싶어하

아들의 소식 기다려 궁금해하는

고향의 어머니에게

땅속의 보물 캐내고

흐뭇이 느끼는 로동의 보람도

젊음이 넘치는 건강도

말없이도 다 말해주는

검덕의 제대군인광부

그대의 밝은 그 웃음을 !

형제의 나라 소련에서

홍석중

천리비린이라는 옛글이 있다. 진실한 벗들은 천리도 이웃과 같이 가깝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좋은 말이다. 우리들이 생활에서 늘 체험하는 바이지만 진실한 벗들간에는 먼 거리가 결코 우정의 틈을 이루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먼 거리가 만났을 때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정을 더욱 그림계 하고 아쉽게 만드는것이니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참된 우정의 그 간절한 마음을 어찌 천리를 이웃과 같이 생각한다는 단순한 글뜻에만 비길것이라.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일 5일까지 소련작가동맹창립50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조선작가동맹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소련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과 소련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입니다.》

두만강의 하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잇닿아있는 형제의 나라 소련, 그러나 그 광활한 나라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평양으로부터 수만리나 떨어져있는 먼 유럽땅에 있다.

나는 그곳에서 훌륭한 벗들과 사귀였다. 비록 체류기간은 짧고 다닌곳도 많지 못했지만 소련의 벗들은 나의 심장속에 진실하고 성실한 우정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수많이 남겨주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귀중한 추억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더듬어보군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만리 먼곳에 있는 소련벗들에 대한 천리비린의 뜨거운정이 더욱 절절해지는것을 금할수 없다.

1. 가는 길에

조국을 떠난 비행기는 벌써 세시간째나 구름우를 날고있었다. 일만일천메터의 높이에 시간당 팔백키로의 속도라고 한다.

창밖의 풍경은 무료했다. 한시간전이나 두시간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해빛과 구름바다뿐이었다. 시간과 속도를 계산해보면 벌써 중국과 몽골을 지나 소련의 하늘을 날고있을테지만 구체적으로 달라진 느낌은 아무것도 없었다. 비행기안에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기분은 마치 조국의 북방으로 달리는 어느 급행열차의 연석의자에 앉아 있는듯했다.

그러고보면 과학과 기술의 진보란 결코 완전무결한것이 못되는가싶었다. 대륙을 횡단하는 수만리 먼길을 반나절동안에 날아간다는것은 좋으나 여행자라면 응당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려지는 이국풍경의 색다른 정서까지 빠른 속도속에 비약해버린다는것은 못내 섭섭한 일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갑자기 《바이칼호수다.》 하는 웨침소리가 좌석의 여기저기서 들렸다. 나는 얼른 유리창을 내다보았다.

드디어 날개밑의 두터운 구름발이 성기여지고있었다. 까마득히 밑에는 푸릿한 밀림의 바다가 끝난데 없이 펼쳐져있는데 해빛에 번쩍이는 호수의 긴 룬파이 선명하게 내려다보였다.

바이칼호는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호수이고 세계에서 제일 깊은 민물호수이다. 북동쪽에서 남서방향으로 천륙백여리에 걸쳐 길게 비스듬히 누운 호수의 폭은 평균 백삼십여리라고 한다. 호수의 서북쪽에는 바이칼산줄기의 두드러진 기복이 선명하게 내려다보였다. 호수에서 흘러나가는 유일한 강인 앙가라의 은빛 줄기가 마구 늘어놓은 실오리처럼 구불구불 흘러가고있었다.

바이칼호수가 사라지자 곧 이르꾸쯔크상공이였다.

비행기는 이 도시에서 한시간가량 머물게 되어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지고 객실안의 기분은 명랑해졌다. 그것은 이 도시가 우리들이 뵈아보게 되는 첫 소련땅이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이르꾸쯔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들리셨던 도시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룩한 자취를 남기신 력사적인 도시에 발을 내디디게 되는 우리들인데 누군들 그 순간을 앞에 두고 가슴이 설레지 않겠는가.

비행기는 어느덧 구름밑으로 내려왔다. 수림에 에워싸인 큰 도시가 눈밑에 내려다보였다. 밀림의 우듬지를 스쳐 확 트인 드넓은 공지로 내려서자 곧 활주로가 펼쳐졌다. 활주로 건너편 무성한 풀밭에서 애취기를 운전하던 소련동무가 우리 비행기를 향하여 모자를 벗어서 흔들었다. 비행기는 그리 크

지 않은 이르꾸츠크항공역 앞에서 멈추어섰다.

이르꾸츠크는 이르꾸츠크주의 소재지로 인구가 사십만이 넘는 작지 않은 도시다. 양가라강과 그 지류인 이르꾸츠크강이 합치는곳에 자리잡은 이 도시는 중부씨비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이르꾸츠크는 평양-모스크바항로의 소련측 국경초소와 같은곳이었다. 비행기가 머무르는 한시간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입국수속을 하여야 했다. □

려권수속과 세관수속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항공역의 제복을 입은 나이지곳한 소련녀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나의 짐을 빼앗아들었다. 사양했으나 막무가내였다. 할수 없이 나는 그 녀성의 뒤를 따랐다.

화장을 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 고집스럽고 자신만만해보이는 눈, 뚱뚱하지만 가볍게 움직이는 몸, 어쩐지 로씨야소설의 삽화에서 자주 만나본듯한 낯익은 모습이었다.

하긴 이런 형의 로씨야녀성이 바로 톨쓰또이와 푸르게네브의 소설에서는 근면한 농민가정의 주부로, 고리끼의 소설에서는 혁명가의 자애깊은 어머니로, 이후 쏘베트문학에서는 공산당과 쏘베트정권에 무한한 신뢰를 지니고있는 헌신적인 근로녀성의 원형으로 되었을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려권수속을 끝내고 세관을 거쳤다. 나의 짐은 여전히 그 녀자의 손안에 있었다. 우리 일행이 나를 기다리고있는 휴계실까지 안내해주고나서야 나에게 짐을 넘겨주었다.

고맙다는 나의 인사를 웃음으로 흘려내린 그 녀자는 우리들의 앞가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따와리쉬 김일성 !》

《김일성 동지.》

《오, 김일성 동지.》

그 녀자는 녀학생처럼 또박또박 조선말음을 받아외우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르꾸츠크에 들리셨던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그 녀자는 공교롭게도 당직근무를 서고있는 시간이어서 환영 대오에 나가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자기 딸이 우리 나라 기발을 정성들여 마련해들고 역에 나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뵈우고 돌아왔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녀자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들의 손을 차례로 잡아흔들었다. 좋은 때... 우리는 헤어지며 한 그 녀

자의 치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조친선의 새로운 꽃을 활짝 피워주신 뜻깊은 때에 누구보다 먼저 소련을 방문하는 길에 나섰으니 응당 우리는 그런 치하를 받을 만한것이다.

...비행기는 또다시 서쪽으로 날았다.

이르꾸츠크를 떠난지 두시간반만에 비행기는 노보씨비리스크의 상공에 이르렀다. 이 도시에서 비행기는 또 한시간을 머무르게 되어있었다.

노보씨비리스크는 우리 인민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는 친근한 도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러 가시는 길에 들리시여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를 만나보신 뜻깊은곳이 바로 이 도시였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매 벌써 도시가 이르꾸츠크에 비교가 안될만큼 크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인구는 백만이 훨씬 넘는데 노보씨비리스크주의 소재지이며 씨비리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한다. 천팔백구십삼년 씨비리철도가 개통되면서 생긴 도시라고 하니 도시의 나이로는 이제 겨우 아흔살이 되나마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가 소련에서 손꼽히는 공업기지였다. 독자들도 우리 나라에 번역소개된 아. 차콥스끼의 장편소설 《봉쇄》를 읽었으면 알고있을테지만 그 소설에는 1941년 준엄한 모스크바 격전의 시기에 쓰딸린이 노보씨비리스크에 있는 비행기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그 정도만 상기해도 이 도시의 위력과 자랑찬 역사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비행장역건물의 2층에 있는 후계실의 창문으로 내다보아도 도시주변의 한산한 늦가을풍경밖에는 눈에 들어오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대신 나는 역건물안에서 소련사람들의 보다 흥미있는 생활의 한 화폭을 흥미있게 관찰할수 있었다.

아직 계절에 이른 털모자와 털외투를 걸친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틀림없이 그들은 사철 눈과 얼음에 덮여있는 북극쪽으로 날아갈 사람들일것이다. 지질탐사대원들인듯한 등산복차림의 젊은 사람들 여러문명이 둘러앉아서 무엇인가 열렬히 논쟁을 하고있었다.

로씨야사람들, 까자흐사람들, 야끄쯔사람들. 혹은 에스끼모스인일수도 있는 형형색색의 각이한 사람들이 대합실안에서 움직이고있었다. 그러나 민족과 나이와 직업이 서로 다른 그들에게도 공통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눈빛과 얼굴표정과 숨결에서 느껴지는 청춘의 왕성한 열기였다.

나는 문득 로씨야시인의 시 한구절을 생각해 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위력을 두고
아름드리 참나무와 비교할수 있어라.
우리는 아침처럼 싱싱하다. 힘차다.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고 의지 굳세니
우리 조국에는 삶이 늙는 일 없어라…》

참으로 그들 개개의 표정과 몸가짐은 아침처럼 싱싱하고 힘찬것이었다. 이런 청춘의 혈기는 무위도식의 권태를 모르는 사람들, 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왔고 또 끝까지 걸어가려는 완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이 영원하게 간직할수 있는것이다.

비행기에 올라서도 우연히 옛본 대합실의 인상에 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바로 보자마자 곧 느껴지는 그 왕성한 청춘의 혈기가 소련인민들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을 규정하는 역센 삶의 활력이 아닐가…

비행기는 지칠줄 모르고 서쪽으로 날았다. 여전히 날개밑에는 뒤텁킨 구름발이 흐르고 하늘우에서는 한자리에 머무른듯한 태양이 밝은 빛을 뿌렸다.

조선시간으로 오후 일곱시반, 마침내 우리의 비행기는 모스크바의 상공에 이르렀다. 평양을 떠나 근 열한시간의 비행끝에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한것이었다.

비행기가 구름밑으로 내려왔다. 모스크바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라기보다 차라리 건물의 바다라고 하는것이 더 적중한 표현일것 같았다. 무연한 바다…, 그 바다속에 여기저기 황갈색 섬들이 널린것은 마가울의 황이 든 숲과 공원의 수림들이었다.

우리는 웨레메찌예보비행장에 내렸다.

우리는 소련작가동맹일군들의 영접을 받았다.

술많은 머리를 길게 빗어넘기고 수염을 곱게 손질한 중년일군이 우리들의 손을 잡으며 자기를 소련작가동맹중앙위원회비서이며 잡지 《노브이 미르》의 주필인 이. 웨. 까르뽀브라고 소개하였다. 뒤따라 키가 자그마하고 눈정기가 유별한 젊은 녀성일군이 우리들의 손을 잡았다.

그 녀자는 소련작가동맹 외교위원회의 지도원인 엘. 아. 워포로브나였다. 그 녀자는 악수를 하고 나서 방그레 웃으며 자기를 그저 토냐라고 불러달라고 청했다.

잠시후에 우리를 태운 자동차는 비행장을 떠나 시내로 향했다. 넓은 고속도로로가 곧게 뻗어있었다.

동화극에 나오는 환상적인 무대장치처럼 울긋불

긋 치장을 한 교외의 아름다운 별장건물들이 차장 밖으로 흘렀다. 울안에 서있는 사과나무들에는 홍보석같이 빨간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져있었다.

뜻밖에 무연한 봇나무숲이 펼쳐졌다. 잃은 실퍼졌으나 우듬지가 까마득히 올려다보이도록 힘차게 자란 봇나무숲은 마치 소복단장을 한 처녀들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로씨야사람들이 봇나무를 가리켜 숲의 녀왕이라고 부르며 그토록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에 애정을 담아그리는 리유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로씨야호텔에 안내되었다.

《…찾아오시라, 어서 오시라.

보시라. 우리의 살림을…

우리는 털어놓고 솔직히 말한다네.

우리의 벗은 모두 정답고 귀하다네.》

이것도 역시 어느 로씨야시인의 열정에 찬 노래다. 바로 그 시인의 노래에서처럼 우리는 소련벗들의 정답고 귀한 손님이 된것이다.

2. 모스크바에 대한 인상담 몇가지

우리는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날 소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시인인 유. 빼. 워로노브와 작가동맹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아. 아. 표수르코브를 만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소천선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뜻깊은 해에 소련을 방문하게 된 우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명절을 위하여 수만리 먼곳에 떨어져있는 조선작가들이 그 어느 나라 작가들보다도 제일 먼저 찾아준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이른아침 우리는 토냐의 안내로 레닌산의 전망대를 찾았다. 그곳은 꽃피는 봄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찾으시여 모스크바시들 부감하셨던 력사적인 장소다.

영화화면으로 낮이 익어진 전망대의 란간을 짚고 서니 그 감격적인 날들에 올려퍼진 모스크바시민들의 열광에 찬 환호성이 또다시 귀전에 들려오는것 같았다.

레닌산의 정점에는 모스크바종합대학의 웅대한 건물이 우뚝 솟아있고 그 건물을 등에 진 전망대의 란간앞에 서면 산아래로 눈이 모자라게 펼쳐진 모스크바의 전경이 바라보였다.

모스크바는 1147년경에 건설된 오랜 도시이다. 모스크바는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수도로서 크레물리성탑의 붉은 별은 소련인민들의 공산주의적

신념의 고귀한 상징으로 되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제일 눈에 띄우는것은 역사적인 낡은 건물들과 현대적인 새 건물들간의 유기적으로 잘 조화된 결합이다.

웅장한 현대건물들의 사이사이로 사원벽체의 환상적인 채색이 선명하게 두드러져보이고 금물을 올린 둥근 지붕과 뾰족한 종각첨탑의 십자가가 눈부시게 번쩍인다.

공들여 보수된 이 사원들은 모두가 박물관으로 개방되어있는데 그러한것은 붉은광장의 한옆에도, 지어는 당과 정부의 수뇌부가 자리잡고있는 크레몰리성벽안에도 있었다.

이러한 유기적인 결합은 사원건물들뿐만이 아니다. 붉은광장과 잇닿아있는 깔리닌거리는 제정시대의 좁은 거리를 현대적인 대도로로 넓힌것이였다. 공사를 하면서 모스크바사람들은 보잘것없는 2-3층의 낡은 건물들까지도 기초째 고스란히 새 자리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집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것보다 몇배 더 어려웠겠지만 그들은 도시의 산 역사를 지워버릴수 없었던것이다. 간혹 낡은 건물들의 벽에는 시퍼렇게 동녹이 오른 현판이 붙어있는데 그 현판에는 천칠백 몇년도에 작가 아무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가 또는 체류했다는 짧은 기록이 부각되어있었다. 설사 그 집에서 살았다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그 건물의 경난에 찬 나이앞에서는 경건한 감정을 품게 되는것이다.

로씨야호텔에서 붉은광장으로 나가려면 반원형으로 구부러진 좁은 거리를 지나야 했다. 이 좁은 거리는 그야말로 수세기의 역사를 하나로 응축해놓은 축도나 같았다. 흰빛의 조그마한 사원을 끼고있는 거리에는 옛 상점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 차있는데 지금은 국영상점의 현대적인 간판이 붙어있었으나 그 간판뒤에는 이끼오른 고풍이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었다. 금시 삼두마차가 거리로 질주하는 듯싶고 운두높은 썰크해트를 쓴 오네긴이 단장을 휘두르며 보도를 거닐고있는것 같다.

그런데 뚝배에도 등뒤에서 구식 궤도전차가 종을 땡땡 울리며 달려온다.

그러고보면 어쩐지 10월혁명직후의 모스크바거리를 걷고있는듯한 생각이 든다. 후시 레닌의 호소를 받들고 공산주의로요로동으로 나가는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이 덜커덩거리는 저 전차안에 타고있는것이나 아닌지...

그러나 고개를 들고 좌우를 둘러보면 곧 그러한 환각에서 깨어난다.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로씨야호텔이 거리를 굽어보고있고 앞에는 승용차들

이 질주하는 큰 길이 놓여있는것이다.

나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기간 역사적인것과 현대적인것의 유기적인 결합이 비단 도시의 《형태학》적인 구조에서뿐만이 아니라 쓰련사람들의 정신생활, 특히는 새세대 교양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시작되는 과학교육텔레비존의 첫 순서는 오늘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몇주년이 되는 날이라는것을 알려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에는 역사전문가가 등장해서 새세대 청중들을 앉혀놓고 그 역사적사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강의는 그야말로 립체적인것이여서 그 사건에 대한 전설과 기록,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유명한 작가들의 문학작품, 지어는 그 사건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예술영화까지 리용되었다. 만약 그 역사적사건이 근대의 일이라면 그 사건에 관여한 역사적인물들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집작전대 역사의 자취인 낡은 건물들을 새것과 조화시켜 굳이 보존하려는 쓰련사람들의 의식적인 노력속에는 새세대들의 정신적바탕을 아득한 선조의 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쌓아주려는 강한 민족적지향이 담겨져있는듯했다. 뿌리가 깊고 길고 튼튼할수록 나무는 역세계 자라기 마련인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것처럼 모스크바는 팔백여만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로서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울창한 숲이 주민들의 생활과 훌륭하게 결합되어있었다.

나는 여기서 사랑의 손으로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자연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린 도시안의 화려한 공원이나 그 공원속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처럼 모스크바에는 도처에 자연 그대로의 숲이 섬처럼 널려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순결한 아름다움과 태고연한 정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있는 그런 수림들이였다.

번잡한 네거리를 건너서다가 문득 인도건너편에 우거진 수림을 발견하게 된다. 공원처럼 둘러친 철책도 없어 곧장 인도블록에서부터 수림속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시직되는데 그 오솔길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현대문명의 온갖 소음과 탁한 공기로부터 해방된 상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것이다.

수림속에는 자기대로의 매력적인 생활이 있다. 스무살안팎의 애젊은 쌍들이 웃고 떠들며 숨박꼭질을 하는가 하면 유치원나이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버섯따기에 여념이 없다. 석양의 붉은 빛이 발밑에 밝히는 붉나무숲 오솔길로는 칠팔십세는 되었을 로부부가 다정히 손목을 잡고 산책을 하고있다.

참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이며 전원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모스크바의 시내를 거니저라면 곳곳에 나붙은 선전화들과 각종 구조들이 눈에 띄운다. 선전화의 대부분은 레닌의 초상이 그려진 것들이었으며 많은 구조들도 레닌의 명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면 레닌의 위업을 계승할 데 대한 공산당의 호소들이었다.

레닌은 도시와 함께 지금도 살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비단 초상화나 명제나 구조로써만이 아니었다. 레닌은 모스크바의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소련 사람들의 뒤통수에 살아있는 것이다.

거리는 영원한 청춘의 왕성한 혈기로 들끓고 있다.

말이 난 김에 부연해둔다면 나는 이후 모스크바 뿐만 아니라 따쉬겐트, 그리고 짜마라칸트에서 인투리스트의 배스를 타고 소련의 각지를 여행하는 수많은 서유럽 관광객들을 만났다.

사치한 유행에 물젖은 그들에게는 귀중한 그 삶의 활력이 없었다.

나이에는 관계없이 모두가 늙은이들 같았다. 맥 빠진 얼굴에는 무위도식의 권태가 비졌고 줄음기가 어린 눈에는 삶의 목표와 지향과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이따금 소련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놀라운 눈길로 명청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속에는 마치 덧없이 황혼기를 맞은 늙은이가 행복한 젊음을 지켜볼 때와 같은 심술궂은 시샘과 함께 그 활력의 정신적인 원천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둔한 표정도 섞여 있었다.

늦가을의 굶은비가 내리는 이른아침에 우리는 레닌묘를 참관하기 위하여 붉은광장으로 나갔다. 새벽부터 모여든 수만명의 소련사람들이 벌써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한줄로 정연히 늘어선 대렬은 광장을 넘어 공원속으로 뻗어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또나의 설명에 의하면 매일새벽 두세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날이 밝기전에 이미 하루의 참관인원수를 넘어선다고 한다.

우리는 손님의 특권으로 붉은광장입구에서 대렬에 끼여들었다. 무엇이랴고 형용하기 어려운 숭엄한 정적이 드리운 그 가운데 사람들은 천천히 레닌묘를 향하여 움직여갔다.

그들모두가 첫 새벽부터 지금까지 줄곧 찬비를 맞으며 줄을 지어 서있는 사람들이려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조바심이나 조급히 서두르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십여리가 넘는 장사진의 묵묵한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그대로 그들이 바라는 정신적승화의 한층계한층계처럼 느껴지는 숙연한

광경이었다.

갑자기 줄의 흐름이 멈추어섰다. 결혼식의 폐복을 입은 아름다운 한쌍이 행복을 이룬 새세대로 걸음을 멈춘 사람들의 곁을 지나 레닌묘의 입구로 다가갔다. 흰옷차림의 신부는 들고 온 꽃다발을 묘입구곁에 놓고 신랑과 함께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다시 줄은 움직였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깨바위 판돌로 무어진 묘의 앞면에 새겨진 레닌의 명함이 선명하게 눈에 안겨온다. 묘입구로 가깝게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엄숙해지고 몸가짐은 더욱 정중해졌다.

또다시 줄의 흐름이 소리없이 멈추어섰다. 분명 10월혁명시기 로투사인듯한 팔구십세의 갱년한 늙은이가 몸소 만든 전나무화환을 자식들에게 들려가지고 묘입구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누구보다도 10월의 투사들에게야말로 차례에 상관없이 레닌의 령구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손자손녀들의 부축을 물리치고나서 레닌묘 앞에 모자를 벗었다. 쏟아지는 찬비가 성성한 백발을 적시건만 그는 경건히 숙인 머리를 좀처럼 들줄 몰랐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레닌묘의 입구에 들어섰다. 정면홀의 왼쪽 대리석층대로 내려서니 그곳이 바로 레닌의 령구가 안치된 방이었다. 반지하실, 밝은 조명밑에 첫 사회주의국가의 창건자인 울라지미르 일리치 레닌이 령구우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레닌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

...

우리는 받들고 왔다.

받들고 간다.

받들고 가자.

그이의, 일리치의 기발을...》

이것은 레닌서거의 비보를 들은 마야콥스끼가 눈물을 흘리며 웨친 열렬한 호소였다. 나는 60여년이 지난 지금 레닌의 령구를 찾아온 소련사람들의 숭엄한 얼굴마다에서 그 격렬한 웨침의 뜨거운 구절 구절들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레닌묘를 나선 사람들은 거리로 흩어진다. 표정은 더욱 밝고 걸음걸이는 더욱 힘차다. 청춘의 왕성한 혈기, 억센 삶의 활력..., 그것이 선명한 목표와 완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고유한 것일진대 소련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그들에게 바로 레닌이 가리켜준 목표와 레닌이 키워준 의지, 일리치의 기발을 가지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다음호에 이음)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에 대하여

윤기덕

작품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언제나 엄정하며 시간은 작품에 대하여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

최근 나에게는 독자들과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근간에 나온 많은 소설가운데서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정도 밑에 좋은 소설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과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특히 좋다고들 하였다.

동시에 잘 읽히지 않는 소설도 알아보았다.

독자들이 불만을 가지고있는 작품들 가운데는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그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과 읽히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한결같이 재미없기때문이라고들 하였다.

《재미없다!》...

이 소박하나 명백한 독자들의 말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있는지 나는 이때처럼 깊이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은 조국앞에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닥쳐와도 당의 품속에서 자란 당원들과 인민들은 그 처지와 준비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충성의 별이 되어 한데 뭉쳐 싸운다는 사실과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것을 예술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의의있는 문제성을 제기하고있지 않는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를 보아도 《받는소는 소리치지 않아!》

《백성들은...누구의 말보다도 로동당원의 말을 제일 잘 믿는다.》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참으로 얼마나 고상해지며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로동당원들은 얼마나 큰일을 할수 있으며 또 할줄 아는가?》 등 잘 선택되고 다듬어진 대사들도 많지 않는가고...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자기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뜻인듯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말하였다.

물론 부피 큰 장편소설에 좋은 점이 없을수야 있겠는가고, 하지만 장편소설은 크고 정밀한 기계나

고래등같은 기와집같아서 비록 한두개 나시나 기와같은 작은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구조가 좋고 쓸모가 있어야 좋은것이 될수 있듯이 전체로서 문제성을 안고있으며 그것을 예술가의 솜씨로 바로풀어주어야 한다고.

다시말하여 작가의 의도가 좋거나 개별적으로 좋은데가 있는것은 별로 큰 가치가 없다는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작품에 자기들이 바라는 문제를 해명해주는 새것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였다.

그런즉 독자들의 재미란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라는 문제에 대답을 주는 새것에 대한,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재미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재미, 그것은 예술적흥미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독자들의 예술적흥미는 예술적정서로 충만된 새로운 인간성격, 새로운 사건, 새로운 생활현상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며 아름답고 고상한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관련된 고상한 흥미이다.

나는 독자들과의 담화에 비추어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을 다시 돌이켜보았다.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에는 과연 우리 독자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운명과 련결된 그 어떤 새것의 해명과 그 어떤 숭고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주어져 있는가.

작가는 정당하게도 이 소설에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며 당의 품속에서 삶을 개척해나간다는 사실과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가 곧 작품의 사상으로 되거나 성과로 되는것은 아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를 대변하고있는 독창적인 성격들과 형상들에 의하여 천명되고 밝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나 가면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이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 인물들에게서 탐구되고 발견된 정신적신념을 찾기 어렵다. 다시말하여 성격창조에서 작가에 의하여 탐구되고 발견된 독창적인것이 없다.

주인공 김정학은 평범한 로동자이다. 보통로동자라는 사실은 결코 그를 특징짓는 고유한 성격적특질이 없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인지 딱 짚어서 말할수 없게 그려져있다. 그에게서는 유효한 기질적특성도 성격적면모를 구체해주는 풍격도 찾기 어렵다.

소설의 서두에서 보면 그는 인정있고 책임성이 높은 사람같기도 하고 뜻이 깊은 사람같기도 하다. 그런데 소설의 사건이 발전하면서는 그것을 믿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레하면 그의 애인을 혁명의 편으로 이끌어야 할 국면에 와서 그를 밀어제끼는데서는 그 반대의 성격적특성을 보여주기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그의 성격이 적후투쟁을 그린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서는 볼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인물로 그려졌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는 개성적인 인물로 그려진것도 아니다. 어느모로 보나 특색이 없는 성격이다.

은주의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수 있다.

소설에는 은주가 유격대로 함께 가자고 하는 김정학의 권유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거절하는 대목이 있다. 사실 결혼을 목전에 두었던 이들이고 보면 이것은 피눈물 나는 생리별이라 할것이다. 특히 은주는 본의아니게 애인을 따라나서지 못하는 서러움으로 하여 못견딜 정황에 처한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은주는 가슴을 쥐어뜯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가라는 식으로 애인을 대하고 있다.

소설은 은주의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그리었다.

《언제든지 그렇게 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참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곳곳이 걸어가는 정학동무들 보는것만으로도 저는 끝없이 행복해요.》

생활은 결코 이렇게 될수 없다.

아무리 리지적인 녀성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리별의 슬픔이 있을것이고 그것이 진정되여 리성으로 돌아와도 이 정황에서 선듯 이렇게 강연제강처럼 생각하거나 말할수 없다.

인물성격들이 이처럼 규정성이 없거나 추상화된 까닭은 작가에게 인물들의 고유한 성격적특징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와 발견이 없는데 있다. 이것은 작가가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자는 욕망만 앞세우고 그를 형상으로 실현할만한 탐구되고 발견된 성격적특징을 찾아쥐지 못한채 소설을 썼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성격들에 탐구되고 발견된 새것이 없다는것은 곧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생활에 탐구되고 발견된 새로운것이 없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물 성격은 오직 생활을 통해서만 창조될수 있기때문이다.

공장의 마지막 후퇴사업을 보장하고 자기도 공장을 따라 후퇴하려던것이 실현되지 못한 주인공은

안타까와하던끝에 당원에게는 적후에 남아서 해야 할 일도 많다는것을 깨닫고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선다.

적후에 남은 주인공은 삐라를 찍고 붙이며 체포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구출하며 로동자들의 태업을 조직하고 인민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운다.

그런데 이 경우 작가는 주인공에게 고유한 생활을 찾아주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적후생활을 그린 다른 작품들에서 흔히 보는 그러한 생활을 되풀이하였을뿐이다. 적후생활을 그린 작품치고 삐라를 찍고 붙이며 태업을 조직하는것과 같은 생활묘사를 하지 않은 작품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더욱더 작가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활탐구를 할것을 요구하며 주인공에게 고유한 생활론리를 세우고 주인공에게서 고유한 생활을 발견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작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소설들에서 이미 본 낮은 생활을 반복하여 보여주었을뿐이다. 물론 다른 소설들에서 삐라를 찍고 붙이는 일을 그렸다고 하여 다시는 누구도 그런것을 그럴수 없다는것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시 그럴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작가는 그 생활을 제눈으로 볼줄 알아야 하며 자기의 독특한 체취와 감각과 심장으로 그리고 참신한 예술적 재능과 기량으로 자기 인물의 생활신념을 찾고 거기에 뿌리를 둔 탐구되고 발견된 새롭고 고유한 세계를 그려야 한다. 여기에 바로 창조의 세계가 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의 생활뿐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생활에도 도식적이고 류형적인것이 많다.

독자들은 나에게 말하였다.

신종섭의 집에 적들의 추격을 받는자가 밀정으로 들어오는것이라든지, 적기관에 우리의 공작원이 들어가는것이라든지, 《변절》한 아버지의 일에 견딜수 없어 딸이 자살을 결심하는 사실들은 다 다른 작품들에서 이미 본일이 있는 낮은 생활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실을 대하게 될 때 더는 읽지 않고 책장을 그냥 넘기거나 책을 털어버린다는것이다.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의 독자들은 매우 총명할뿐아니라 또한 매우 엄격한 선생이라고...

작가에게 있어서 자기의 작중인물의 생활에서 새것을 찾아쥐는 힘과 그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것을 찾아내는 힘은 가장 귀중한 재능인 동시에 작가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필수적인 재능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떠나서는 독특한 형상세계의 창조를 상상할수 없고 창작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새것이 적다는것은 결국 새것을 탐구하는 작가적자세와 창조

적사색의 빈곤이며 새것을 발견할줄 아는 작가적 안목과 창조적기량의 부족이며 새것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현실공정의 기백의 결여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찾게 되었다.

생활은 도식적으로 대하고 틀에 맞추어 형상하려는 작가는 현실에서 새롭고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며 설사 찾아냈다 하더라도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하지 못한다고...

독자들은 새것을 요구할뿐아니라 숭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줄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아름다운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 숭고한 인간들에게서 배워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을 떠나서 재미있는 소설을 생각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사상정신적으로 존엄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뿐아니라 높은 문화수준과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시대가 작품에 내세우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은 고상하고 아름답다.

또한 인민들도 자기가 본받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격들을 창조해줄것을 바란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을 읽으면 이 면에서도 생각되는것이 있다.

소설은 앞머리에서 주인공 김정학이와 어머니가 북잡다단하고 어려운 후퇴의 정황에서 후퇴를 못하고 박경훈의 처의 해산을 돕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주인공 김정학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가장 가까운 동무이며 남편의 친구의 아들인 박경훈과 처를 생각하여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목숨 내걸고 적후에 남는데 이것은 가슴뜨거운 이야기이다. 이것은 당의 품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공산주의자들만이 가질수 있는 숭고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독자들은 목숨 걸고 새 생명을 지켜나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에게 정을 주며 거기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아름다운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소설의 이야기가 조선사람과 미제날강도의 투쟁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 생명을 지키는 참된 사람들과 새 생명을 짓밟는 승냥이들과의 대결을 펼쳐보이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 문제를 더 발전시키지 않고 해산 그자체로서 끝내고말았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성격발전, 박경훈의 성격발전과 별로 인연이 없는 하나의 일화처럼 되고말았다. 그런가 하면 이와 류사한 다른 이야기가 잇달아 새로 나오는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옹호

하는 그의 정신적미가 점차 더 희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그것은 주인공과 박경훈, 고은주의 관계에서 볼수 있다.

주인공 김정학과 박경훈은 유별한 사이이며 운명을 같이 할 동지관계이다. 그러나 김정학은 이러한 특성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박경훈은 공장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백금망을 감추고 적들에게 체포된다. 그를 하루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동지를 원수들의 손에 죽일수 있고 또 백금망도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김정학은 박경훈이 체포된 다음 그를 구출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으며 다만 이 사실을 놓고 가슴아파한다는 작가의 설명이 모든것을 대신하고있다. 로동과정에 맺어진 오랜 벗이며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 같이 남은 동시인 그들의 관계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렇수 없다. 뿐아니라 그의 처의 해산을 돕기 위하여 자기 어머니 마저 후퇴시키지 않은 그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독자들이 말하다싶이 심장에 피가 끊지 않으며 정이 가지 않는 인간처럼 그려졌다.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독자들로서는 사실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을 잘 그려주지 않았기때문에 작가가 김정학의 투쟁을 아무리 력점을 찍어 잘 그려도 믿지 않는것이다. 인간의 정신적미를 잘 그리면서 그와의 련관속에 그의 혁명투쟁을 그리는것이 우리 시대 혁명가의 전형창조원리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소설에서 주인공 김정학과 그의 애인 고은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볼수 있다.

김정학의 애인 은주는 전략상 일시적후퇴의 어려운 정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당황해하며 게다가 아버지가 적기관에 가담하면서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다.

독자들은 마음씨 곱고 아릿다운 은주가 바른 길로 굳세게 나아가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동시에 여기에서 당원이며 애인인 주인공 김정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놀아 사랑도 꽃피우고 혁명가로도 키워줄것을 크게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독자들의 이 아름다운 소망은 소설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정학은 은주의 속은 모르고 한두마디 설복하다가 말을 듣지 않게 되자 그렇게도 쉽게 죽으라고 하는것이다.

《은주는 정학의 팔소매를 붙잡았으나 정학은 가차없이 뿌리쳤다.

〈걸어치우시오.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스스로 끝장을 내시오! 용기가 없다면 내 권총을 빌려줄수 있소! 이것은 동무를 진심으로 또 깊이깊이 사랑한 내가 동무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오! 자!〉

정학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여 은주앞에 내밀었다.》

주인공 김정학의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리유로도 그리고 혁명적원칙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박지 못한 원칙성은 참다운 의미에서 원칙성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끓지 않는 당원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당정책을 견결히 집행할 수 없으며 자기의 애인 하나 참답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민을 참답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인공에게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던 독자들의 기대는 꺾이고만다. 주인공에 대한 기대로 하여 뜨겁던 가슴은 식어진다. 숭고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주인공에게 정이 갈 수 없으며 정이 가지 않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응당하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재미가 없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

주인공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리지 않는 문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성격창조원칙에도 어긋나고 작품을 인간학으로 만드는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적미는 정치성과 인간성이 가장 높은 평지에서 결합된 데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은 성격창조에서 언제나 그의 유기적인 결합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에서 인정미와 인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성격창조원칙도 원만히 구현하지 못하고 충만된 성격을 창조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문학이 인간학이라는 그 문제와도 관련된다.

소설은 반드시 인간학적으로 되어야 한다.

소설은 인간생활을 그리기때문에만 인간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줌으로써 하여 인간학으로 된다.

그런데 이 장편소설은 주인공 김정학을 실제상 인간학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인간답게 그리지 못함으로 하여 참다운 인간학으로 완성될 수 없게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자기 소설의 인물들과 그들의 생활을 본질적 측면에서 깊이 연구하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탐구 발견하여 철저히 구현하고 형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인간과 생활의 결만 보고 다른 인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형상함으로써 성격과 형상에 특색이 없고 생동하지 못하다. 또한 자기 주인공의 심장깊은 곳에서 비쳐나오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쥐고 그를 일관하고 빛나게 형상하여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여 정이 가는 기름진 형상을 창조할 수 없었다.

나는 독자들에게 다시 물었다.

새것이 없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때문에 만 이 소설이 재미없는 것인가고?

독자들은 대답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들 하였다.

하지만 또한 목수가 재간이 없어서 집에 기둥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기와를 바로엮지 못하며 미장을 서툴게 한 집과도 같이 작품에서 기교가 무디고 형식미가 없는 것도 재미가 없는 다른 원인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독자들의 의견을 좇아 나는 다시 소설의 장면들을 더듬어보았다.

그것은 과연 옳은 말이었다.

등장인물들의 극적체험과정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맞물리지 못한 것도 그 레로 될 것이다.

이 장편소설에서는 인물들의 극적체험과정에 생활축적과 감정축적과정에 생활의 논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심화되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며 그 체험이 주인공의 운명문제와 밀착된 것으로 극적으로 첨예화되어 독자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여야 하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레하면 주인공 김정학이 비료공장설계도면을 적들이 모르게 음습시키는 장면을 들 수 있다.

김정학으로서의 가장 어렵고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면에서 극적체험을 축적심화시켜 보여주어야 하겠으나 이 극적인 정황을 작가는 추상적인 대사로 대치시키었다.

한대목을 보면 김정학의 체험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혼자말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 말을 흘리자! 파오를 범하기는 쉬워도 씻기는 이렇게 힘든게지. 그렇지만 씻어야 해! 땀이 모자라면 피를, 피가 모자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파오를 씻고 깨끗하고 순결한 당원이 돼야 해!》

이 말 자체는 나무랄데 없다.

그러나 극적체험이 없이 이 말이 나옴으로써 이것은 형상의 옷을 입은 말이 못되고 그의 성격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못되었으며 작가가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을 주인공에게 강요한 것밖에는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작가는 열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독자들은 아무런 감흥도 받지 못하며 특히 그것이 주인공의 운명문제와 밀착되어 펼쳐지지 못함으로 하여 긴장성을 띠지 못하고 독자들을 작중세계에로 끌어당겨주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여 긴장성이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이다.

기교와 형식에 대하여 말한다면 소설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이 장편소설은 기본갈등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일방으로 하고 우리 인민을 타방으로 하는 투쟁으로 옳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갈등을 옳게 설정하는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는 또한 갈등을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제도의 본질과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줄수 있다.》

갈등을 옳게 설정하는것뿐아니라 그의 전개와 해결을 옳게 처리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설은 응당 옳게 설정된 갈등을 점차 심화시켜 성격을 창조하고 설정된 예술적과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 김정학과 갈등대방이 사건체제전반에서 극적으로 얹혀져 예리화되고 심화되지 못한채 《해결》을 보고있다. 미군 사령관 월드와의 대결이나 《치안대》대장 송치환이와의 대결이나 《치안대》원 탁종암과의 대결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설정된 갈등이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하게 부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 장편소설이 형상창조의 힘있는 수단인 갈등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문제로 되는것은 이 장편소설에서 사상주제적과업에 맞게 갈등을 심화시키고 첨예화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오해를 많이 설정하고 그를 첨예화함으로써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방해한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특히는 《누가 누구를》 하는 심각한 적후투쟁조건에서 적대적갈등을 미미하게 그리고 동지들사이의 오해를 강조하여 묘사하는것은 옳은 미학관이라고 말할수 없다.

장편소설에서는 보는바와 같이 김정학에게서는 미군과의 대립이나 그의 《치안대》와의 대립보다 고추봉, 고은주와의 사이에 있게 되는 오해가 더 진하게 그려졌다. 그리하여 소설에서 더 두드러지는 인물선이 김정학 고은주, 김정학 고추봉 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홀시할수 없는 문제로 나선다.

생활이란 사람들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만큼 생활과정에는 오해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혁명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주되는것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또 전면에 나서도 안된다. 더우기 그것으로 하여 기본갈등을 약화시키거나 덮어버리는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장편소설에서는 기본갈등보다 오해선이 더 진하게 그려지고있으며 적들과의 극적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오해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성격의 진실성을 잃게 하고 생활을 외곡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독자들이 이 소설이 재미없다고 하는것은 인물배치가 짜이지 못하고 형상과제가 명백하지 못한것과도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별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그자체로서는 의의있는것으로 보일지라도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형상과제가 뚜렷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는것이다.》

인물배치와 사건조직을 잘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서와 작품을 재미있게 끌고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서도 주인공을 제 위치에 놓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것은 자못 중요하다.

구성에서 주인공은 여러 인물들을 편결시키고 끌고나가는데서 언제나 중심에 서야 하며 인물관계가 명백하고 탄력성있게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주인공선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많이 달린다.

그러나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은 주인공선을 잘 살리지 못하였다.

작가는 응당 주인공을 중심위치에 놓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이 작품의 중심에 서있다고 보아지는 장면들의 비중이 매우 적다. 이로부터 소설전반을 거쳐 주인공 김정학의 형상이 뚜렷하지 못하다. 주인공은 꼭 나와야 할 때 나와야 하지만 또한 필요한만큼 나오고 나와야 할 대목에 나오지 않으면 성격이 흐려지고 형상이 선명하게 안겨오지 않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소설에서는 생활반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자리를 더 주지 못한것도 아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후퇴못한 몇몇 가정과 노동자들의 생활밖에는 그린것이 없다. 그런데도 작가는 주인공에게 너무 적은 무대를 주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에게 형상과제도 제대로 주었다고 볼수 없다.

주인공은 응당 소설의 기본형상과제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공 김정학은 기본형상과제 수행에서 중심적역할을 놀지 못하고있다. 그는 혼자서 공장설계도면을 음뻐한다든가, 뒤늦게 취해진 박경훈의 탈출을 보장한다든가, 뼈라공작을 한다든가 공장해방전투에 참가하는것이 그 전부인데 작품의 형상과제에 비추어보면 매우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중요한것은 주인공이 이것조차도 심도있게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있다.

레하면 공장지하당세포의 활동이 이 소설에서 중심문제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소설전반을 통해 보아도 주인공이 적과

의 투쟁에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앞장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드물고 누가 조직하고 시키는 일이나 피동적으로 하기가 일쑤이다.

주인공은 차량들을 끄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것이다.

이 장편소설을 보면 앞부분에서 후퇴의 뒤처리를 맡은 노동자들이 공장설계도면을 음폐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그려져있다. 여기에는 조상원, 박경훈, 김정학, 신종섭 등이 나오는데 아직은 누가 주인공인지 분명치 않다. 사건은 전진하여 조상원이 죽고 신종섭이 부상당하며 박경훈이 체포되면서 비로소 김정학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데 공장지하당세포의 위원장으로 장효삼이 오자 김정학의 역할은 다시 미미해지고만다. 그후 장효삼이 전사하고 김정학이 세포위원장으로 되나 그때에도 그의 역할에서는 눈에 띄우는것이 별로 없다. 주인공이 이렇듯 상당한 위치에서 마땅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하여 신종섭, 고추봉과 같은 다른 인물선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인공이 움직이는데 따라 다른 인물들도 움직이고 주인공이 사고하는데 따라 다른 인물들에게 일이 생기게 되어야 하겠는데 소설에서는 오히려 장효삼이나 고추봉이 움직이는데 따라 주인공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것은 주인공이 언제나 직접 앞에 나서야만 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주인공은 비록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그에 의하여 조성되는 사건에 다른 인물들이 끌려들여와 련계를 맺고 사건의 진척에 관여하며 주인공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다시말하여 사상주체적과업해결에로 모두가 움직이게 되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렇게 역할하지 못하며 그로부터 구성의 대가 바로 설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인물들도 주인공과의 관계에서는 제구실을 못하고있다.

장편소설에서 매개의 인물선은 고립된 형상선인것이 아니라 주인공선을 살리는데 복무하는 선이다.

그러므로 매개의 인물선은 자기고유의 특색을 나타내면서도 언제나 주인공선을 보충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에는 부족점이 많다.

다 아는바와 같이 소설에는 신종섭, 리태국, 원예숙, 고추봉 등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대체로 자기선으로만 발전하고 주인공 김정학과는 별로 련계가 없다.

이것은 이 소설의 형상이 생동하지 못하고 재미없는 까닭을 구성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립증해 준

다.

이 장편소설은 인물배치에서도 빈구석이 많고 군더더기도 적지 않다.

레하면 원예숙은 소설의 앞부분에 적지 않게 나오지만 그는 소설의 사상주체적과업해결에 기여하는것이 없으며 소문없이 사라진다.

리태국도 지하투쟁과정에 입당까지 하지만 그의 활동은 소설전반에서 거의 없다. 자치회부회장 최병욱, 거리에 사는 오파부, 노동자근위대 책임자 김광준 등 요란한 이름만 있고 역할이 없는 인물이 허다하다. 똑똑한 형상과제도 없이 언제인가 등장했다가는 소문없이 사라진 이런 인물들은 사실상 작품에서 보태는것 없는 덧이나 다름없다.

이 소설에는 겹놓이는 인물도 있다.

어슷비슷한 인물을 겹놓으면 한사람이 능히 감당할수 있는 형상과제를 결국 몇사람이 맡는것으로써 형상밀도를 낮추고 구성에 흠을 만든다.

장편소설을 더듬어보면 당적 량심과 지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볼 때 박경훈과 신종섭의 과제는 어느 한 사람으로서 능히 해결할수 있으며 당조직을 꾸리고 이끄는 문제에서는 장효삼과 김정학이 겹놓인다고 볼수 있다. 또 투쟁하는 당원들에게 집이나 보장해주는것이라면 최병국과 오파부가 또한 겹치는 인물이다.

이렇게 겹놓이는 인물이 많으니 소설은 반복감이 생기고 작품에 대한 주의력은 무디게 되었다.

인물배치에서 빈구석은 형상의 함정이며 쓸데없는 인물의 설정은 형상의 덧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이 장편소설이 얼마나 구성조직이 서툰가를 보여주며 독자들이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를 더욱 잘 알게 한다.

우리의 독자들은 신비롭고 령기적인것에 매력을 느끼는 저속한 독자가 아니다. 그들은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문화수준과 예술적요구가 높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예술의 향유자들이다.

나는 우리의 독자들이 장편소설 《적후의 별들》이 재미없다고 한 말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소설의 작가와 모든 창작가들이 이를 교훈삼아 새 창작 전투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독자들이 작가에게 하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우리에게는 창작사업의 불멸의 지침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사상이 있고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다. 이것은 창작가들의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모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보다 높은 창작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써 보답하자.

대동강을 기행하면서

오영재

길 동 무

주룩주룩 우산끝에서
비물은 떨어지는데
강아
어찌하여 내 너를 따라
이처럼 끝없이 가고있는것인가
갈길은 다 같이 멀어도
너와 나 가야 할곳은 서로 다른데...

흘러서 흘러서
너 바다로 가면
그 품에서 지친 몸을 풀며
너는 편히 쉴수 있으리라만

너처럼 쉴곳을 찾아
내 걷고있지 않노라

이 땅 내 나라를 더 알고싶어
아버이 그 사랑을 더 새기고싶어
내 가는 길은
시인이 걷는
로력의 길 탐구의 길

《녕원-16km》
리정표는 외로이 비에 젖어 서있다
강아
너와 나 가는 마음
이리도 다르건만
네 우에 비낀 조국이 사랑스러워
네 기슭에 꽃핀 마음들이 아름다워
이렇듯 친근한
길동무가 되었구나

물길을 따라 내 걸어보니...

물길을 따라 내 걸어보니
물도 가는 법이 있구나
여울에서는 달리다가
깊은 소에서는 쉬어서 가고...

아무렴 바다에까지 가닿을라니
어찌 먼길에 힘겹지 않으랴
세상의 모든 리치가 다 이러해

나도 이날까지 너처럼 살아왔노라

그러나 이젠 너처럼 가지 않으리
나의 앞에는 쉬여갈 소가 없으리
흰 물갈기처럼 옷자락 날리며
나는 달려만가리
나의 발걸음마다에서
여울물소리가 언제나 울리게

물어서 가리

30리는 실히 걸었으련만
알고보니
지름길로는 5리
산등성을 타고 내린 그 지름길을 보며
한동안 아쉬워 서있었나니

내 진작
저 지름길을 알았더라면
지금쯤은 얼마나 멀리 갔을것인가
이날까지 걸은
내 생활의 길우에
이런 걸음 얼마나 많았던가

때늦은 회오이지만
이제 더 가야 할 길에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아이처럼 순진하게
묻고 또 물으며 가리-

어제의 잘못도
오늘에 채심하면
묻어주며 기뻐하는 품
어머니 우리 당에

사랑이 없이 바친 로력은

사람이 없이 바친 로력은
계산할수 있으리 정확한 보수로
그것은 두고두고 그의 가슴에
수고로 남아있는것이기예

진정으로 그가
벗을 사랑했다면
그가 바친 로력과 희생은
계산할수 없으리

그 수고는 그의 가슴에서
모두다 기쁨으로 변해버렸기에

묻노니, 사람들이여
한생을 안아 자식을 키우고도
기울인 정성과 로력을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들을
이 세상에 본적 있었던가

원하노니, 나의 시편들도

보아도 보아도 싫지 않구나
사랑스러운 강의 흐름이여
굽이마다 그 모양 서로 다르고
여울마다 물소리 같지 않아서

하루의 백리길을
너에게 취하여
어느덧 다 왔구나

말없는 길동무 사색의 벗이여

원하노니, 나의 시편들도
네가 짓는 모양처럼 서로 다르고
너의 노래처럼 단조롭지 않다면
사람들 한생을 가는 길처럼
즐거운 길동무를 만났다 하련만...

피의 부름

조병석

뉴욕, 빠리, 함부르크...
그 어디론가
낮선 이국의 기류우에
몸을 태울 비행기로
출발을 재촉하는 김포공항

리별과 상봉

눈물과 웃음이 교차되고
온갖 잡음으로 번거로운 출국장에서
나는 똑똑히 가려 듣는다

《오빠야! -》
《순희야! -》

손목 잡혀 끌려가며
눈물속에 부르짖는 너동생의 목소리
우악스러운 다른 한손에 잡혀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열살됨직한 오빠의 목소리

초라한 어린 모습들의
가슴치는 웨침이건만
그 작은 몸 하나 세워줄 땅이 없어
그 작은 몸 하나 안아줄 품이 없어
못듣는가, 안듣는가
오, 남녘땅이여

광주에서 왔다는 저 애들
5년전
《계엄군》의 대검아래 쓰러진
어머니의 싸늘해진 품에서조차
뜯기워 내동댕이쳐진 오누이

피가 질박한 보도우
주검과 주검의 사이로
애처로운 발자국을 찍으며
첫 걸음마를 떤던
그 거리에서 쫓겨난 불우한 두 생명

오늘은 풀썩이 돌아나는 산기슭
래일은 행여나의 인정을 찾아헤매였건만
몇푼의 팔라에 몸무게를 달며
드디어 다달은곳 여긴가
해외입양의 길
생리별의 이 순간인가

이제 리륙의 바퀴만 뜨면
두알의 모래알처럼 굴러온 한피줄이
그나마도 떨어져야만하는 순간
다시 만날날을
기약할수 없는 이 시각

그것이 터뜨리는 오열인가
그것이 토하는 통분인가

《오빠야! -》
《순희야! -》

겨레의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
애간장이 타는 저 웨침은
피를 뿜던 광주의 참화가
여기에 이어지는 소리
흐르는 세월속에 덧쌓여만가는
겨레의 피울음이
여기에 옮겨지는 소리

아, 산설고 물설고
안길 품도 쓰다듬어 줄 손도 없는 땅
떠나보내면 안되는
허나 잡아둘 손이 없는

그 원한과 통분으로 하여
아들딸들을 잃은 광주가
이 시각도 몸부림치고있구나
그 설움에 터치는
짓밟힌 남녘겨레들의 울음이여

저 피를 나눈
우리의 아들이며 딸이
목메여 부르는 생리별의 목소리
울려오지 않느냐, 민족의 가슴에
또다시 광주의 폭풍을 부르는 메아리로
온 겨레를 불러세우는 피타는 웨침으로

남이 없는 우리 사는 나라
백정 없는 새세상이 설 때라야
그때라야 사라질 원한의 울음소리
그날에로 부르는 피맺힌 부름!